

기본연구과제 2005-00

평생학습도시조성을 위한 학습인프라 실태분석

- 충청남도 평생교육기관 중심으로 -

송두범
양병찬
최명주

발 간 사

21세기의 키워드는 학습과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도시와 지역들이 그들 발전전략에 학습, 교육, 연구와 혁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정부·기업·민간부문·사회가 협력하여 지역살리기 차원에서 평생학습과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도시와 지역들이 학습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이유는 이미 세계는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추세에 동승하기 위해서 인적자원개발, 지식기반의 창출, 평생학습체제 구축 등이 가장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OECD주도하에 범세계적인 학습운동의 확산과 더불어, 학습도시는 1979년 일본의 가케가와시에서 최초로 선언한 이후 1992년 Gothenburg시에서 개최된 OECD회의가 도화선이 되어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부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05년 현재 전국의 33개 시·군·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평생학습도시가 주민들에게는 생소한 용어이고, 사업추진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도 경험과 자료가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다만, 학계를 중심으로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 나라 고유의 모델을 만들어 내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수의 자치단체들은 평생학습도시와 관계없이, 이미 지역대학, 민간단체, 평생학습관,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 평생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역 내 기관 및 시설을 통한 평생교육은 그 주체가 다양하여 주민의 학습욕구나 개인별 수준을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평생교육의 체계적 추진과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활성화에 효과적인 제도

화된 평생학습도시 지정신청을 하고 있으나, 제한된 수로 인해 신청한 자치단체중 일부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정요건중의 하나인 평생학습 인프라 즉, 평생학습기반기관 및 시설, 평생학습프로그램, 평생학습기관 종사자, 평생학습 추진체제 등에 대한 현황 및 실태분석을 통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 정책에 보다 효율적으로 준비 및 대응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평생학습도시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보다 실천적인 후속연구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과제를 책임지고 수행한 송두범 연구위원과 공동연구를 해준 공주대학교 양병찬 교수님, 충남인적자원개발센터 최명주 연구위원에게도 감사드린다. 연구과정 내내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평생교육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5년 10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장 김 용 응

목 차

발간사

제1장 서론	1
1. 문제의 제기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범위 및 방법	3
4. 용어의 정의	4
제2장 평생학습과 평생학습도시	6
1. 평생학습도시 이론 검토	6
1) 평생학습의 정의	6
2) 평생학습도시의 의미	10
2. 평생학습도시 정책 검토	12
1) 평생학습도시 추진배경	12
2) 평생학습도시 추진현황	14
3) 평생학습도시 추진현황 비교	15
4) 지방자치단체와 평생학습도시	18
5) 평생학습도시 정책추진 과제	21

3. 국내외 평생학습도시 사례비교	24
1) 외국평생학습도시 사례	24
2) 국내평생학습도시 사례	31
4. 충청남도 평생학습도시 사례	39
1) 금산군 평생학습도시	39
2) 부여군 평생학습도시	45
제3장 충청남도 평생교육기관 및 추진체제 현황	50
1. 평생교육전담기관	50
2. 평생교육기관	53
3. 평생학습추진체제 정비	68
4. 평생학습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69
5. 시사점	70
제4장 충청남도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71
1. 조사개요	71
2. 조사결과	74
3. 시사점	122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24
1. 요약	124
2. 결론	129
3. 정책제언	131
참고문헌	135

제 1 장 서 론

1. 문제의 제기

지금까지 노동력과 자본이 기존사회의 개발을 주도하였다면, 향후 21세기에는 지식과 정보화가 중심이 된 지식기반정보사회로 그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즉, 종래의 자본, 노동력, 자원 등에 좌우되던 산업사회에서 창의적 지식에 의해 좌우되는 지식기반사회로 변함에 따라 인적자원의 양과 질이 그 나라의 경쟁력은 물론 사회구성원 각자의 '삶의 질'을 좌우하게 되었다.

특히 1999년 8월 '평생교육법'과 2002년 8월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제정으로 평생교육 및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법적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국민의 역량을 어떻게 개발·관리·활용하느냐는 문제가 중대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현재 평생교육법 제정에 따라 중앙에는 국가 수준의 평생교육센터, 16개 각 시·도에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그리고 각 시·군·구 단위 지역에는 평생학습관이 평생교육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인적자원개발 또한 국가 핵심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지역 안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인적자원개발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요소를 다양하게 포괄하고 있는 국가단위보다 동질성과 응집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단위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소극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지역발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¹⁾

이러한 흐름과 더불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적·물적 평생학습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지역학습공동체(Learning Community) 구축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200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²⁾

평생학습도시는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교육기관과 주민의 학습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습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개인과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정치적 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은 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하게 분포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인적자본을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최근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일본의 가께가와시가 세계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한 이후 중앙정부가 평생학습도시 시범시를 지정하여 조성사업을 벌인 지 30여년 만에 140여 개의 도시가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여 사업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Nottingham, Liverpool에서 Thetford, Batley까지 40여 개 학습 도시와 학습타운을 선언·발전시켜 현재는 다양한 학습마을/학습도시를 연대하는(Learning City Network) 방향으로 가고 있다.

OECD의 학습도시 사례연구 보고서는 지식기반 경제시대를 맞아 도시 및 지역에서의 학습, 생산성, 혁신, 경제 등을 증진시키는데 평생학습도시 운영이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충청남도에서도 금산군(2004년)과 부여군(2005년)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타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기초연구가 부족하였다.

평생학습도시를 타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의 기반이 되는 평생학습 인프라에 대한 실태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충청남도에서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의 기반인 평생학습 인프라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자원부, 2004년도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4

2) 1999년 광명시가 평생학습도시를 선포한 이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1년 대전 유성구, 광명시, 진안군, 2002년 제주시, 부천시, 부산 해운대구, 2003년 순천시, 안동시, 거창군, 서귀포시, 인천 연수구, 2004년 서울 관악구, 경기 이천시, 충북 청주시, 충남 금산군,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 경북 칠곡군, 경남 창원시 등 총 19개 도시를 평생학습도시로 선정하였음.

따라서, 충청남도 각 시군의 평생학습인프라 구축 수준을 분석함으로써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고자 하는 시군에 대해 평생학습인프라에 대한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요건중의 하나인 평생학습 인프라 즉, 평생학습기반기관 및 시설, 평생학습프로그램, 평생학습기관 종사자, 평생학습 추진체제 등에 대한 현황 및 실태 분석을 통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 정책에 보다 효율적으로 준비 및 대응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연구목표를 살펴보면 첫째, 평생학습도시 정책 및 해외사례 검토를 통해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평생학습도시 조성 필요성과 유용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한다.

둘째, 충청남도 각 시군 평생학습기관 및 시설 현황분석을 통해 평생학습기반 구축수준을 파악한다.

셋째, 충청남도 시군 평생학습기관 및 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실태 등 학습인프라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자치단체로 하여금 평생학습도시 지정시 요구되는 항목에 계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제시된 시설분류³⁾를 참고하되, 기존 연구의 분류형태로 학교평생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노인평생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시설, 청소년 평생교육기관, 문화원, 연수기관, 공공평생교육시설 등 8가지 시설로 분류하였다.

3) 학교형태, 사내대학형태, 원격대학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학교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충청남도 16개 기초자치단체 전역의 평생교육시설이며, 조사를 위한 시간적 범위는 2005년 6월 1일부터 6월 22일 까지(22일간)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관련문헌 및 자료분석으로 평생학습과 평생학습도시 및 국내외 평생학습도시 사례 분석과 관련한 문헌을 분석하였고, 또한 평생교육기관 현황분석을 위해 운영실태 관련 자료 및 선행연구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둘째, 설문조사는 평생교육기관의 인프라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16개 시군별 평생교육 기관 및 시설 154개 기관을 표본추출하고,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들에게 설문지를 우편발송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기관은 88개 기관으로 회수율은 57.1%를 나타내었다.

셋째, 분석방법에서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빈도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4. 용어의 정의

1) 학습인프라

학습인프라는 모든 조직을 학습조직화하고, 학습조직 내에서 모든 조직 구성원이 팀학습과 개별학습을 하기 위한 기반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학습인프라는 학습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기반시설로 기관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평생교육관련 인적자원, 교육시설 및 장비 등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2)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都市는 ‘사회통합과 번영, 개인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모든 부문의 학습자원을

동원하여 개인의 잠재력을 발전시키는 도시', '지역사회의 통합과 활성화', '경제발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습의 가치를 인정하고 활용하는 도시'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 '평생학습종합진흥계획'에 의거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해 선정된 '평생학습도시'로 규정하고자 한다.

제2장 평생학습과 평생학습도시

1. 평생학습도시 이론 검토

1) 평생학습의 정의

평생학습개념은 유네스코(UNESCO)가 1965년에 처음으로 사용하였고, 1970년 ‘국제교육의 해’를 통해 평생학습 개념이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평생학습 개념을 국가의 정책과제로 채택하여 실천에 주력한 국가는, 초기 학교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개발도상국보다는 서구 유럽이나 미국, 일본과 같은 경제 선진국이었다.

당시 이들 선진국은 경제적으로 서비스산업의 비중 증대, 대량생산과 조립라인기술에서 소규모 주문생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생산과정, 즉 포디즘 산업구조에서 포스트포디즘 산업구조로 이행해 가는 단계에 있었다. 한편 사회적으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정보화, 평균수명 연장, 여가시간의 증대라는 변화에 직면해 있었다. 포스트포디즘 경제구조로의 전환과정에서 노동의 질이 중요해지면서 인간자본(human capital)개념의 등장과 중시, 그리고 급격한 사회변화의 대응과 맞물려 1970년대부터 경제선진국은 평생학습을 국가정책으로 적극 채택하였던 것이다

평생학습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하고 세계 각 국에 권고한 유네스코의 정의에 따르면, ‘평생학습이란 현행의 교육제도를 재편성하는 것과 교육제도 밖의 교육에 있어서의 모든 가능성을 계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 체계를 말한다. 교육 및 학습은 취학기간에만 한

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서 모든 기능 및 지식을 포함하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인격의 충분한 발달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신경희, 2002 : 12-29)

우리나라에서 평생학습 용어개념은 법적 측면에서는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작성한 '평생학습법 제정 시안'에서 제2조(용어정의) '평생학습'이라 함은 "국민의 자질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형태의 학습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평생학습은 개개인이 주체적 학습자로서 평생에 걸친 학습생활을 주체적으로 관리하며,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학습자를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학습자의 입장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학습의 기회를 제공받고 학습활동을 지원받는다는 개념으로 배경설명을 하고 있다.

한승희(2004)는 '평생학습이란 전 생애에 걸쳐 자신의 경험을 구성해 가는 자기주도적 학습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1990년대 초반 이후로 EU에서는 평생학습을 주요 정책으로 채택하여 지식사회의 도래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유럽 만들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다른 한편 유럽 공동체(EU)의 발족으로 유로화가 상징하듯이 하나의 유럽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식경제 구축을 위한 경제적 경쟁력과 고용가능성 제고 못지않게 하나의 유럽 공동체와 시민사회 건설을 위한 사회적 포용과 적극적 시민정신 형성이 강조되고 있다. 유럽의 평생학습정책의 이념은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적극적 시민정신과 지식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요약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상이 전략이 바로 평생학습이다. 정치적 필요와 경제적 필요를 절묘하게 조합시킨 것이 바로 평생학습전략이다. 이러한 EU의 동향은 ASEM 평생학습 회의에서 보듯이 아시아와 유럽의 평생학습의 개념과 이념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U국가의 평생학습 개념 정의는 <표Ⅱ-1>과 같다.

일본은 세계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 국가이다. 일본에서는 교육구조와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가운데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살리기 전략에 평생학습 개념을 접목시키고 있다.

<표Ⅱ-1> EU 국가의 평생학습개념 정의

국가	평생학습에 대한 국가 정의(1996) ECOTEC Report	평생학습에 대한 국가 정의(2000) EURYDICE Report
오스트리아	평생학습은 개인과 사회 국가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과정이다.	평생학습은 교육의 확대, 훈련제공,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증대, 시스템의 투자를 증대를 지칭하는 의미에서 계속 교육의 확대로 사용된다.
벨기에	평생학습은 경제, 사회, 과학기술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고양과 관련된다.	계속교육 훈련과 관계된 표현은 있지만 공식적인 정의는 없다.
덴마크	평생학습은 개인이 교육시스템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평생학습은 모든 사람들이 생애의 모든 단계에서 학습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의 기술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개념은 일반교육이건, 직업훈련이건, 개인적 학습이건 간에 기술의 모든 범위를 포괄한다.
핀란드	평생학습은 모든 종류의 사회적, 개인적 발전을 포괄한다. 개인의 발전, 민주주의 가치, 공동체 삶, 기술혁신, 생산성 증대와 경제적 성장을 위한 사회적 규범 양산을 포함한다.	평생학습은 전 생애와 모든 형식의 교육을 포괄한다.
프랑스	평생학습은 일생동안의 지속적인 교육이다.	평생학습의 개념은 계속직업훈련 이념의 확장이다.
독일	평생학습은 일생동안의 일반교육, 직업훈련, 계속교육과 훈련을 통합한다. 또한 전문가 훈련과 직업훈련을 포함하며 정치 사회적 발전을 위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과학기술의 변화에 응답한다.	법적 규정은 없다. 그러나 평생학습은 교육과 직업훈련정책, 시민들이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삶의 기회으로부터 도출되는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된다.
그리스	다면적 정의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평생학습은 지식과 기술 성취를 위한 도구로 이해된다.	포괄적 정의, 주로 성인기의 형식, 비형식 교육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사용된다.
아일랜드	평생학습은 만인을 위한 학습참여 증대를 의미한다. 개인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교육체제, 삶과 학습의 시너지 효과, 유연하고 적응적 학습 도구의 촉진 등을 포함한다.	1999년 국가 정책계획에 따르면 평생학습은 지식, 기술, 능력 고양을 위한 형식, 비형식 영역의 목적 지향적 학습 활동이다.
이탈리아	직업훈련보다는 시민교육, 일반교육, 특히 비취업자들의 일반교육과 관계된다.	평생학습이라는 용어는 1996년 처음으로 사용되어 형식 비형식 교육을 모든 연령계층으로 확대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었다.
룩셈부르크	평생학습은 학습과 학습이 가져오는 성취의 필요성을 개인이 인식케 하는 것이다.	공식적인 정의는 없지만 계속직업훈련과 성인교육 훈련을 지칭한다.
포르투갈	평생학습은 개인이 자신을 개발하는 지속적 과정이다.	평생학습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자신의 전 생애와 일치하는 교육과 형식적 과정이며, 둘째, 경제 사회의 변화와 연계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지침들이다.

스페인	평생학습은 직업교육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일반교육으로 이해된다. 최근 피고용자들에게 대한 노동시장훈련 또한 고려되고 있다.	공식적 정의 없음. 체제 개혁의 틀로 이해되고 있다. 전통적인 개념을 넘어 전생애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개념으로 법적 규정
네덜란드	평생학습은 시민들과 노동자들에게 사회와 노동시장 변화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태도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훈련, 학습을 포괄한다.	평생학습은 목적 지향적 학습활동으로 지식, 기술, 능력고양을 목적으로 하는 지속적인 형식, 비형식 학습을 의미한다.
스웨덴	평생학습은 직업생활,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속적인 무형식 학습이며 시민의 교육접근의 권리에 근거한다.	평생학습은 학습에 대한 다차원적 개념으로 사용되어 재교육이라는 개념보다는 형식, 비형식 교육을 포괄하는 계속교육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영국	평생학습은 과학기술과 조직의 필요에 응답하기 위해 노동 현장에서의 기술 수준을 높이는 것과 관계되고 사회 문화적 차원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공식적인 정의는 없으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환경에 관계없이 일생동안 학습하고 자신의 기술을 높일 수 있는 학습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과 관계된다.

자료 : ECOTEC, The Contribution of Community Funds, Initiative and Programmes to Lifelong Learning(Birmingham: ECOTEC, 2000)

평생학습은 한 마디로 말하기가 어렵다. 일본의 경우, 일찍이 법률로 제정해 화제가 된 「평생학습진흥법」에서도 평생학습에 관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당시, 정의함으로써 그 의미가 일정한 테두리에 얽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법제정 당시의 관계자의 판단을 내렸다. 그 정도로 넓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공식적인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평생학습의 내용으로서 해석되어 있는 것은 일찍이 중앙교육심의회가 ‘평생학습의 기반정비에 대해서’라는 보고서에서였다. 거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평생학습은 자기를 향상시키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습으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시간에 걸쳐서 행하여지는 것이다. 그 내용은 당연한 것이면서 시민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친 내용이다(김득영, 2003 : 20-21)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평생학습은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이념적 성격을 갖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에는 평생교육을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OECD, 유네스코를 비롯한 세계 기구나 평생학습정책이 앞선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학교교육을 포함한 개인의 의도적·조직적 학습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평생학습정책에서는 평생학습의 내용범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으나, 평생학습정책의 내용범위에 직업교육 훈련외에 취

미교양, 문화, 스포츠 및 자원봉사, 학습소집단 활동이 포함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신경희, 2002 : 10)

2) 평생학습도시의 의의

평생학습도시는 1979년 일본의 가케가와시에서 선언한 이후 1992년 Gothenburg시에서 개최된 OECD회의가 새로운 도화선이 되어, 영국, 스페인, 호주, 캐나다, 미국, 남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약 140여개, 영국은 46개의 평생학습도시가 있다. 현재 평생학습도시는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와 함께 OECD 주도하에 범세계적인 학습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학습도시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학습기회는 여성, 노인, 청소년 등의 다양한 대상과 문화, 환경, 자치 등 다양한 내용의 교육이 제공되며, 다양한 대상과 다양한 내용의 학습기회 제공에 있어서 예산투입과 행정추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추진되고 있다. 평생학습도시는 지식기반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도시와 지역사회에서의 학습, 생산성, 혁신, 경제 등을 증진시키는데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되었으며, 행정 및 정치가들이 추진해야 할 주요 아젠다로 인정받고 있다(변종임, 2005 : 17-18)

평생학습도시의 논의는 짧은 기간동안 급속도로 활성화 된 듯하나 역사적 기원을 거슬러 오르면,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 폴리스에서 평생학습도시의 존재를 찾을 수 있다. 학습사회론을 주창한 허친스(Hutchins)는 나라 전체가 그리스의 폴리스처럼 학습하는 사회가 될 때, 사회가 개혁될 수 있다고 믿고, 도시가 인간을 교육하였고, 아테네인들은 파이테이아(Paideia) 즉, 문화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다고 보았다. 또한 로마의 사상가 키케로도 로마인들이 모두 에루디티오(Eruditio)⁴⁾가 되면 로마의 문명은 영원할 것이라고 하였다(김남선, 2004 : 12)

평생학습도시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지역의 크기와 규모에 상관없이 시(city), 읍(town), 또는 지역사회(community)단위에 사용된다. 즉 평생학습도시란 '사회통합과 번영, 개인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모든 부문의 학습자원을 동원하여 개인의 잠재력을 발전시키는 도

4) 배우는 사람, 자기 스스로 익히는 사람,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지칭함. 즉 도시전체, 나라전체가 지식이나 지혜를 익히는 사람들로 구성될 때, 즉 현대적 의미의 평생학습도시가 될 때, 그 도시나 그 나라는 개혁될 수 있고, 번성할 것이라고 하는 역사적 의미임

시'(Norman Worth, 1999), '지역사회의 통합과 활성화, 경제발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습의 가치를 인정하고 활용하는 도시'(www.lifelonglearning.co.uk)로 정의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평생학습도시를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증진, 경제적 경쟁력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⁵⁾ 건설을 도모하는 총체적 도시 재구조화(Restructure)운동”으로 그리고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자원을 기관간 연계, 지역사회간 연계, 국가간 연계시킴으로써 네트워킹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지역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지역사회교육 운동으로 이해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2004)

Norman Longworth(1997)는 '학습도시(lifelong learning city)란 기본적인 번영, 사회안정, 개인의 행복에 있어서 학습이 열쇠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도시로서 모든 시민의 최대한의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인적자원, 물적자원, 금융자원을 동원하는 도시'로 정의한다. 학습도시는 평생학습에 대한 참여확대 지원과 학습을 이용한 사회적·경제적 재생에 목적을 두고 있다(LCN, 2000 ; 변종임, 2005 : 17에서 재인용). 따라서 학습都市는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모든 교육자원을 기관간 연계, 지역사회간 연계, 국가간 연계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적 의미의 평생학습都市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의미로 요약해 볼 수 있다(김남선, 2004 : 12-13)

첫째, 학습사회의 실현의 장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학습都市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도시로, 시민 모두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면적 책임을 질 능력을 가진 도시이다. 학습都市는 학습을 위한 영원한 가능성을 창조하는 문화적 풍토를 지니는데, 유럽평생 학습도시연합(ELLI)이 제정한 학습도시 헌장에 따르면, 미래의 번영과 안정, 그리고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주된 원동력으로 학습의 절대적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사회 안에서는 평생학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만인을 위한 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고 도시의 교육

5) 학습공동체는 학습을 통한 번영, 통합성, 지속가능성을 목적으로 하는 네트워킹 학습사회를 의미한다. 학습공동체는 파트너십을 통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요구를 찾아내고, 학습의 가치에 대한 문화적 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적 관계와 제도적 관계의 강점을 활용한다. 학습공동체는 지역사회의 모든 부분을 포괄하는 사회적 결속, 재생, 경제적 발전을 증진시키는 방편으로서 학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Yanit, 2000).

자원을 최대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의 모든 부문간에 생산적 파트너십을 형성시켜야 하며,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학습의 필요를 발견하고 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 제공기관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학습경제의 실현의 장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토지·노동·자본에 기초한 자원기반경제에서 지식의 경제적 가치가 생산요소가 되는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은 지식과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학습경제는 지식이 기반이 되는데, 이 지식은 도시의 문화환경에 의하여 발전되며, 학습경제에서 경쟁력 제고는 지역 주민의 상호신뢰와 인적자원을 형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 시스템, 즉 평생학습도시 만들기에 달려 있다고 본다. 지역의 혁신은 각 학습자의 개별적 학습뿐만 아니라, 개별학습에 의해 만들어진 지식을 확충하고 조직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조직학습(organizational learning)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서 효과적인 조직학습은 상호작용이 가능한 공동체 내에서 가능하며, 평생학습도시는 이러한 조직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공유와 창출의 장임을 의미한다.

2. 평생학습도시 정책 검토

1) 평생학습도시 추진배경

한국에서는 1994년 창원시에서 평생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부터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하였고, 1999년에는 광명시가 한국 최초로 평생학습도시 선언을 하면서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정부는 평생교육의 세계 흐름에 부응하여 2000년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였으며, 2001년부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정책을 통해 지역의 경제적 발전·사회적통합·도시경영 합리화·학습공동체 형성 등을 기대하고 있다(김남선, 2004 : 16).

우리나라 교육인적자원부(2004)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의 역할 증대와 학습공동체 조성에 대한 요구이다. 정보화의 발달로 국가 발전에 있어 지역사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또한 지역단위 학습공동체를 조성함으로써 모든 분야에서 지역사회공동체가 형성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인적자원개발 촉진이다. 지역인적자원개발(RHRD)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인적자원개발(NHRD)의 기반구축과 국가발전의 재도약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교육행정과 일반행정간의 네트워크 구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스포츠시설, 복지시설 등을 활용한 지자체·교육청간의 공동 협력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희수(2004)에 의하면,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추진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기반사회의 대응이다. 지식기반사회, 평생학습사회, 인적자원개발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지식의 창출, 유통, 소비 행위는 궁극적으로 학습과 관련된 행위이다. 평생학습도시 운동을 전개하여 지역 단위의 학습공동체를 조성함으로써 지식기반사회의 지역개발, 지역재생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배경이 자리하였다.

둘째, 지역평생학습의 활성화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평생학습에 대한 논의와 정책은 중앙 정부 수준에서 거대 담론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평생학습의 시작과 끝은 지역사회라는 인식이 자리하기 시작하였다. 학습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학습 공동체를 조성하는 전략은 곧 평생학습의 지역화 전략으로서 학습도시 조성사업이 제안되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평생학습 참여 사업을 활성화시키려는 배경이 자리하였다. 최근 광명시, 창원시, 군포시, 김해시, 진해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조례 제정을 통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사업을 특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때 정부가 국가 지원을 통하여 활성화를 촉진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배경이 자리하였다.

넷째, 국제조류에 부응하려고 하였다. 학습도시는 1979년 일본의 가께가와 시에서 선언한 이후 1992년 Gothenburg시에서 개최된 OECD회의에서 새로운 도화선이 되어, 영국, 스페인, 호주, 캐나다, 미국, 남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웃 일본의 경우 평생학습도시 약 140여 개, 영국의 평생학습도시 46개 등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초기에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다.

다섯째, 교육행정과 일반행정간의 네트워크 구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스포츠시설, 복지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의 운영을 위해 많은 예산 투자를 하고 있으나 지역 교육청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체제가 구축되지 못함과 동시에 전문성 부족으로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개발 보급이 미흡함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간의 공동협력 사업으로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통한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2) 평생학습도시 추진현황

우리나라는 ‘평생학습종합진흥계획’에 의거하여 2001년부터 2005년 현재 전국 19개 기초자치단체를 평생학습도시로 선정하여 지원해 오고 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필요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인식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선정 신청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정지역의 수도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평생학습도시의 선정현황은 <표Ⅱ-2>와 같다.

<표Ⅱ-2> 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신청 및 선정 결과

구 분	지 역	비고
2001	대전 유성구, 경기도 광명시, 전북 진안군	3곳
2002	부산 해운대구, 경기도 부천시, 제주도 제주시	3곳
2003	제주도 서귀포시, 전남 순천시, 경북 안동시, 인천 연수구, 경남거창군	5곳
2004	전북 전주시, 충남 금산군, 경기도 이천시, 전남 목포시, 충북 청주시, 경북 칠곡군, 서울 관악구, 경남 창원시	8곳
2005	서울 양천구·성북구, 대구 동·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남구, 경기 수원·구리시, 충북 단양군 및 제천시, 충남 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남 남해군 및 김해시	14곳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지역은 첫 해 2억원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받으며, 이듬해부터 경쟁을 통해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특별지원을 받고 있다. 우수 프로그램 지원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지역에만 이루어지며, 지역별 평균 약 5천만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김남선, 2004 : 13)

그동안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통하여 일부 지자체에서는 모범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04년도 평생학습대상을 수상한 순천시는 시청조직에 평생학습지원과를 설치하고, 시 예산의 5%를 교육에 투자하여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있으며, 부천시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여 평생교육전문가와 시청 공무원이 공동·협력하여 지역사회공동체 중심의 평생교육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금산군은 평생학습을 시정의 주요테마로 채택하여 시정 제반 영역을 평생학습을 통하여 활성화시키고 있다.

3) 평생학습도시 추진현황 비교

전국 19개 평생학습도시 현황을 토대로 하여 운영주체, 조직, 정보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개발 운영, 예산을 중심으로 각 도시별 현황을 비교해 보면 <표Ⅱ-3>과 같다. 도시별 현황 비교자료는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운영주체별로 보면, 주로 ‘지자체 주도형’이 6개 도시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지자체 주도+교육청 협조형’이 5개 도시로 가장 많다.

조직을 살펴보면, 평생학습센터(원)을 설치한 도시가 광명, 부천, 해운대구, 제주시, 순천시, 안동시, 연수구, 전주시, 서귀포시, 금산군, 관악구 등 11개 도시이며, 지자체내에 평생학습지원팀, 평생학습기획단, 평생학습전담부서 등 전담조직을 둔 도시가 8개 도시이며, 평생교육사를 배치하고 있는 도시는 19개 도시 중 12개 도시이다.

정보인프라구축의 경우는 광명, 부천, 해운대구, 제주시, 순천시, 연수구, 전주시, 금산군 8개 도시에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개발·운영의 경우는 학습도시마다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학습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II-3> 평생학습도시 현황 비교

(단위 : 천원)

도시	운영주체	조직 (평생교육사)	정보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습도시 조성예산
광명시	광명시 평생학습원 성공회대 위탁관리형	평생학습원13명(2명) 시청교육지원팀 3명	평생학습종합 정보시스템(학 습원홈페이지) /노인정교육센 터	다양한시민교육/ 소외계층교육/자 원활동가양성/지 역통화활성화 등	1,044,014
유성구	평생교육 추진기획단 구청주도+교육청방임	자치행정담당1명	ICT활용튜터링 시스템	17개분야 304프로그램	655,771
진안군	평생학습고을추진위 원회 교육청주도+군청방임	총무담당1명	없음	군청 및 교육청 9개 강좌	(자료없음)
부천시	평생학습협의회 및 평생학습센터운영위 원회 시청주도+교육청협조	평생학습센터4명(3명)	평생학습도시 종합정보망구 축(평생교육센 터 홈페이지)	소외계층/지역학 /대상별, 영역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40,950
제주시	평생학습지원협의회 시청주도형	평생학습센터3명(2명)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운영	외국인과 문화나누기 5개과정	(자료없음)
해운대 구	평생학습도시자문위 원회 구청주도+교육청협조 형	평생학습센터3명(2명)	협정체결에 의한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	환경생태/문화예 술/지역학 프로그램 운영	155,000
거창군	평생학습협의회 군청주도형+대학위탁 형	평생교육담당자3명(1 명)/평생교육원을 거창대학에 위탁	없음	거창대 평생교육원 위탁/오수프로그 램개발지원/국악 아카데미 등	223,630
서귀포 시	학습도시프로젝트팀/ 학습도시추진위원회/ 평생교육기관협의회 구성 시청주도형	평생학습센터 시청평생학습전담부 서8명	평생교육정보 DB/강사은행 제 운영	시민대학운영/외 국어시민강좌/칠 보공예전문인양성	393,756
순천시	평생학습문화지원센 터 시청주도형	평생학습센터7명(3명) 담당공무원67명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운영	10대중점과제선정 /북스타트운동,도 서관문화,시민맞 춤식교육/환경생 태교육/여성능력 개발	400,000
안동시	평생학습추진위원회 시청주도형	평생학습센터 교육지원담당2명(1명)	없음	시민교양강좌	644,360

연수구	평생학습협의회 시청주도+지역평생교육기관협조형	평생학습센터5명(3명)	평생교육기관, 단체네트워크 회의	구민생활교양강좌/ 생활체육교실/ 저소득방과후교실/ 여성창업/국제 교류활성화 및 선진공무원 육성 등	353,454
관악구	평생학습센터운영위원회 및 실무자협의회/평생학습센터/시청주도+교육청과 대학협조형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지원팀6명(2명)	평생학습종합 정보시스템 '까치넷'	주부생활과학교실/ 평생학습센터 자체 프로그램 66개 강좌	47,000
금산군	문화공보관광과/군청주도형	시청평생학습팀2명 다락원(평생학습센터) 14명	다락원 홈페이지	20개분야 299개프로그램	74,534
목포시	평생학습실무추진협의회/평생학습담당부서 설치/시청주도형+교육청협조형	교육지원계3명 목포시립도서관 평생교육센터지정운영	없음	인구정주기반 조성/ 환경,생태학습/전문인력양성/시민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자료없음)
이천시	평생학습도시운영위원회 시청주도형	시청내 평생학습과 신설9명(1명)	없음	주민자치센터중심 문화여가/건강체육/교양교육/정보화 프로그램	3,377,334
전주시	평생교육기관협의회 시청주도형+교육청협력형	평생학습센터 시청 대학평생교육팀3명(2명)	한국교육개발 원과 협정에 의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전주시평생학습체 협/여성직업교육	1,088,849
청주시	평생학습운영위원회 시청주도형+교육청협력형	채용예정	없음	여성사회교육/정보 화교육/고용촉 진훈련/주민자치 센터 등	(자료없음)
칠곡군	평생학습추진위원회 시청주도형+지역평생 교육기관협조형	종합복지관 여성과 담당5명(2명)	한국교육개발 원과 협정에 의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학점은행과정 미군부대와 함께하는 캠프	400,000
창원시	평생학습기획단 시청주도형+지역평생 교육기관 협조형	평생학습기획단 4명	없음	3개대학교155개/ 사회교육센터795 개/주민자치센터 122개/시자체50 개/시설관리공단 20개/복지관등 사회단체200여개	(자료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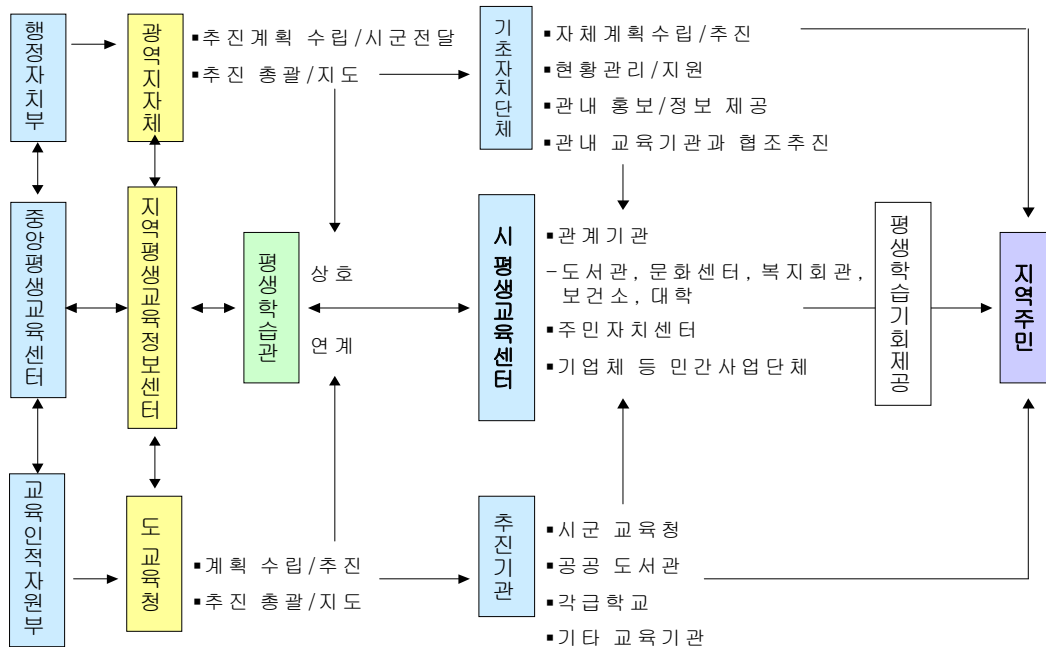
4) 지방자치단체와 평생학습도시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색사업개발에 부심하고 있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애용하였던 주제들로는 ‘정보’, ‘문화’, ‘환경’, ‘교육’, ‘생명’, ‘경제’ 등 다양하지만, 최근에는 ‘학습’으로 모아지고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평생학습도시를 표방하는 것도 특색있는 지방자치단체를 건설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광명시가 1999년 3월 9일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함으로써 평생학습 공동체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창원시, 군포시, 김해시, 진해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조례 제정을 통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평생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가장 지역적인 평생학습이 가장 세계적인 평생학습이며, 평생학습세계의 건설은 평생학습마을 및 도시 건설로 출발한다는 점에서 세계화와 지방화가 공존하는 현 단계에서 평생학습사회 및 평생학습세계 건설의 초석을 지방자치단체가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학습도시를 컨셉으로 잡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신원득 외, 2000 ; 신경희, 2001 ; 양병찬 외 2001).

20세기 새마을 운동은 21세기 학습마을 운동으로 계승발전한다. 특색있는 지방자치단체 건설, 지역을 살리는 지름길은 평생학습마을 조성에 있다. 지역사회 재생 및 부활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평생학습마을 조성운동에 주목한다. 지역과 교육적 만남은 평생학습마을 조성으로 이루어진다. 지방자치단체가 살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끌어 올리고 투자를 유치하는 지름길은 평생학습을 통한 우수한 인적자원의 개발에 있기 때문이다(이희수, 2002 : 17-18).

하나의 도시를 평생교육체제로 변모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지원 시스템의 구조도 포괄적으로 요구되는데, 평생학습에 관련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 면에서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일반행정, 종합행정, 복지행정, 주민자치 서비스의 일환으로 평생학습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축이라면, 주로 교육행정라인 면에서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청, 평생교육시설 및 단체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축이 형성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평생교육 전담·지원 추진 서비스 제공 면에서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평생교육센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이 하나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도시가 앞에 제시한 추진 단계를 거치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평생 학습추진체제간의 연계·협력에 대한 영역이다.



[그림 II-1] 지역 평생교육연계체제 모형

이와 같은 연계 체제 속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한데,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차원에서는 해당 지역에 적합한 일정한 모델을 기초자치단체에 제시하면서 각 도시가 본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모델 사업을 지원하면서 제시하였던 매뉴얼을 살펴보면 다음 <표 II-4>와 같다. 여기서는 「평생학습도시사업」 추진을 위해서 평생학습이 새로운 정책 과제가 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가 하는 것에 대한 행정 관계자들 사이의 공통 이해가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통 이해의 장을 설치하는 것과 구체적인 정책의 이미지를 구상하는 것, 도달 목표를 명시하는 것 등을 통하여 행정 내부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조직 준비가 가능한 단계로서 한편에서 직접 사업을 전개하고 도민 전체의 참여를 통한 「평생학습추진」에의 진흥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시·군·구 단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성과를 목표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도 단위에서의 모델도시에 대한 지도·조언의 역할이 요구되는데, 도교육청으로서는 각 시·군·구에 대해서 현황 조사에 기초하여 실천 가능한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연구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 조언한다.

- ① 평생교육추진 조직의 구조
- ② 평생교육 사업의 체계화의 방식
- ③ 학습자에게 정보 제공의 방식
- ④ 라이프사이클에 대응한 학습프로그램
- ⑤ 교강사, 자원봉사자 등 평생교육 지도자의 활용
- ⑥ 교육시설 활용 및 재구조화

한편, 도 차원에서 학습도시를 지정하고 나면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3년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도시에 제시하게 되는데, 각 연도마다 과제 설정에 있어서는 도 평생교육협의회의 동향에 합치하며, 다음과 같이 각 년도별의 중점 과제를 정하여 거기에 대응한 시·군·구를 선정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반드시 하나의 도시가 3개년의 연속 실시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생학습도시조성 사업이 1년 2년 사이에 결과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수 차 년도에 걸친 중점 과제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 때 각 연도마다 나름대로의 중점 과제를 제시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 1차년도 : 평생교육추진조직의 확립

지역에 따른 평생교육추진체제의 존재 방식을 실증적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 2차년도 : 라이프사이클에 대응한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지역 특성에 따라 평생교육추진조직·사업의 체계화, 학습정보제공 방식에 관한 실증적 개발

○ 3차년도 : 평생학습프로그램의 실용화

선도적 사업의 실증적 연구,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도자·시설의 존재 방식의 연구를 통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실용화

5) 평생학습도시 정책추진 과제

평생교육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 까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학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체제를 갖추어 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시민 중 누군가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하며, 기관 담당자들도 이러한 과정에서 계속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평생학습도시 관계자들이 해야 할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최돈민(2004 : 15-18)은 평생학습도시로의 발전을 위해서 향후 추진되어야 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홍보 및 인식도 제고가 요청된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교육자치단체 관계자에게도 생소한 것이므로 일차적으로는 동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인식도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 역사가 있는 광명에서조차 인식도가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단체장의 의지 확인 및 유지이다. 평생학습마을조성 사업의 성패는 일차적으로 단체장의 정치적 의지와 교육자치단체의 전문성과 협조에 달려 있다. 평생학습마을 조성 사업 지방자치단체 선정시 단체장의 의지와 동기를 확인하고 그 의지가 시들지 않도록 격려,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프로그램 수를 늘리기보다는 평생학습도시 시스템 및 플랫폼 구축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평생학습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평생학습도시 조성 설계도 위에서 평생학습마을 조성 건설기반을 조성하기보다는 2억 원을 주로 기존의 프로그램에 투입하여 프로그램 수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평생학습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립 및 확정 위에 기본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연계 협조체제의 구축이다. 평생학습마을 조성 사업의 성패는 일차적으로는 교육자

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 이차적으로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평생교육시설 및 단체들간의 네트워킹에 달려 있으므로 네트워킹 구축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평생학습관의 전문역량 확보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도 감독의 철저가 요구된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행정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일종의 추수 지도가 필요한 사업이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하는 교육사업인 만큼 교육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울러 중앙평생교육센터를 평생학습마을 조성 사업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비 배분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이 전문성과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정한 책임과 역할이 주어져야 할 것이며, 이들 기구의 역량이 현 단계에서는 미약하므로 별도의 지원단을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교육인적자원부도 지정과 함께 동사업이 성공하도록 끊임없이 지도감독 서비스를 철저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평생학습도시사업의 1차 년도는 평생학습에 대한 동기유발 및 인식 확산의 단계인데도 대부분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충에 관심을 쏟는 관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진입하였을 때 이 지방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라는 인상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되는 평생학습마을이라는 것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부각시켜 주민들에게 각인 시킬 필요가 있다.

일곱째, 평생교육사 등의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 평생교육사가 배치된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으므로 평생교육사를 배치하고, 교육청과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중앙평생교육센터의 전문적 도움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이 사업은 일회 지원으로 끝나기보다는 독일과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3년 정도의 사업으로 100% 지원, 70% 지원, 50% 지원 등으로 자생적 능력 확보에 따라 재정지원을 줄여가도록 하는 것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첫 해 사업 평가 결과 실패 가능성이 높거나 의지가 별반 보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하도록 한다.

아홉째, 기초자치단체도 큰 조직이므로 가급적 마을 단위, 동 단위로 나누어서 평생학습

마을 조성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열번째, 자체평가 + 외부평가 체계의 구축이다. 일본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보면 사업추진 목표에 근거하여 자체 시책평가 리스트와 시민만족도 평가기준 및 도구를 상비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우리도 자체 평가 리스트와 외부 평가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가급적 학습도시의 이상형 지표와 기준을 개발하여 그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도달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 개발이 요구된다.

끝으로, 추수지도가 요구된다. 이 사업의 성패는 철저한 Follow-up study와 Monitoring을 필요로 하므로 계속 추수지도 연구가 필요하다. 벌써부터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뒤쳐지고 있는 도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의 Follow-up study와 Monitoring을 실시하여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희수(2002)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 고려해야 할 실천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주민의 평생교육이 새로운 정책 과제가 됨에 따라 행정 관계자들 간의 공통적 이해가 요구된다.

둘째, 지역만들기 사업과 지역교육사업을 연결시켜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제를 정비하는 것이다.

셋째,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위한 지도자를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

넷째, 지역고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다섯째, 거점 시설을 선정하여 자원 활용을 극대화 한다.

여섯째, 지역학교를 평생학습의 장으로 적극 활용한다.

일곱째, 지역공공시설을 최대한 활용한다.

여덟째, 지역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진흥 기금을 조성한다.

아홉째, 지역현안 문제와 관련하여 여성회의를 구성한다.

열번째, 현재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센터와의 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

열한번째,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학습욕구를 환기시킬 수 있는 프로모션 전략이 요

청된다.

열두번째, 자발적인 학습동아리를 지원한다.

열세번째, 지역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3. 국내외 평생학습도시 사례비교

1) 외국평생학습도시 사례

(1) 영국

영국에서 평생학습도시 운동이 시작된 것은 에딘버러(Edinburgh) 등이 1980년대에 OECD의 '교육도시(Educating Cities)' 프로젝트에 참가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격화 된 것은 괴텐베르크에서 개최된 OECD회의 이후라고 할 수 있다. 현재는 리버풀(Liverpool), 글라스고우(Glasgow), 노위치(Norwich), 셰필드(Sheffield), 버밍햄(Birmingham) 등 20여개의 도시(city)와 마을(town)이 학습도시를 선언하였다. 그리고 잉글랜드 지역에서만 100곳 이상에서 학습 파트너십(Learning Partnerships, 이하LPs)이 결성되어 평생학습도시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영국의 평생학습도시는 평생학습을 통해 60년대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과정에서 쇠락한 도시를 사회, 경제적으로 회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인 경우가 많다(<http://www.lifelonglearning.co.uk/learningcities/> 참조).

평생학습도시들은 성공적 실천들을 공유하기 위해 1996년에 학습공동체 네트워크(Learning Communities Network, 이하 LCN)를 조직하였고, 2000년에는 '회생을 위한 학습 파트너십'을 주제로 LCN회의를 개최하였다. 영국의 '학습도시 프로젝트'가 일궈낸 이러한 성과는 학습도시 프로젝트를 유럽 차원으로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였다.

LCN은 LPs와 협력하면서 활동한다. LPs는 1999년에 창립되었는데 이는 폭넓은 영역의 교육훈련기관들(학교, 계속교육 대학, 현장기반 학습, 성인과 공동체 학습)간의 협력문화를 촉진하고, 16세 이상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과 연관된 많은 지역 조직들의 파트너십

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LPs는 자발적 협력조직으로 지역의 다양한 교육훈련기관들과 여타 지방정부, 청소년상담기관, 노조, 고용주, 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정부는 지역차원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하는데, 2003년 이후 그 책임이 교육기술부(DfES)에서 '학습과 기술위원회(LSC)'로 이전되었다, 2003~2004년 회계연도에는 9백 8십만 파운드(한화 196억원 정도)가 지원되었다(Learning and Skill Council, 2004 : 4).

영국의 평생학습도시 만들기는 지역재생(또는 지역발전)이라는 지역사회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트너십과 참여에 기반을 둔 평생학습의 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함으로써 이루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이해를 전제로 영국 평생학습도시의 구체적 사례(Yarnit, 2000 : 37-40)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Norwich

영국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 중의 하나인 노위치(Norwich) 학습도시 파트너십은 1995년에 형성되었으며, 학습도시네트워크(LCN)의 창립멤버 가운데 하나이다. 이는 당시 지역의 큰 기업들이 연이어 공장폐쇄와 규모축소를 하면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시의회의 경제발전분과에서 제안하였다. 초기에 학습도시네트워크에 참여한 파트너들은 시의회, 대학, 계속교육 대학, 성인교육기관, 훈련과 기업위원회(Training and Enterprise Council)였다(Learning City Network, 1998). 평생학습도시의 개념은 시의회, 교육훈련기관들, 기업가들, 자원봉사기관과 지역단체들 간의 협력적 접근을 고무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노위치 학습도시네트워크는 주로 '학습가게(Learning Shop)'와 학습축제를 통해 평생학습문화를 촉진하는데 성공하였다. 특히 학습가게는 매우 성공적이어서 영국 전역의 모델이 되었다. 학습가게의 설립으로 3년간 5만 건의 학습 희망자 방문이 있었고, 그 가운데 3분의 2가 학습에 참여하였다. 이는 전체 인구가 12만여명임을 고려하면 대단한 성과이다. 직원들은 잠재적 학습자들과의 접촉을 넓히기 위해 길거리, 특히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시장에 자리를 만들고 상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잠재적인 학습자들에 관한 기초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았는데, 이는 학습가게의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뿐만 아니라, 지역내 다른 교육기관들에게 제공되어 그들이 잠재적 학습자들의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하는 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기존의 공급자위주의 접근에서 수요자위주의 접근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매년 여름 학습축제(Learning Festival)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학습축제는 무엇보다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대중행사였다. 즉, 대중의 학습에 대한 태도와 문화를 전환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4회째 학습축제의 경우 43개의 조직이 참여했는데, 지역내 66곳에서 150가지의 행사를 펼쳤다. 그 결과 파트너십이 강화되고, 평생학습을 촉진하는데 성공을 거두었다.

노위치 학습도시네트워크의 성공은 크게 두 가지 측면, 즉 목적달성을 향한 진전 정도와 파트너십 자체의 효용성과 효율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교육기회로부터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직접 다가가는 접근을 강화하였다는 점, 그리고 학습도시네트워크의 핵심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체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시의회가 파트너십을 조정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한 데 기인하였다.

② Birmingham

영국 버밍햄은 학습도시 전략을 통해 지역의 부흥을 경험한 도시 중의 하나이다. 1990년대 중반 당시 교육감을 맡고 있던 브릭하우스(Brighouse)는 새로운 정보기술시대를 맞아 높은 수준으로 교육된 시민들을 형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깨달았으나, 학교교육을 교육의 전부로 생각하는데 익숙한 사람들(고령층과 청년층 포함)을 대상으로 학습을 평생에 걸친 습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Brighouse, 1996). 따라서 그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도시 전체의 학습네트워크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이를 위해서 학습도시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집중하는 전략을 세웠다. 그 결과 LEA(지역교육청)⁶⁾와 함께 훈련과 기업협의회(Training and Enterprise Council, 현재의 LSC로 바뀜), 교육기업 파트너십(Education Business Partnership), 상공회의소, 기업가조직 그리고 여타 사업조직들이 매력적인 교육, 훈련, 기회들을 제공함으로써

6) 영국의 교육자치제도는 행정자치제도와 완전통합형으로 운영되므로 지역교육청(LEA)은 지방자치체의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습도시 네트워크나 파트너십에 있어서 LEA는 지방자치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재생을 위해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2) 독일 : Jena

독일은 전통적으로 교육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에 속해 있어 학습도시 만들기는 그 지역의 인적자원개발과 사회적 자본의 통합을 통한 지역경제회복 차원에서 시도되었다. 1980년대 이후 사양 산업 재구조화에 따른 실업극복, 고용창출, 지역경제 체질 개선, 통일에 따른 계획경제에서 자유시장경제로의 전환 추진을 위한 구동독지역의 재개발, EU의 지역개발촉진 지원, 경제의 세계화라는 시점에서 국가 단위의 인적자원개발은 지역단위의 인적자원개발과 맞물려야 한다는 시각에서 지역단위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관심 고조 등을 배경으로 한다. 즉, 1980년대 이후 독일에서는 많은 인구의 고용이 가능했던 산업들이 사양산업으로 분류되는 등 산업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지역의 사양산업에서 수용 불가능한 인력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었다. 특히, 산업의 구조변화는 특정 지역주민들의 일자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경제의 체질개선을 통한 고용창출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다음으로 독일 통일로 계획경제에서 자유시장경제로 전환된 후 과거 동독의 각 지역들은 나름대로의 생존을 위해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서 학습도시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독일에서의 학습도시 만들기는 지역경제발전과 지역고용촉진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도 적지 않다.

이러한 이해를 전제로 독일 평생학습도시의 구체적 사례(OECD, 1999)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일의 학습도시 사례로는 통일 이후 학습도시 건설을 통해 경제개발을 성공적으로 거둔 이전 동독 지역인 Jena⁷⁾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Jena는 전 동독의 나무 Thuringia주 Saddle 벨리에 위치한 인구 10만 여명이 거주하는 첨단 공업도시로서 114km²의 소규모 지역으로, 1995년에 1km² 당 885명의 인구밀도를 보였다. 이러한 평범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Jena는 하이테크산업, 고등교육 시설, 공공 R&D가 위치해 있는 Thuringia지역의 가장 중요한 도시이다. 통일 후 동독의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음

7) Jena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표적인 학습도시이다. 산업경제를 지식경제로, 사회주의 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도 적지 않다.

에도 불구하고 Jena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이것은 Jena가 다른 이전 동독 도시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경제적 문제들을 잘 극복하여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증진시켰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지난 9년 동안 Jena에 약 200여개의 신규 기업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Jena의 경제성장은 외적 투자에 의해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이러한 투자는 하이테크 산업과 조직학습, 그리고 학습도시의 건설에 대한 Jena 주민의 열망이 가져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Jena의 변화는 지역정부에 의한 정책적 학습 전략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Jena는 Thuringia의 R&D 와 서비스의 중요한 도시가 되었다. Thuringia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Jena는 조직학습을 선도해 가고 있었다. 조직학습의 척도로서 Jena의 특허비용은 독일 전체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1991년 이후, 산업구조의 재구조화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갖고 있는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지역회사들도 빠르게 새로운 시스템들에 맞추어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경쟁력을 갖게 되었고, 국제 시장으로 그 시장을 넓혀갔다. 기업들은 또한 자신들의 생산품과 행정 인프라스트럭처를 시외로 재배치시키고, 새로운 생산 시설을 설립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게 되었다. 기업과 관련된 하위 기업, 또 그 기업이 관련된 하위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생기게 되었고, 새로운 신지식, 서로 다른 생산라인, 국제 시장개척 등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지배적이었던 산업구조에서 서비스 산업구조로의 변화, 낮은 생산성으로부터 높은 생산성으로의 변화, 대기업 위주의 통합조직에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조직으로의 변화, 중소기업의 전문화 등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 수준에서의 상호작용 학습, 개인학습과의 연결 및 협동적 교육활동을 산업재구조화의 중심에 둔 정책적 지원, 조직 내에서의 상호작용 학습을 증진시키려는 산업체 서비스의 제공 장려 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3) 일본 : 가케가와

일본에서는 1979년 가케가와 시가 세계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였으며, 이에 중앙정부가 평생학습도시 시범시를 지정하여 조성사업을 벌인지 30여 년만에 140여 개의 도시가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였다. 일본에서의 평생학습도시는 교육구조와 산업구조를 재편하

는 가운데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살리기 전략에 평생학습 개념을 접목시키면서 도출되었다. 일본에서의 평생학습도시는 지역만들기와 인간 만들기를 통한 지역재생을 목표로 하며, 지역만들기는 인간형성과 생활향상에 필요한 통합적인 시스템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의 평생학습도시 전략은 OECD에 비해 문화적 요소가 강하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사회경제 회생, 문화창조, 교육 회생을 위한 통합적인 도시 경영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이해를 전제로 일본 평생학습도시의 구체적 사례(이희수, 2002 : 36-39)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케가와 시는 세계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한 도시이다. 가케가와 시는 일본 중앙시즈오카현의 서부에 위치하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 싸여 있는 분지형 도시이다. 면적은 185m², 총인구는 77,459명(22,188세대), 주요산업은 농업분야인데, 차, 딸기, 메론, 장미, 우유 등으로 농업총생산액이 123억 5천 만엔이고, 공업은 다이야, 시세이도, NEC전기 등 연간제조 출하액이 4,712억 9천만엔, 상업부문은 연간판매액이 1,815억 9천만엔이다. 가케가와 시는 신무라준이치 시장이 1977년 취임과 함께 평생교육도시를 제창하면서 '지역학'(수평적 통합)과 '생애학'(수직적 통합)의 확립을 목표로 평생학습운동을 추진하였다. 이 평생학습도시는 사회의 모든 부문에 평생학습의 개념을 투입하여 실천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신무라 시장은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을 시정의 기본전략으로 삼아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여 모든 도시의 학습 공원화에 앞장섰다. 그는 시청 조직 속에 평생학습부를 신설하여 시장 비서가 직접 평생학습진흥 시책을 추진하여 다른 도시와 달리 행정과 재정적 후원 속에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시장은 가케가와시의 특수성과 문화와 산업정책을 평생학습의 패러다임 속에서 해결하려는 선견성과 통합성을 보였다. 가케가와 시에서 평생학습운동의 기본적인 과제는 지역적 특성을 극복하는데 있었다. 바람직한 인간 형성을 위한 인간 만들기와 문화·교양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가케가와 시는 평생학습의 다양한 개념 차원에서 그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개혁으로서의 평생학습으로 학력사회를 시정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계속해서 학습하였는가 평가한다. 둘째, 즐거운 평생학습으로 자유·여가시간을 활용하고 자기충실을 꾀한다. 셋째, 공부를 하도록하는 평생학습으로

기술혁신·고도정보화·국제화를 추구한다. 넷째, 고령화에 대응하는 평생학습으로 잠만자는 노인, 치매 노인이 되지 않도록 한다. 다섯째, 도시 만들기로서의 평생학습으로 이농현상을 막고 일본에서 가장 살기 좋고 자랑거리 많은 도시 만들기를 지향한다.

가케가와 시는 평생학습 시책의 전개를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1984년 평생학습사업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임의단체 성격의 한계로 인하여 이를 1995년 재단법인화 하였다. 평생학습도시 선언 이후에 다양한 영역에서 시의 발전상을 살펴 볼 수 있는데, 우선 신간센 역사유치, 인터체인지 설립으로 공업단지가 조성되고 재정이 증가하면서 인구가 증가되었고, 시민들의 자부심 증가로 엄청나게 많은 경제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시민의식이 크게 향상되었고, 고령자들이 노후 생활에 많은 활력과 생활 패턴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여성으로 구성된 모의시의회로써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하나인 여성회의를 통하여 가정주부들을 사회인으로 끌어들었다.

(4) 외국사례 시사점

첫째, 영국은 평생학습도시에 대하여 종합적 접근을 하고 있다. 영국의 평생학습도시는 지역개발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문제를 조망하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독일의 지역개발 및 평생학습체제를 위한 정책수립은 철저히 지역의 행위주체와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기본방향만을 제시하고 지역 스스로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평생학습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지역문제해결의 열쇠는 지역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되고, 지역의 활동주체들이 합의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셋째, 일본은 학습도시만들기를 통해 지방정부와 주민이 하나가 되어 적극적으로 지역발전에 힘쓸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다. 산촌지역인 가케가와시는 산업의 육성과 지역개발계획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역의 특색 있는 도시만들기에 평생학습 운동을 도입한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도록 의식과 관심을 변화시킴으로써 한사람 한사람이 모두 지역의 인적자원으로서 적극적인 주체가 되어 지역 경제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Ⅱ-4> 외국 평생학습도시의 특징비교

국 가	주요 특징
영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역 발전이 핵심 - 40여개 도시와 타운에서 학습도시, 학습타운 선언 - 개인과 고용주들의 학습참여 지원/ 동기유발
덴마크와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지역 건설을 통해 기업 혁신 -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업체가 주도되어 학습운동 - 경제적 소득 창출, 지역공동체 형성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직업교육, 직업계속교육 강화 - 지역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통합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의 추진 - 학습도시는 지역경제발전과 지역고용촉진의 핵심열쇠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학습을 촉진하여 지역공동체 형성 - 평생학습도시의 나라: 지역재생, 평생학습축제 - 평생교육관련 공적 시스템의 완비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2005년도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설명회, 회의자료, 2005.4.28, p.35.

2) 국내평생학습도시 사례

한국의 평생학습도시 사업추진 현황 및 성과를 보기 위하여 각 차년도의 평생학습도시 중 1차 선정 평생학습도시(2001)로 광명시, 2차 선정 평생학습도시(2002)로 부천시, 3차 평생학습도시(2003)로 안동시, 4차 평생학습도시(2004)로 금산군을 선정하여 사업내용 중심별로 평생학습도시 사업 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광명시

광명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1999년 평생학습도시를 선포하였다. 광명시는 2001년에 시작된 제1차 평생학습도시 건설 5개년 계획의 정책목표를 '살고 싶은 도시 광명을 만들기 위한 정주민의 양성'에 맞추고,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999년에 설립된 평생학습센터를 거점으로 지역내의 다양한 평생학습 기관들을 네트워킹하고, 5대 중점 프로젝트

트를 설정하여 평생학습도시 실현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였다.

2002년 3월, 독립된 건물을 마련하여 평생학습센터를 광명시 평생학습원으로 전환하고 본격적으로 평생학습도시 건설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으며, 평생학습원 운영을 성공대학교에 위탁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광명시, 2005 : 35).

광명시의 평생학습도시 추진은 정주 인구수의 부족 및 정주민 의식 미흡, 생활기반 취약, 낮은 재정자립도,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기관 수의 부족, 그리고 산업기반이 미흡하다는 현재적 과제 분석에서 출발하였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평생교육의 새로운 요청, 지방자치 시대에서 특색있는 지방자치단체 건설,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공동체 조성,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자원의 활용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평생학습도시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의지가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

주요비전과 목적으로는 평생학습도시건설을 위한 시민 주인의식, 시민과 함께 하고 시민의 학습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더불어 사는 학습공동체 환경 조성을 통한 광명시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설정하고 있다. 추진목표로는 지역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 지역사회 평생교육 지원시스템 기반 구축, 지역사회 평생학습 네트워크 조성, 지역사회 평생학습 문화 조성 등에 두었다.

추진전략으로는 평생교육 지역화 전략, 지역사회 네트워크 전략, 평생학습 생활화 전략, 사회적 통합 증진 전략, 학습자 중심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추진체제로는 광명시의 지원아래 광명시 평생학습원이 주도하여 운영하고 있다.

추진성과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지역사회 평생학습 자원개발과 활용의 활성화, 지역사회 평생학습 네트워크 조성, 지역사회 평생교육 관계자의 전문성 함양, 지역사회 평생교육 추진체제의 정비 등을 보고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광명시 평생교육현황조사, 성인 비문해 조사 연구, 국내외 평생학습도시 연구, 평생학습 강사은행제, 경기도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지역 평생교육 실무자 워크숍, 전문강사 및 담당교사 연수, 주민자치센터위원 및 담당자 연수, 평생교육사 실습생 교육,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 활성화, 지역사회학교 평생교육 활성화,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한글문해교육 봉사자 및 강사교육, 정보문해교육, 학습동아리 활동 사례집 발간, 성인학습상담 자원봉사자 교육, 학습시설 대관사업, 소식지 '배움이 좋아요'발간, 평생학습도시 정보망

구축, 평생학습 수첩 제작, 평생학습축제 개최, 교육통화, 1인 1동아리 갖기운동 등이 있었다.

향후 주요 사업내용으로서 평생학습의 생활화를 위한 프로젝트, 권역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와 특성화, 소외계층 프로그램 체계화, 국내외 평생학습 네트워크의 기반조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이희수, 2002 : 62-64)

(2) 부천시

지역사회활동이 활발한 부천시에서 평생학습도시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00년 푸른부천만들기 21추진협의회 교육·문화분과위원회 의제로 평생학습지원센터가 채택되면서부터이다. 지방의제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평생학습지원센터는 시민공청회를 거쳐 설치에 합의를 하였고, 그 이듬해인 2003년에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다(양병찬, 2004 : 60).

부천시는 지역의 평생교육 활동을 담당하던 전문가를 채용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평생학습센터에 담당공무원을 배치하여 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하였다. 부천시는 지역내의 다양한 평생교육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과의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작은 지역단위의 마을 공동체 형성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부천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 간의 협력으로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천시의 평생학습도시 추진배경으로는 교통의 요충지, 9천여 개의 경쟁력있는 기업의 지역경제에 동맥 역할, 문화산업기반 형성, 교육기관 수 부족, 산업기반 미흡, 평생교육의 중심역할 기관 부재로 인한 현재적 과제 분석과 이와 함께 시민들의 평생학습 요구증대로 인하여 시작되었다.

주요비전과 목적으로는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설정하고 있다. 추진목표로는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사회, 시민이 만드는 문화가 있는 부천의 실현, 자립 경제기반을 갖춘 부천, 학습공동체의 실현, 세계화와 지방화가 함께 공존하는 학습도시 등에 두었다.

추진체제로는 부천시 평생학습조례 제정,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평생학습센터운영위원회 구성,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설립, 평생학습전담인력 배치, 평생학습도시 건설 5개년 중장기 계획수립, 부천시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국외평생학습도시연구 및 외국방문, 평생학습협의회 및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추진전략으로는 평생학습 기회확대, 평생학습 기반강화, 소외계층 평생학습강화, 문화시민육성, 학습동아리 활성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대상별·영역별 평생학습 프로그램개발 지원(평생학습 프로그램/소외계층 평생교육진흥/지역특화사업),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현상 공모 지원, 대상별·영역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준비사업, 사이버 평생학습 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의 변화모습으로는 부천시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 세부 계획 수립, 지역사회 평생학습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사이버 평생학습도시의 건설(교육 포털사이트 구축), 생활권역별 평생학습기반강화 및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통한 평생학습 진흥과 활성화 등을 보고 있다.

향후 주요사업 내용으로서 부천시 평생학습도시 추진체계 확립, 지역사회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사이버 학습도시 건설, 평생학습 진흥 및 활성화,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과 확대를 위한 홍보사업 전개 등을 제시하고 있다(변종임, 2005 : 45-47).

(3) 거창군

거창군은 평생교육원을 거창대학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어서 거창대학을 중심으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거창군은 11개 면의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 기회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거창군에는 평생교육사 1명과 공무원 3명을 배치하여 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 주도하에 일부 기능을 대학에 위탁하여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거창군의 평생학습도시 추진배경으로는 학습에 대한 군민의 요구 증대, 평생교육서비스

의 체계적이고 공급에 대한 요구 증대에서 출발하였다.

주요비전과 목적으로는 군민 모두가 배울 수 있는 학습권리 보장, 주민 자치의 평생학습 도시 조성, 21세기 경쟁력있는 선진 자치단체 육성을 통한 거창군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설정하고 있다.

추진목표로는 군민 모두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 학습자 개인의 성장과 개발을 촉진하는 기회제공, 군민의 의식 개혁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학습기회 제공을 통한 생산적 복지 구현 등에 두었다.

추진체제로는 거창군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거창군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추진전략으로는 파트너십에 의한 범시민적 추진, 창조로 생산성 도모, 통합형 개선체제, 특화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평생교육원 거창대학 위탁 운영,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 문화센터 국악아카데미 운영, 찾아가는 먼민 건강순회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 평생학습 실무자 해외연수, 거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지원, 학교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 평생학습자원봉사단 활동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의 변화 모습으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민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군민 모두에게 배움의 기회 동등하게 제공, 급변하는 시대에 군민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하여 문해인구 최소화 등을 보고하고 있다.

향후 주요사업 내용으로 거창군 평생학습센터 활성화, 지역사회 평생학습네트워크구축,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확대를 위한 홍보 및 추진,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지원, 평생학습 시스템 활성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변종임, 2005 : 48-50)

(4) 금산군

금산군은 초기에 다락원이라는 평생학습시설을 설치하여 학습도시 사업추진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민·관·산·학 연계를 통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6개 기관간 협약을 체결하였다. 프로그램 운영예산을 20억 이상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습동아리 지원을

하고 있다. 금산군은 지자체 주도하에 민·관·산·학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금산군의 평생학습도시 추진배경으로는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교육문제 대두와 이에 대한 지역적 해결 요구, 주5일제 근무제에 따른 평생학습 요구 급증, 종합적인 평생교육 발전 정책 추진 필요 등을 들 수 있다.

주요비전으로는 학습의 고향 학습 땅 금산 만들기를 통한 금산군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설정하고 있다.

추진목표로는 지역간·계층간 자유로운 평생학습 접근 환경 구축, 군민의 평생학습 장 이용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전 공공시설의 평생학습센터화, 지역재생을 위한 평생학습 추진 등에 두었다.

추진체제로는 금산군 평생학습센터(다락원) 개관, 문화공보관광과 평생학습담당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추진전략으로는 전국 유일의 종합학습센터 확충, 전국 최다의 평생교육사 인력 육성,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민자확보, 전국 최초 공무원 2품 인증제 실시, 20개 분야 299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26개 민간산학 협약, 평생학습 실무자 간담회 2회, 20개 분야 299개 프로그램, 2004년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춘계연차대회, 38개 동아리 지원 등을 등이 있었다.

향후 사업내용으로는 평생학습과 사회복지 직무 연찬, 실무자 간담회 2회, 22개 분야 167개 프로그램 운영, 45개 동아리 지원, 2005년에는 금산다락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2006년에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연계화 작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변종임, 2005 : 52-53)

(5) 국내사례 시사점

①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의 부족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과 교육장, 기타 행정기관 관계자들간의 공감대 형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지역발전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산업개발 등과 같이 하드한 측면을 중심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은 교육과 같은 소프트한 방법을 통한 지역발전에 대한 확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평생학습도시가 지역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정도는 그간 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의 기제로 활용한 개발기법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즉, “장성아카데미”와 같이 일찍부터 공무원과 주민의 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역발전 기제로 활용한 자치단체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시설건설을 통해 지역발전을 추진한 자치단체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시 공감대 형성 및 주민의 수용정도에 확연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② 평생학습도시로 가기 위한 선행경험 부족

최근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인식증대로 상당수의 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평생학습도시라는 것은 도시주민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가 정비되어 모든 학습활동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이나 학습지원시스템 등의 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도시를 의미하기 때문에, 학습시설 및 학습시스템 측면에서 선행경험의 축적이 필요하다.

그러나 평생학습도시의 선행조건으로 대규모 학습시설의 신축 등과 같이 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선행경험과 계획이 부족한 상태에서 평생학습도시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평생학습도시가 지역활성화를 위해 가장 이상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어 모든 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③ 평생학습도시내 평생교육기관간 유기적 연계협력 취약

지역사회 내에서 평생교육기관 간의 네트워킹은 평생교육 현장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기관 간 유기적 연계·협력을 통해서 개별 기관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실무자들 간의 교류를 통해서 함께 교육받고 학습하며 그리고 정보의 교환을 통

해서 기관이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터전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내 평생교육기관간의 연계·협력이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 평생교육 기관이 영세하고, 유사·중복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즉, 지역의 사회복지관, 도서관, 문화회관, 주민자치센터의 교육프로그램들간의 차별성이 거의 없다.

각 기관들이 단순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지역민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실습실이나 체험활동 장소 등이 없거나 부족하고, 가능한 시설이 산재한 경우에도 유관기관 간의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행정조직 문제

④ 평생교육기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부족

평생학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으로 기존의 문화시설, 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의 평생학습의 전문가(평생교육사)의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평생교육 업무는 주요 업무가 아닌 보조 업무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전문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평생교육기관 운영자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기관 특성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나 다양한 교육방법의 선택 등에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면단위 지역의 경우 효과적 평생학습의 추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민과 학교 간의 공동체적 관점에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등의 제반 문제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거나 현실적으로 학교는 학교대로 학교교육 위주의 운영과 지역민은 학교 밖에서 곁돌고 있는 의사소통의 부재가 현실이다.

⑤ 평생학습도시 지정이후의 관리 부실

평생학습도시 지정이후 체계적 관리의 미흡으로 인해 지정 전과 같이 활발한 평생학습이 전개되지 않은 자치단체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초기 자치단체의 주도로 평생학습도시로의 지정은 가능하겠지만, 평생학습의 이념이 지역사회에 실현되어, 주민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통한 지역활성화는 장기간의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빠른시간 내에 지역사회발전을 기대하는 지역사회주민이나 자치단체로서는 매력적이지 못한 사업으로 비쳐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기 위해 추진해 왔던 의도적인 노력들에 비해, 지정 이후의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관리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4. 충청남도 평생학습도시 사례분석

1) 금산군 평생학습도시

(1) 평생교육 요구분석

○ 평생학습센터로서 다락원의 역할 강화요구

- 현재 금산군에는 평생교육체제 마련의 거점기관이 없음 → 지역내 각 평생교육기관간의 연계·협력 및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각 기관에 평생교육 관련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할 평생학습센터로서 다락원의 역할이 강조됨

○ 기관·단체간 연계·협력 강화

- 기관간 연계·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담당자들의 인식 부족 및 협력의 방법과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 → 행정과 민간의 기관·단체간 연계·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공유와 협력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계·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다락원 시설의 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기관 간 중복투자의 문제가 발생 → 다락원의 시설공유를 위한 체계를 갖추으로써 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간 연계·협력을 통해 중복투자를 줄이는 것이 가능

- 평생학습도시 추진 중점사업에 대한 담당자들 간의 인식 차이 → 평생학습관련 기관·단체간의 정기적인 협의회 운영을 통해 인식의 공유가 가능

-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생활권 내에 평생교육 관련 시설 확보
 - 지역별로 평생교육기관 확보수준의 격차가 심하여 대부분의 면지역은 학습활동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소외지역임 → 마을시설로 마을회관, 경로당과 찜질방, 지역학교 등의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
 - 주민들의 평생교육 관련시설 접근이 어려움 → 교통이 열악한 지역을 위한 학습셔틀 버스의 운행과 함께 기관들의 출장강의제 실시 등의 방안 마련

- 평생교육전문인력 배치
 - 평생교육 담당교육원, 학교 평생교육 담당 교사들 스스로 전문인력 배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군민들 역시 전문인력 배치에 찬성하고 있음 →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평생교육기관·단체와 학교 등에 평생교육 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함.

-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문화프로그램에 치중되어 있음 → 주민을 위하여 문화예술 분야 뿐만 아니라 시민의식교육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평생학습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요구
 - 주5일제를 고려한 프로그램 부족 → 주5일제로 인한 청소년 프로그램과 가족단위 체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건강, 여가관련 프로그램으로 한정된 노인교육 프로그램 →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노인 재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농민을 위한 프로그램 부족 → 영농기술교육, 농촌지도자 교육 등의 프로그램개발과 야간 또는 농한기를 이용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
 - 높은 문맹률로 일반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떨어짐 → 문해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함

- 프로그램 운영시간대 조정 및 원활한 전문강사 섭외 등 프로그램 운영상 전반적인 문제 해결
 - 오전과 낮 시간대 프로그램 운영의 중복편성 → 시간대의 중복편성을 피하고, 평일 저

너지간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직장인의 참여를 이끔

- 전문강사 섭외의 어려움 → 지역인재를 활용해 원활한 강사공급이 가능하도록 양성 프로그램 개발

- 폭넓은 교육프로그램 홍보 범위 및 다양한 홍보방법

- 읍단위 지역위주의 홍보 → 생활권내에 거점기관을 마련하여 면 단위 지역의 홍보를 활성화시켜야 함

- 한정된 홍보방법 →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학교실무자, 학생, 학부모를 학교에 월별로 공문발송, 지역주민을 위한 마을이장님을 통한 홍보, 지역신문 활용, 학습지도작성 등 정보를 접할 다양한 기회제공. 또한, 학습한 주민의 자원봉사를 통해 리단위까지 찾아가는 홍보

- 학습성과 교류의 장으로써 축제 활성화

- 축제에 학습의 관점이 부족 → 지역축제와 평생학습 축제를 연계하여 학습성과의 교류와 학습에 대한 격려로 학습축진이 가능

- 형식적으로 지역축제가 운영되고 있음 → 학습의 관점에서 지역내 축제의 연계를 통해 축제의 활성화와 지역내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학습공동체를 형성해야 함.

(2) 목표

- 금산이 추구하는 생명학습도시의 목표

- 금산의 역사, 문화, 자연, 산업유산 등 지역특화요소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개인의 개성과 잠재력을 고양하며 지역공동사회의 주인공으로서 지역사회발전에 참여하고 개인과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구현

- 금산 생명학습도시가 지향하는 목표

- 생명력 있는 장수·건강도시 : 장애인과 노약자, 일반사람들이 차별없이 더불어 살 수 있

는 공동체의식과 철학의 공유, 고령화에 따른 금산의 복지시스템 구현 및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적극 유도하며 평생학습시스템을 통한 일상속의 학습화를 유도

- 인간과 자연이 조화된 생태환경도시 : 풍부한 녹지, 깨끗한 물, 맑은 공기를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환경 보존

- 전통과 미래가 있는 교육문화도시 : 마을이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프랑스 교육개혁의 슬로건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농촌과 같이 일터와 삶터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지역에서 평생학습은 이와 긴밀한 연계를 가지면서 교육체제가 구축되어 매일 매일 생활 속에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과 교육문화를 형성

(3) 추진방향

- Refresh : 산재된 다양한 정책의 조정, 전문인력 배치

- 군청, 군의회, 교육청,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들이 효과적으로 평생학습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과 행정체계, 네트워크 정비

- 평생교육의 전문화를 위하여 평생교육사 배치, 평생교육사 연수 확대,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등의 과제를 추진

- Remodeling : 추진체제 정비, 네트워크 체제 구축

- 평생교육에 대한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생활권 중심의 학습망을 구성하여 지역교육 시스템 구축

- 학교와의 네트워크 형성 및 공동 사업 추진

- 금산군의 평생학습 정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담당하는 행정부서(군청 문화공보관광과 평생학습담당)와 전문성을 가지고 효율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으로 효율적인 평생학습도시 정책사업 진행

- 평생학습의 정보화를 통한 에듀토피아를 실현하기 위하여 원스톱 평생학습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평생학습상담센터(Learning shop) 설치·운영, 평생교육 프로그램폴 구축, 전문인력 정보은행제 운영, 평생교육시설·설비의 복

합화 및 인텔리전트화 등의 과제를 추진

- Reimage : 건강, 인삼, 전통/미래, 지역특성화 - 생명학습도시
 - 지역주민의 건강을 소중히 생각하는 삶의 고장
 - 인삼과 전통이 살아있는 미래를 창조하는 생명의 고장
 - 따라서 지역고유의 전통을 근간으로 주민의 삶 속에 학습이 녹아들어 새로움을 창조하는 생명학습도시 금산 이미지 특성화

(4) 추진체계

- 지원조직
 - 군청내 평생학습도시 지원조직 : 문화공보관광과 평생학습담당
 - 평생학습도시 관련 사업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복지여성과, 기획정보실, 문화공보관광과,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 다락원
 - 생명의 집, 문화의 집, 노인의 집, 건강의 집(보건소) 등 다목적 복합회관 성격
 - 군청내 평생학습담당과 유기적 연계구조가 취약

(5) 정책과제

- 평생학습도시사업 추진체계 정비
 - 평생학습 통합조례 정비
 - 다락원 체제 정비
 - 평생학습재원 확보
 - 평생학습 거점시설 확보 및 관련시설의 확충·정비

- 평생교육 전문성 강화
-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평생학습도시 정보검색 시스템 구축, 사이버 학습도시 구축, 홈페이지 구축, 강사인력뱅크
 - 홍보시스템 구축 : 평생학습정보/소식지 발간, 홍보매체 설치/활용, 평생학습 수첩제/배부
 -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 : 관민산학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와 학교의 네트워크,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정비 : 교육시설의 공동활용, 교육설비의 공동활용
- 평생학습 기회확충
 - 생애단계별 프로그램 : 영유아프로그램, 아동프로그램, 청소년프로그램, 여성프로그램, 노인프로그램, 장애인프로그램
 - 평생교육프로그램 활성화 : 군민대학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학습공동체 육성, 군민교육, 정책교육, 학습자원봉사자 육성,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활성화
-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평생교육
 - 학교와 연계한 방과후 교육
 - 학교평생교육 프로그램운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교육참여 확대
 -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 평생학습축제 활성화
- 지역교육문화육성 및 특성화 사업
 - 금산학 개발 : 지역고유의 프로그램 개발
 - 지역교육문화 육성 : 지역특성을 고려한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금산의 지역특성을 이용한 평생학습

- 지역특성을 연계한 축제의 활성화 : 축제의 브랜드화/지역특화
- 건강도시 실천을 위한 건강종합센터 운영 :인삼헬스케어특구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건강종합센터 운영

○ 평가시스템 구축

- 평생학습 제공자 및 학습자 요구조사
- 학습결과에 대한 인증 및 활용
-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 평생학습도시 정책평가

2) 부여군 평생학습도시

(1) 평생교육요구분석

-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총괄기구로써 평생학습센터가 필요함
 - 평생학습도시로서 부여군을 재구조화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총괄기구로써 중심센터를 마련해야 함
 - 중심센터로서 평생학습센터는 지역내 각종자원을 철저히 조사하는 등 지역조사부터 우선해야 할 것이며, 평생학습 컨설팅, 강사은행제 운영, 실무자 연수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 권역별 평생교육 거점 시설을 확보함으로써 평생학습 참여경험의 지역별 차이를 극복해야 함.
 - 평생교육시설로서의 주민자치센터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의 거점 기관으로 활용해함
 - 경로당, 마을회관, 지역학교 등 마을에 있는 풍부한 물적 자원을 지역민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활용하여 출장강의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군에 도서관, 박물관, 신동엽 문학관 등 다양한 공간을 체험학습공간으로 활용해야 함

것임.

- 생활권내 평생교육시설 확보가 어려울 경우, 학습셔틀버스 등을 운영하여 접근성이 떨어짐으로 인해 생기는 평생학습 참여기회 제한을 줄여야 할 것임.

-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

-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간 연계·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그 내용과 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할 것임.

- 네트워크 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천노력들이 이어져야 할 것임.

- 지역의 학습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평생교육과 마인드를 갖춘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배치가 필요함

- 학습공동체 형성을 위해 촉진자, 조정자의 역할을 해 줄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배치가 요구됨

-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과 함께 지역에서 주민운동을 꾸준히 해온 지역운동가를 활용해야 할 것임.

- 군민의 요구와 참여를 바탕으로 한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해야 함.

- 군민의 학습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및 사업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행정과 군민의 의사소통의 장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임.

(2) 목표

- 지역의 모든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하여 경제발전 도모

- 부여군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상품화하고,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해야 함. 또한 풍부한 관광자원을 잘 활용하여 역사/문화/관광도시로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록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

- 부여군의 지리적, 역사적 특성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적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자기 고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고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함으로써 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시킴

- 계층/지역간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적 통합제고

- 지역사회의 제반 갈등요소와 문제를 이해함으로써 세대간/계층간/빈부간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의 화합과 균형발전을 추구함.

(3) 추진과제

- 역사·문화·관광·웰빙도시 건설

- 첨단 바이오산업의 지식환경도시로 전환

- 소외계층·지역지원사업 활성화

- 지역인적자원 발굴·육성

- 정주의식 강화

(4) 기반과제

- 평생학습도시 체제 구축

- 부여군 평생학습조례를 제정

- 부여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점 기관(부여군 평생학습센터)과 유사한 주변지역을 하나의 학습권역으로 묶어 권역별 거점시설을 설치 및 확보

-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확보 및 전문성 강화 방안 모색

- 평생교육프로그램 활성화
 -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정보를 종합제공하는 종합홍보사업 추진
 -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풀 및 강사 풀 구축
 - 평생교육관련 정보종합 제공
 -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 평생학습 문화정착
 - 학습동아리 발굴 및 육성, 범군민 평생교육운동 전개
 - 다양한 지역축제와 연계한 평생학습축제 개최, 평생학습분위기 확산

(5) 학습도시 추진체제

- 지원조직
 - 부여군청 : 전략 사업단 내 평생교육담당
 - 부여군교육청 : 학무과내 평생교육체육담당
- 평생학습도시 관련 협의회
 - 평생교육협의회 : 정책협의회 및 실수협의회
 - 평생교육기관간 협의회
- 굿뜨레 평생학습원
 - 평생학습실무추진기관
 - 평생학습도시 조성실무와 관련한 각종업무의 중심기능 수행, 평생학습협의회,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지원, 평생학습 거점기관

(6) 정책과제

○ 평생학습도시체제

- 굿뜨레 평생학습원 설치·운영
- 평생학습도시 조례제정
- 평생학습도시 재원 확보
- 평생교육전문인력 확보 및 종사자 전문성 강화
- 마을회관, 노인회관의 교육기능 강화
- 학습자 요구 및 기관의식 교육기능 강화

○ 교육프로그램

- 특화산업육성 :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고품격 관광산업, 농업경쟁력 강화프로그램, 웰빙부여 건설 프로젝트
- 기초역량강화 : 학점은행제를 활용한 군민교육사업, 근로자 및 실업자의 평생직업능력 제고, 주민정보화 교육강화
- 정주의식 강화 : 부여학 개발, 부여사랑운동 전개, 부여군민대학 운영, 귀농·이농인 정착 프로그램
- 격차해소 : 소외지역을 위한 평생학습지원 강화, 학교를 활용한 평생교육프로그램 활성화, 외국인을 위한 한글·문화교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프로그램,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 성인기초교육프로그램 활성화, 행복한 노년을 위한 프로그램

○ 진흥사업

- 종합정보시스템 : 사이버 학습도시 시스템 개발, 종합적 홍보제공, 프로그램 풀 및 강사 은행 구축, 지역자원을 아우르는 평생학습 네트워크 형성
- 평생학습문화정착 : 평생교육 범군민 운동전개, 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 두레교육 체계 구축, 평생교육 자원봉사 활성화, 평생학습축제 개최, 평생학습마을 조성
- 평가 : 평가시스템 구축

제3장 충청남도 평생교육기관 및 추진체제

1. 평생학습전담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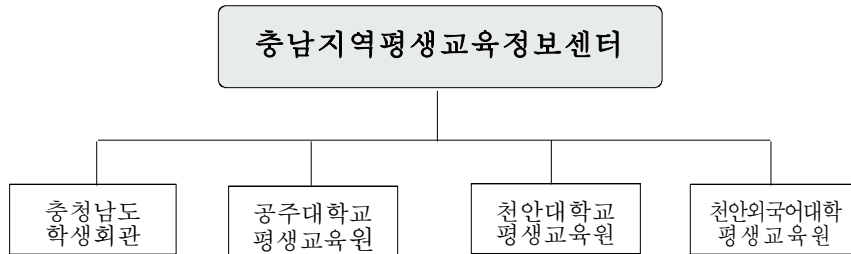
1) 충남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교육법 제14조에 근거를 가지고 설치된 충남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현재 충남학생회관을 비롯한 공주대, 천안대, 천안외대의 4개 기관 컨소시엄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 기관과 국·사립대학이 협력하여 각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공공성, 합리성을 최대한 발휘하고자 하였다. 이 센터의 법적 기능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정보의 수집·제공, 종사자 연수, 평생학습 상담, 기관·단체들 간의 상호 연계체제 구축 등이다.

충남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센터 지정 초창기에 네트워크의 구성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연수 사업과 자료 발간, 평생학습축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타 지역의 모델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조직의 체계성이 미흡하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컨소시엄체제가 가지는 한계로 공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지향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역할분담과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충청남도학생회관은 그 설치 목적에서 “학생·교직원의 교육행사와 문화활동”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평생교육전담조직과 전문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세 대학의 평생교육원들도 역시 본 사업에 전력을 기할 수 있는 조직이 없으며, 전문 인력의

투입도 한계를 가지고 있어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와 종사자 연수 등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현재로서는 단순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만족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IV-1] 충남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네트워크 조직도

2) 평생학습관

평생교육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지정한 평생학습관은 매년 평생교육 기본 계획에 의거하여 교육감이 지정하게 된다. 현재는 충청남도학생회관과 논산평생학습관, 그리고 도서관(17관)을 지역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충남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상호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평생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기능은 평생교육법에 의하면, 시·군 지역단위 평생교육정보센터 기능을 담당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주 기능으로 한다. 충청남도학생회관의 경우 충남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임과 동시에 지역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면서 한 기관이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정보의 수집·제공, 종사자 연수, 평생학습 상담, 기관·단체들 간 상호연계체제구축 등의 충남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 역할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시·군 지역단위평생교육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기존 시설에 평생학습관 기능을 부가하였던 현재의 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19개의 공공도서관에 평생학습관을 지정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고유 기능 간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도서관 전문 인력인 사서와 같은 조직 구성원은 평생교육업무 수행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인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V-1> 충남 지역 평생학습관 현황

지 역 별	학 습 관 명	지 정 기 관
천안시	성환지역평생학습관	성환도서관
	천안지역평생학습관	충남학생회관
공주시	공주지역평생학습관	공주도서관
	유구지역평생학습관	유구도서관
보령시	보령지역평생학습관	보령도서관
	웅천지역평생학습관	웅천도서관
아산시	아산지역평생학습관	아산도서관
서산시	서산지역평생학습관	서부(서산)평생학습관
	해미지역평생학습관	해미도서관
금산군	금산지역평생학습관	금산도서관
연기군	연기지역평생학습관	연기도서관
부여군	부여지역평생학습관	부여도서관
서천군	서천지역평생학습관	서천도서관
청양군	청양지역평생학습관	청양도서관
홍성군	홍성지역평생학습관	홍성도서관
예산군	예산지역평생학습관	예산도서관
태안군	태안지역평생학습관	태안도서관
당진군	당진지역평생학습관	당진도서관
논산시	논산지역평생학습관	남부(논산)평생학습관
계룡시	-	-
16개 시·군	19개 평생학습관	

한편, 기존의 도서관에 평생학습 공간을 복합화 하여 신설한 충청남도논산평생학습관(최근 남부평생학습관으로 개칭됨)은 시설 측면에서는 현대화되었으나 평생교육전담 조직이 구성되지 않았고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전문화에 문제를 보이고 있다. 이어서 개관하게 될 서산의 서부평생학습관도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1차 지도감독기관(교육장)이나 기관장의 역할과 관심이 미흡하고 평생학습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평가에 대한 중압감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질보다 양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며, 기존의 공공도서관 조직과 인력만으로는 평생교육 업무 수행에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2. 평생교육기관

1) 공공도서관

도서관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의 법적 근거는 1994년 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에 나타난 도서관의 정의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위 법의 제2조에서는 도서관을 “도서관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 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0조에서는 공공도서관은 정보와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를 주최하고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장려한다고 정하고 있다(이해준 외, 2003 : 20).

<표 IV-2> 충남 지역 공공도서관 현황

지역별	교육청 소속	지자체 소속	지역별	교육청 소속	지자체 소속
천안시	천안성환도서관 충남학생회관 정보관	천안중앙도서관 천안성거도서관	당진군	당진도서관	당진합덕도서관 송악도서관
공주시	공주도서관 공주유구도서관	공주웅진도서관	금산군	금산도서관	-
			연기군	연기도서관	-
보령시	보령도서관 보령웅천도서관	보령주산도서관	부여군	부여도서관	-
			서천군	서천도서관	서천장항도서관
아산시	아산도서관	아산배방도서관 아산 송곡도서관	청양군	청양도서관	-
서산시	서부 평생학습관 정보관 서산해미도서관	-	홍성군	홍성도서관	홍성광천도서관
			예산군	예산도서관	-
논산시	남부 평생학습관 문헌정보부	논산강경도서관 논산연무도서관	태안군	태안도서관	태안안면도서관
계룡시	-	-	계	19	15

공공도서관은 그 운영 주체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거하여 지역교육장 소속인 도서관으로, 충남 16개 시·군에 총 1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에는 충남학생회관이나 남부·서부 평생학습관의 문헌정보부도 포함된

다. 두 번째로 지자체 소속의 공공도서관으로 충남 16개의 시·군에 총 15개소가 있으며 이 중 7개의 시 지역에 위치한 도서관이 10개소이고, 9개의 군 지역에 위치한 도서관 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2) 주민자치센터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주민의 자치교육과 사회교육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표 IV-3> 전국 주민자치센터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전체대상		자치법규 정비	자치센터 조례	위원회 구성	자치센터 설치
	시·구·군	읍·면·동				
서울	25	522	25	25	521	514
부산	16	221	16	16	221	221
대구	8	143	8	8	130	130
인천	10	137	10	10	137	136
광주	5	87	5	5	87	87
대전	5	79	5	5	79	79
울산	5	58	5	5	58	54
경기	31	506	31	31	394	391
강원	18	193	16	14	61	56
충북	13	152	12	12	88	80
충남	15	209	15	15	63	49
전북	14	248	13	14	141	108
전남	22	298	16	22	101	64
경북	23	337	13	14	30	16
경남	20	314	17	20	115	62
제주	4	43	4	4	34	34
계	234	3,547	211	220	2,260	2,081

자료 : 행정자치부(2003) www.mogaha.go.kr.

이는 기존의 읍·면·동사무소를 기능 전환하면서 만들어진 자치·교육·문화·복지시설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234개의 시·군·구의 3544개 읍·면·동 중에서 자치법규가 정

비된 곳은 211개소, 자치센터 조례가 만들어진 곳은 220개소, 위원회 구성은 2,260개소이고, 주민자치센터는 2,081개소가 설치되었다.

전국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작업은 1단계(94시·구 1,681개동 대상), 2단계(140시·군 1,863개 읍·면·동 대상)로 나누어서 이루어졌는데, 충남은 2단계에 설치 작업이 시작되었다.

충남 지역 주민자치센터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총 209개소의 읍·면·동 중에 2003년 12월 현재까지 49개소의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였다. 아산시가 9개소로 가장 많이 설치하였고, 공주시 8개소, 천안시 7개소를 설치하였다. <표 IV-4>에서 알 수 있듯이 2004년도에 23개소의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2005년도 이후에 137개소를 설치하여 총 160개소의 주민자치센터를 더 설치할 예정이다.

<표 IV-4> 충남 지역 주민자치센터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시군별	읍·면·동	설치 실적	설 치 계 획			
			2004년도			2005이후
			소 계	2003이월	2004신규	
천안시	26	7	19	-	-	19
공주시	17	8	9	-	1	8
보령시	16	2	14	-	-	14
아산시	17	9	8	1	1	6
서산시	15	2	13	1	2	10
논산시	15	6	9	-	1	8
계룡시	3	-	3	-	-	3
금산군	10	2	8	1	-	7
연기군	8	2	6	1	1	4
부여군	16	1	15	-	5	10
서천군	13	1	12	-	-	12
청양군	10	2	8	-	-	8
홍성군	11	3	8	1	-	7
예산군	12	1	11	1	3	7
태안군	8	1	7	2	1	4
당진군	12	2	10	-	-	10
계	209	49	160	8	15	137

자료 : 충남도청 자치행정과(2004), 「주민자치센터 설치 현황」.

3)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대학이 지역사회봉사 기능을 내세우면서 추진하기 시작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사업은 1982년 12월 『사회교육법』 제정 이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초창기에는 일부 대학의 선도적 노력으로 출발하였으나, 대학이 가지고 있는 교육 인적·물적 자원을 지역사회에 개방해야 한다는 대학 안팎의 요구에 따라 많은 대학이 참여하게 되었다. 『평생교육법』이 2000년 3월부터 시행되면서 대학의 총·학장 책임 아래 각 대학의 특성에 맞추어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충남지역에는 총 18개의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 운영되고 있다. 대학이 많은 천안시는 총 8개의 대학에서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 평생교육에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역적 특색을 보이고 있다. 금산군·부여군·서천군·태안군 등은 대학이 없어 타 지역 대학의 출장 강의(outreach)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에 봉사할 필요가 있다.

<표 IV-5>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현황

지역별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지역별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천안시	천안외국어대 평생교육원	금산군	-
	천안대 평생교육원	연기군	홍익대 평생교육원 고려대 평생교육원
	남서울산업대 사회개발교육원	부여군	-
	나사렛대 평생교육원		
	상명대 평생교육원		
	단국대 평생교육원		
공주시	선문대 평생교육원	서천군	-
	호서대 평생교육원		
공주시	공주대 평생교육원	청양군	-
보령시	대천대 평생교육원	홍성군	-
아산시	순천향대 평생교육원	예산군	공주대 산업대학 평생교육원
	선문대 평생교육원		
서산시	한서대 평생교육원	태안군	-
논산시	건양대 평생교육원	당진군	신성대 평생교육원
계룡시	-	계	18

4) 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법률 제 4718호)에 의거하여 지역 문화의 창달과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문화원은 전국 총 230여 개 지방자치단체 중 거의 92%에 달하는 215개소에 설립되어 있다. 사단법인체로서 서울에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있어서 상호교류와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이해준 외, 2003 : 22).

문화원에서는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하여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지역문화행사개최, 문화에 관한 자료 수집·보존 및 보급,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충남지역에는 총 17개의 문화원이 있다.

<표 IV-6> 문화원 현황

지역별	문화원	지역별	문화원
천안시	천안문화원 성한문화원	연기군	조치원 문화원
공주시	공주문화원	부여군	부여문화원
보령시	대천문화원	서천군	서천문화원
아산시	온양문화원	청양군	청양문화원
서산시	서산문화원	홍성군	홍성문화원
논산시	논산문화원 한우리논산독서문화원	예산군	예산문화원
계룡시	-	태안군	태안문화원
금산군	금산문화원	당진군	당진문화원
계		17	

5) 문화의 집, 청소년 문화의 집

문화관광부의 특색 사업인 문화의 집은 주민들이 생활권에서 문화생활과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표 IV-7> 문화의 집, 청소년 문화의 집 현황

지역별	문화의 집	지역별	문화의 집
천안시	천안 문화의 집 천안 청소년 문화의 집	연기군	연기 청소년 문화의 집
공주시	-	부여군	부여 청소년 문화의 집
보령시	주산 문화의 집	서천군	-
아산시	아산 문화의 집	청양군	-
서산시	서산 문화의 집	홍성군	-
논산시	논산 청소년 문화의 집	예산군	-
계룡시	-	태안군	-
금산군	금산 문화의 집	당진군	당진 문화의 집
계		10	

자료 : 문화관광부(2002). <http://www.mct.go.kr>.

1996년 10월 25일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에 첫 번째 문화의 집이 들어선 것을 비롯해 김해, 정읍, 영주 등에 차례로 문화의 집이 설립되었다. 문화의 집에서는 문화강좌, 공연, 전시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최소한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고 있다(정갑영, 1996 : 1). 이러한 문화의 집의 기능은 문화적 욕구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평생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다. 충남에는 아산 문화의 집을 시작으로 총 10개소의 문화의 집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6)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은 원래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이다.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 등을 제공하고 각종 지역사회문제를 예방·치료하는 매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사회복지관이 사회교육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지역에서는 중요한 평생교육기관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평생교육업무를 수행하면서 평생교육지역네트워크에 포함된 기관은 전체 사회복지관 중에서 그리 많은 편이 아닌

데, 이는 많은 복지관이 스스로 사회교육업무를 하고 있다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평생교육지역네트워크에 포함된 기관을 중심으로 현황을 정리해보면, 충남지역에는 종합복지회관, 가정복지회관 등의 형태로 총 23개소의 사회복지관이 있다.

<표 IV-8> 사회복지관 현황

지역별	사회복지관	지역별	사회복지관
천안시	성정종합사회복지관 아우내은빛복지관 쌍용사회복지관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	연기군	경로여성복지회관
공주시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 공주기독교사회복지관 금강사회복지관	부여군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
보령시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 명천사회복지관	서천군	장항여성복지회관
아산시	아산시사회복지관 온주종합복지관 탕정사회복지관	청양군	-
서산시	서산시종합사회복지관 석림사회복지관	홍성군	홍성군사회복지관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논산시	논산시종합사회복지관	예산군	장애인복지회관 예산군가정복지회관
계룡시	-	태안군	-
금산군	금산군가정복지회관	당진군	-
계		23	

7)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는 원래 농촌지도소였던 명칭을 바꾼 농업인 교육기관으로 농촌진흥을 목적으로 시·군단위에서는 현장예로기술 및 당면 실천과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권정숙, 2002 : 47). 충남지역에는 농업기술센터가 계룡시를 제외한 15개 시·군 지역에 한 개씩 위치하여 총 15개의 센터가 있다.

<표 IV-9> 농업기술센터 현황

지역별	농업기술센터	지역별	농업기술센터
천안시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연기군	연기군 농업기술센터
공주시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부여군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보령시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서천군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아산시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청양군	청양군 농업기술센터
서산시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홍성군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논산시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예산군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계룡시	-	태안군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금산군	금산군 농업기술센터	당진군	당진군 농업기술센터
계		15	

8)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알선을 통해 여성 취업난 해소에 기여하고,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경제적지위의 향상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적인 여성 직업훈련기관이다(권정숙, 2002 : 39). 노동부의 일하는 여성의 집 사업으로 출발한 이 기관은 여성부가 생기면서 관할부처와 명칭이 함께 변경되었다. 국가와 범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여성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충남지역에는 천안여성인력개발센터, 논산여성인력개발센터,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 세 곳이 있다.

9) 청소년 상담실

충남지역의 청소년 상담실은 계룡시를 제외한 15개의 시·군에 한 개씩 총 15개소의 청소년 상담실이 있다.

<표 IV-10> 청소년 상담실 현황

지역별	청소년 상담실	지역별	청소년 상담실
천안시	충남청소년종합상담실	연기군	연기군 청소년 상담실
공주시	공주시 청소년 상담실	부여군	부여군 청소년 상담실
보령시	보령시 청소년 상담실	서천군	서천군 청소년 상담실
아산시	아산시 청소년 상담실	청양군	청양군 청소년 상담실
서산시	서산시 청소년 상담실	홍성군	홍성군 청소년 상담실
논산시	논산시 청소년 상담실	예산군	예산군 청소년 상담실
계룡시	-	태안군	태안군 청소년 상담실
금산군	금산군 청소년 상담실	당진군	당진군 청소년 상담실
계		17	

10) 청소년육성단체

충남에는 여섯 종류의 청소년육성단체가 학교에 설치되어 있다. 종류별로 설치된 학교 현황을 보면, 보이с카우트 329개교, 걸스카우트 298개교, 청소년연맹 212개교, 청소년적십자 197개교, 해양소년단 110개교, 우주소년단 87개교가 있다.

<표 IV-11> 충남 청소년육성단체 조직 현황

(단위 : 개교, 명)

구 분	총 계		
	학 교	지 도 자	대 원
보이с카우트	329	580	7,938
걸스카우트	298	371	7,222
청소년연맹	212	303	7,511
청소년적십자	197	279	6,884
해양소년단	110	142	3,216
우주소년단	87	108	2,211

자료 : 충청남도교육청(2003). 「충남교육통계연보」. p. 26.

11) 청소년 수련시설

충남의 청소년 수련시설은 총 28개소로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등이 있다. 생활권 수련시설로는 수련관, 문화의 집이 있고, 자연권 수련시설로 수련원, 야영장이 있다. 천안시가 가장 많은 7개소의 청소년 수련시설을 갖추고 있고, 계룡시나 태안군의 경우는 하나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표 IV-12> 충남 지역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지역별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계
	수련관	문화의 집	수련원	야영장		
천안시	1	1	1	2	2	7
공주시	-	1	-	1	1 (1)	3 (1)
보령시	1	-	-	- (1)	- (1)	1 (2)
아산시	-	-	-	1	1	2
서산시	-	-	- (1)	-	-	- (1)
논산시	1	1	-	-	-	2
계룡시	-	-	-	-	-	-
금산군	- (1)	-	-	- (1)	- (1)	- (3)
연기군	-	1	2	- (1)	-	3 (1)
부여군	1	1	-	-	1 (1)	3 (1)
서천군	- (1)	-	-	-	-	- (1)
청양군	-	-	1	1	-	2
홍성군	1	1	1	-	-	3
예산군	-	-	- (2)	1	-	1 (2)
태안군	-	-	-	-	-	-
당진군	-	- (1)	1	-	-	1 (1)
계	5 (2)	6 (1)	6 (3)	6 (3)	5 (4)	28 (13)

주) () 내 수는 설치 중 시설임. 자료 : 충청남도(2002). 「충남통계연보」. p. 604.

12) 박물관 · 미술관

오늘날 우리나라의 박물관은 전시·연구기능 못지않게 평생교육적 기능과 활동을 점점 중시하고 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만으로는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사회의 요구를 충분히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주 5일제 근무,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신 산업화로 인한 다양한 일자리의 창출 등으로 박물관의 평생교육 수요는 날로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욕구충족을 위해 박물관 사회교육 기능은 사회의 변화에 맞춰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충남에는 16개의 시·군에 총 24개소의 박물관과 미술관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 중 21개소가 박물관이고, 3개소가 미술관이다.

<표 IV-13> 충남 지역 박물관 · 미술관 현황

지역별	지정기관	지역별	지정기관
천안시	천안독립기념관 호서대학교박물관 선문대학교박물관 복권전시관	당진군	-
		금산군	-
공주시	국립공주박물관 공주대학교박물관 공주교육대학교박물관 임림미술관 공주민속극박물관 웅진초등교육박물관	연기군	연기향토사료관
		부여군	국립부여박물관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서천군	-
		청양군	-
아산시	호서대학교박물관 선문대학교박물관 온양민속박물관 당림미술관 이충무공유물전시관	홍성군	-
서산시	-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한국고건축박물관 수덕시근역성보관
논산시	건양대학교박물관 선화기독교미술관	태안군	고남패총박물관
계룡시	-	계	24

자료 : 문화관광부(2003). www.mct.go.kr.

13) 문화 공간

충남 16개 시·군에는 공연시설, 전시실, 지역문화 복지시설, 그리고 문화원, 국악원 등의 문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문화 공간은 영화관이고, 그 다음이 문화원, 일반 공연장 순이다. 지역별로 보면, 천안시(24개소)가 가장 많은 문화 공간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공주시(8개소), 아산시, 부여군(6개소) 순이다.

<표 IV-14> 충남 지역 문화 공간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지역	공연시설			전시실		지역문화복지 시설		기타시설			계
	일반 공연장	소 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화랑	시군민 회관	청 소년 회관	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천안시	2	2	13	1	2	1	-	3	-	-	24
공주시	1	-	2	3	-	-	-	1	1	-	8
보령시	-	-	2	-	-	-	-	1	-	-	3
아산시	1	1	2	1	-	-	-	1	-	-	6
서산시	1	-	2	-	1	-	-	1	-	-	5
논산시	1	-	1	1	-	1	-	1	-	-	5
계룡시	-	-	-	-	-	-	-	-	-	-	-
금산군	1	-	1	-	-	1	-	1	-	-	4
연기군	1	-	-	-	-	1	-	1	-	-	3
부여군	1	-	1	-	-	1	-	1	1	1	6
서천군	1	-	1	-	-	1	-	1	-	1	5
청양군	-	-	-	-	-	-	-	1	-	-	1
홍성군	1	-	2	-	-	-	-	1	-	-	4
예산군	1	-	2	-	-	-	-	1	-	-	4
태안군	1	-	-	-	-	-	-	1	-	-	2
당진군	1	-	1	-	-	1	-	1	-	1	5
계	14	3	30	6	3	7	-	17	2	3	85

자료 : 충청남도(2002). 「충남통계연보」. p. 598.

14) 사회체육시설

최근 주민의 요구가 높아지는 사회체육은 평생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일반 주민의 사회체육 혹은 생활체육은 항상 교육활동이 수반되어야 하며 학습 동아리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충남의 16개 시·군에는 총 26개의 경기장이 있다. 실내체육관이 13개소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이 종합경기장(11개소)이다. 지역별로 천안시가 가장 많은 5개소의 경기장을 보유하고 있고, 시로 승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규모가 작은 계룡시만이 한 개의 경기장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표 IV-15> 충남 지역 경기장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지역별	실내체육관	종합경기장	테니스장	수영장	계
천안시	2	2	1	-	5
공주시	1	1	-	1	3
보령시	1	1	-	-	2
아산시	2	-	-	1	3
서산시	1	1	-	-	2
논산시	-	1	-	-	1
계룡시	-	-	-	-	-
금산군	-	1	-	-	1
연기군	1	-	-	-	1
부여군	1	-	-	-	1
서천군	1	-	-	-	1
청양군	1	1	-	-	2
홍성군	1	1	-	-	2
예산군	-	1	-	-	1
태안군	1	-	-	-	1
당진군	-	1	-	-	1
계	13	11	1	1	27

자료 : 충청남도(2002). 「충남통계연보」. p. 600.

한편 <표 IV-16>에서 볼 수 있듯이, 등록된 체육시설로는 골프장, 승마장, 종합 체육시설이 있는데 이 중 골프장은 천안시(2개소), 아산시(1개소), 금산군(1개소), 연기군(1개소)에 설치되어 있다. 승마장은 아산시와 태안군에 각각 1개소씩 설치되어 있고, 종합 체육시설은 아산시, 서산시, 예산군에 각각 1개소씩 설치되어 있다.

<표 IV-16> 충남 지역 등록체육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지역별	골프장	승마장	종합 체육시설	지역별	골프장	승마장	종합 체육시설
천안시	2	-	-	연기군	1	-	-
공주시	-	-	-	부여군	-	-	-
보령시	-	-	-	서천군	-	-	-
아산시	1	1	1	청양군	-	-	-
서산시	-	-	1	홍성군	-	-	-
논산시	-	-	-	예산군	-	-	1
계룡시	-	-	-	태안군	-	1	-
금산군	1	-	-	당진군	-	-	-
계					5	2	3

자료 : 충청남도(2002). 「충남통계연보」. p. 602.

충남에 신고된 체육시설로는 수영장, 체육도장, 볼링장, 테니스장, 골프 연습장, 체력 단련장, 에어로빅장, 당구장, 썰매장, 무도학원이 있다. 이 중에서 당구장(926개소)이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이 체육도장(335개소), 체력단련장(150개소) 순이다. 지역별로 천안시(471개소)가 가장 많은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이 아산시(211개소), 서산시(119개소), 논산시(109개소) 순이다.

<표 IV-17> 충남지역 신고체육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시군별	신고체육 시설수영장	체육 도장	볼링장	테니스장	골프	체력 단련	에어 로빅	당구장	썰매장	무도 학원	계
천안시	4	95	13	8	13	47	20	256	5	10	471
공주시	4	16	3	1	2	14	6	44	-	3	93
보령시	2	14	-	1	4	5	6	57	-	1	90
아산시	7	38	10	-	6	14	7	121	3	5	211
서산시	2	27	3	-	3	13	3	67	-	1	119
논산시	1	22	6	1	7	11	8	46	1	6	109
계룡시	-	7	-	-	1	3	3	6	-	-	20
금산군	2	10	-	1	1	3	2	28	1	1	49
연기군	1	17	2	-	3	5	5	48	-	3	84
부여군	-	11	1	-	1	4	3	40	1	4	65
서천군	2	13	2	-	1	5	5	25	1	2	56
청양군	1	3	2	-	-	2	1	11	1	-	21
홍성군	1	11	2	2	2	7	6	31	-	-	62
예산군	2	18	1	-	2	8	4	52	1	4	92
태안군	1	13	2	-	3	2	2	20	-	-	43
당진군	1	20	7	3	2	7	8	74	-	-	122
계	31	335	54	17	51	150	89	926	14	40	1,707

자료 : 충청남도(2002). 「충남통계연보」. p. 603.

15) 사설학원

충남지역에는 총 2,460개소의 사설학원이 있다. 인구가 많은 천안시에 가장 많은 729개소의 학원이 있고, 가장 적은 곳은 38개소가 있는 금산군이다.

<표 IV-18> 사설학원 현황

(단위 : 개소)

지역	학원수	지역	학원수
천안시	729	부여군	86
공주시	204	서천군	77
보령시	134	청양군	28
아산시	225	홍성군	85
서산시	219	예산군	117
논산시	193	태안군	71
금산군	38	당진군	134
연기군	120	계	2,460

자료 : 충청남도교육청(2003). 「충남교육통계연보」. p. 456.

3. 평생학습 추진체제 정비

평생학습도시 또는 예비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금산군, 부여군, 서산시 3개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평생학습추진전담팀 구성 및 운영

기초자치단체 평생학습추진전담팀 구성 및 운영에 있어 금산군, 부여군, 서산시 3개 지역 모두 평생학습추진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금산군은 평생학습추진전담팀 구성원으로 30여명, 부여군 4명, 서산시는 5명으로 구성원 수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2) 평생학습도시운영 관련 조례제정 및 정비

평생학습도시운영 관련 조례제정에 있어서 금산군, 부여군, 서산시 3개 지역 모두 평생학습도시운영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다.

3) 평생학습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평생학습도시 추진위원회 구성에 있어 금산군, 부여군, 서산시 3개 지역 모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금산군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부여군과 서산시는 내년부터 제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다.

4) 전임 계약직 평생교육사 임용

전임 계약직 평생교육사 임용에 있어서 금산군은 25명, 부여군은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 서산시는 1명 임용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 평생학습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평생학습도시 또는 예비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금산군, 부여군, 서산시 3개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평생학습 프로그램개발

평생학습 프로그램개발 영역에 있어 금산군은 교양 및 직업교육 위주, 부여군과 서산시는 내년부터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2) 학교시설을 활용한 지역주민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학교시설을 활용한 지역주민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금산군, 부여군, 서산시 3개 지역 모두 운영되고 있지 않다.

3) 지역내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지역내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금산군은 지원해 오고 있고, 부여군과 서산시는 내년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5.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 본 평생학습기관 및 프로그램, 학습동아리 현황을 통해 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학습 추진체제가 열악하다는 점이다. 현재 충청남도는 평생학습도시로 금산군, 부여군이 지정되어 있고, 예비평생학습도시로 서산시가 지정되어 있다. 이 들 지역은 평생학습전담팀, 조례제정, 추진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만, 금산군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담당할 전임계약직 평생교육사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것이다. 평생교육사 임용에 있어서 금산군은 평생교육사 25명, 서산시 1명, 부여군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평생학습도시를 체계적으로 이끌어 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평생교육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둘째,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평생학습 프로그램개발 영역 및 지역내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에 있어 금산군은 교양, 직업교육 실시 및 지원을 하고 있지만, 부여군과 서산시는 내년부터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시설을 활용한 지역주민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은 금산군, 부여군, 서산시 모두 운영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평생학습도시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 된다.

제4장 충청남도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1. 조사개요

조사목적은 충청남도 16개 시군의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실태 분석을 통해 충남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의 시사점 및 향후 추진해야 할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조사대상은 16개 시군별 평생교육시설을 대상으로 154개 기관을 표본추출.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학습인프라 실태조사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설문에 응답한 기관은 88개 기관으로 회수율은 56.4%를 나타내었다.

조사범위는 충남 16개 시군 전역 평생교육시설이며, 조사기간은 2005년 6월 10일부터 6월 25까지 15일간이 소요되었고, 조사방법은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문항수는 총 48문항(기관의 성격 6문항, 기관의 운영현황 8문항,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실태 8문항, 평생교육관련 인적자원 8문항, 교육시설 및 장비 8문항, 운영상 애로사항 8문항, 정책상 요구사항 2문항)이었으며, 설문지 형태는 명목척도와 서열척도를 혼용하였다.

설문조사 및 분석절차는 설문지 배포 및 회수 후, 코딩작업을 실시, SPSS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실태와 요구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IV-19> 표집 규모 및 회수율

항목	표집규모	응답규모	비율(%)
천안시	30	16	53.3
공주시	21	10	47.6
보령시	10	4	40
아산시	18	12	66.6
서산시	9	6	66.6
논산시	17	10	58.8
계룡시	0	0	0
금산군	7	6	85.7
연기군	7	3	42.8
부여군	5	3	60
서천군	4	3	75
청양군	4	3	75
홍성군	9	4	44.4
예산군	5	2	40
태안군	3	3	100
당진군	5	3	60
계	154	88	57.1

소재지에 있어서 표집응답규모로 천안시 16개 기관, 아산시 12개 기관, 공주시, 논산시 각각 10개 기관 순으로 나타났고, 응답비율로는 태안군 100%, 금산군 85.7%, 서천군, 청양군 각각 75%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성격은 학교평생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청소년평생교육기관, 여성평생교육기관, 노인평생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문화시설 중심 평생교육기관, 일반평생교육시설, 연수기관, 공공평생교육시설 등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표집응답규모로는 공공평생교육시설 46개 기관, 학교평생교육시설 15개 기관, 문화원 9개 기관 순으로 나타났고, 응답비율로는 연수기관 100%, 학교평생교육시설 78.9%, 직업훈련기관 71.4% 순으로 나타났다.

<표IV-20> 기관성격

항목	표집규모	응답규모	비율(%)
학교평생교육시설	19	15	78.9
직업훈련기관	7	5	71.4
노인평생교육기관	9	3	33.3
사회복지기관/시설	23	7	30.4
청소년평생교육기관	4	0	0
문화원	17	9	52.9
연수기관	3	3	100
공공평생교육시설	72	46	63.8
계	154	88	57.1

평생교육기관 인프라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도구는 평생교육기관의 성격, 기관의 운영현황,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실태, 평생교육관련 인적자원, 교육시설 및 장비, 운영상 애로사항, 정책상 요구사항 등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IV-21>과 같다.

<표IV-21> 조사도구 : 설문지

조사영역	조사문항	번호	소계	비고
기관의 성격	소재지	1	6	명목
	설립년도	2		
	기관성격	3		
	설립·운영주체	4		
	교육내용	5		
	교육대상	6		
기관의 운영현황	기관의 인력	7	8	명목
	운영재원	8		
	재무 보유액	9		
	월평균 유지비	10		
	월평균 교육인원	11		
	월평균 수강료	12		
	가장 큰 지출항목	13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방법	14	8	명목
	교육프로그램 개발방법	15		
	요구분석 실시여부	16		

운영실태	만족도 조사 실시여부	17		
	강의평가 반영여부	18		
	시장조사 실시여부	19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의견교환 여부	20		
	교육프로그램 개선빈도	21		
	교육방법	22		
평생교육 관련 인적자원	직원채용방법	23	8	명목
	실무자 연수	24		
	강사 선정기준	25		
	강사교육 실시	26		
	강사수급방법	27		
	강사처우(시간당 강사료)	28		
	자원봉사자 활용	29		
	자원봉사자 활용방법	30		
교육시설 및 장비	교육시설 형태	31	8	명목
	강당 유무	32		
	실습실 유무	33		
	자료실 유무	34		
	상담실 유무	35		
	인터넷 전용선 유무	36		
	휴게실 유무	37		
	교육용 기자재	38		
운영상 애로사항	예산·재정	39	8	서열
	시설·장비	40		
	인력관리	41		
	기관홍보	42		
	지역사회내 타기관간 협력 및 연계	43		
	정책 결정자의 이해 및 관심	44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45		
	교육프로그램 개발	46		
정책상 요구사항	지원사항	47	2	명목
	행정주체	48		

2. 조사결과

1) 기관의 일반배경 특성

충남지역 평생교육기관 인프라 실태를 파악하고자 실태조사용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

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7가지 영역으로 분류된 설문지를 토대로 기관 특성별, 운영주체별, 운영재원별에 따라 각 문항별로 교차분석 및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류된 7가지 영역은 기관의 성격, 기관의 운영현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실태, 평생교육관련 인적자원, 교육시설 및 장비, 운영상 애로사항, 정책상 요구사항 등이다.

또한 이상의 영역별 내용 분석을 위한 기관의 배경 특성으로는 기관특성, 운영주체, 운영재원의 3가지 변인을 설정하였다(<표 IV-22>참조)

<표 IV-22> 기관의 일반적인 배경 특성

구분	항목	빈도(기관수)	비율(%)
기관의 성격	학교평생교육시설	15	17.0
	직업훈련기관	5	5.7
	노인평생교육기관	3	3.4
	사회복지기관/시설	7	8.0
	문화원	9	10.2
	연수기관	3	3.4
	공공평생교육시설	46	52.3
	계	88	100.0
설립· 운영주체	정부·지자체설립운영	50	56.8
	정부·지자체설립 및 민간위탁운영	6	6.8
	종교단체 설립운영	1	1.1
	민간비영리단체설립운영	13	14.8
	학교부설기관	16	18.2
	기타	2	2.3
	계	88	100.0
운영재원	보조(국고, 지방자치단체)	67	76.1
	자체기금조성(후원금)	3	3.4
	교육수강료	13	14.8
	기타	5	5.7
	계	86	100.0

2) 기관운영현황

평생교육기관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내용, 교육대상, 기관의 인력(정규직, 비정규직, 자원봉사자), 재무보유, 월 평균 유지비, 월 평균 교육인원, 월 평균 수강료, 지출 항목, 홍보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표 IV-23>을 통해 평생교육기관의 주된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기초·교양교육에 해당하는 경우와 취미·여가교육에 해당하는 경우가 각각 34.1%, 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IV-23> 교육내용 현황

(단위 : 명, %)

구분 \ 항목	직업교육	기초·교양교육	취미·여가교육	외국어교육	건강·스포츠교육	직무연수	기타	전체
<전체>	10(11.4)	30(34.1)	29(33.0)	1(1.1)	9(10.2)	1(1.1)	8(9.1)	88(100)
<기관성격별>								
학교평생교육시설	4(26.7)	6(40)		1(6.7)	1(6.7)		3(20)	15(100)
직업훈련기관	5(100)							5(100)
노인평생교육기관					3(100)			3(100)
사회복지기관		5(71.4)	1(14.3)				1(14.3)	7(100)
문화원		5(62.5)	3(37.5)				1(11.1)	9(100)
연수기관		1(33.3)				1(33.3)	1(33.3)	3(100)
공공평생교육시설	1(2.2)	13(28.3)	25(54.3)		5(10.9)		2(4.3)	46(100)
	$\chi^2=132.210, P<.05$							
<설립·운영주체별>								
정부·지자체설립운영	2(4.0)	16(32)	23(46)		4(8)	1(2)	4(8)	50(100)
정부·지자체설립/민간위탁운영	2(33.3)	2(33.3)	1(16.7)		1(16.7)			6(100)
종교단체설립운영					1(100)			1(100)
민간비영리단체설립운영	2(15.4)	6(46.2)	2(15.4)		2(15.4)		1(7.7)	13(100)
학교부설	4(25)	6(37.5)	1(6.3)	1(6.3)	1(6.3)		3(18.8)	16(100)
기타			2(100)					2(100)
	$\chi^2=37.548, P>.05$							
<운영재원별>								
보조(국고, 지자체)	6(9)	22(32.8)	26(38.8)		7(10.4)	1(1.5)	5(7.5)	67(100)
자체기금조성(후원금)		2(66.7)					1(33.3)	3(100)
교육수강료	4(30.8)	4(30.8)	1(7.7)	1(7.7)	1(7.7)		2(15.4)	13(100)
기타		2(40)	2(40)		1(20)			5(100)
	$\chi^2=20.992, P>.05$							

기관성격별 분석에서는 학교평생교육시설, 사회복지기관, 문화원은 기초·교양교육을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평생교육시설은 취미·여가교육을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다.

운영주체별 분석에서는 정부·지자체 설립운영은 취미·여가교육을 가장 많은 반면, 민간비영리단체 설립운영, 학교부설 평생교육기관은 기초·교양교육이 가장 많았다.

운영재원별 분석에서는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취미·여가교육, 교육수강료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직업교육 및 기초·교양교육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평생교육기관의 주된 교육대상을 분석한 결과는 <표IV-24>와 같다. 전체적으로 주부·여성이 58%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대부분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들이 주부·여성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V-24> 교육대상 현황

(단위 : 명, %)

구분\항목	학생	주부,여성	노인	장애인	직장인	공무원	기타	전체
<전체>	9(10.2)	51(58.0)	7(8.0)	1(1.1)	1(1.1)	1(1.1)	18(20.5)	88(100)
<기관성격별>								
학교평생교육시설	2(13.3)	6(40)			1(6.7)		6(40)	15(100)
직업훈련기관	1(20)	2(40)					2(40)	5(100)
노인평생교육기관			3(100)					3(100)
사회복지기관	2(28.6)		3(42.9)	1(14.3)			1(14.3)	7(100)
문화원	2(22.2)	5(55.6)					2(22.2)	9(100)
연수기관		1(33.3)				1(33.3)	1(33.3)	3(100)
공공평생교육시설	2(4.3)	37(80.4)	1(2.2)				6(13)	46(100)
$\chi^2=115.482, P<.05$								
<설립·운영주체별>								
정부·지자체설립운영	2(4)	38(76)	2(4)			1(2)	7(14)	50(100)
정부·지자체설립/민간위탁운영	3(50)	1(16.7)		1(16.7)			1(16.7)	6(100)
종교단체설립운영			1(100)					1(100)
민간비영리단체설립운영	1(7.7)	5(38.5)	4(30.8)				3(23.1)	13(100)
학교부설	3(18.8)	6(37.5)			1(6.3)		6(37.5)	16(100)
기타		1(50)					1(50)	2(100)
$\chi^2=65.295, P<.05$								
<운영재원별>								
보조(국고, 지자체)	5(7.5)	42(62.7)	6(9)	1(1.5)		1(1.5)	12(17.9)	67(100)
자체기금조성(후원금)	1(33.3)	1(33.3)					1(33.3)	3(100)
교육수강료	2(15.4)	7(53.8)			1(7.7)		3(23.1)	13(100)
기타	1(20)	1(20)	1(20)				2(40)	5(100)
$\chi^2=14.823, P>.05$								

기관성격별 분석에서는 학교평생교육시설, 문화원, 공공평생교육시설은 주부·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노인평생교육, 사회복지기관은 노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운영주체별 분석에서는 정부지자체 설립운영, 민간비영리단체 설립운영, 학교부설 평생교육기관이 주부·여성의 비율이 높았고, 정부·지자체 설립/민간위탁 운영은 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재원별 분석에서는 보조금, 교육수강료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 모두 주부·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인력 항목 중에서 정규직 인력 항목을 묻는 조사 결과는 <표IV-25>와 같다.

<표 IV-25> 기관의 인력(정규직) 현황

(단위 : 명, %)

구분	항목	0~10명 이하	11~20명 이하	21명 이상	전체
<전체>		8(9.1)	56(63.6)	24(27.3)	88(100)
<기관성격별>					
	학교평생교육시설		15(100)		15(100)
	직업훈련기관		2(40)	3(60)	5(100)
	노인평생교육기관	1(33.3)	2(66.7)		3(100)
	사회복지기관		5(71.4)	2(28.6)	7(100)
	문화원	1(11.1)	8(88.9)		9(100)
	연수기관			3(100)	3(100)
	공공평생교육시설	6(13.0)	24(52.2)	16(34.8)	46(100)
		$\chi^2=28.986, P<.05$			
<설립·운영주체별>					
	정부·지자체설립운영	6(12)	24(48)	20(40)	50(100)
	정부·지자체설립/민간위탁운영		4(66.7)	2(33.3)	6(100)
	종교단체설립운영	1(100)			1(100)
	민간비영리단체설립운영	1(7.7)	11(84.6)	1(7.7)	13(100)
	학교부설		16(100)		16(100)
	기타		1(50)	1(50)	2(100)
		$\chi^2=28.508, P<.05$			
<운영재원별>					
	보조(국고, 지자체)	7(10.4)	36(53.7)	24(35.8)	67(100)
	자체기금조성(후원금)		3(100)		3(100)
	교육수강료		13(100)		13(100)
	기타	1(20)	4(80)		5(100)
		$\chi^2=14.335, P<.05$			

전체적으로 볼 때 한 평생교육기관에서 정규직 인력이 11~20명에 해당하는 경우가 63.6%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기관성격별 분석에서는 학교평생교육시설, 노인평생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문화원, 공공평생교육시설의 정규직 인력은 11~20명의 비율이 가장 많았고, 직업훈련기관과 연수기관의 정규직 인력은 21명 이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주체별 분석에서는 모두 전체 분석결과와 같이 11~20명 이하의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재원별 분석에서는 모두 전체 분석결과와 같이 11~20명 이하의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인력 항목 중에서 비정규직 항목을 묻는 조사결과는 <표 IV-26>과 같다.

<표 IV-26> 기관의 인력(비정규직) 현황

(단위 : 명, %)

구분 \ 항목	0~10명 이하	11~20명 이하	21명 이상	전체
<전체>	40(45.5)	41(46.6)	7(8.0)	88(100)
<기관성격별>				
학교평생교육시설	4(26.7)	11(73.3)		15(100)
직업훈련기관		4(80.0)	1(20.0)	5(100)
노인평생교육기관	3(100.0)			3(100)
사회복지기관	2(28.6)	4(57.1)	1(14.3)	7(100)
문화원	6(66.7)	3(33.3)		9(100)
연수기관	1(33.3)	2(66.7)		3(100)
공공평생교육시설	24(52.2)	17(37.0)	5(10.9)	46(100)
$\chi^2=18.008, P>.05$				
<설립·운영주체별>				
정부·지자체설립운영	25(50.0)	21(42.0)	4(8.0)	50(100)
정부·지자체설립/민간위탁운영	3(50.0)	1(16.7)	2(33.3)	6(100)
종교단체설립운영	1(100.0)			1(100)
민간비영리단체설립운영	6(46.2)	6(46.2)	1(7.7)	13(100)
학교부설	4(25.0)	12(75.0)		16(100)
기타	1(50.0)	1(50.0)		2(100)
$\chi^2=13.386, P>.05$				
<운영재원별>				
보조(국고, 지자체)	32(47.8)	28(41.8)	7(10.4)	67(100)
자체기금조성(후원금)	2(66.7)	1(33.3)		3(100)
교육수강료	3(23.1)	10(76.9)		13(100)
기타	3(60.0)	2(40.0)		5(100)
$\chi^2=7.293, P>.05$				

전체적으로 볼 때, 평생교육기관에서 0~10명 이하와 11~20명 이하의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45.5%, 46. %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기관성격별 분석에서는 학교평생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사회복지기관, 연수기관은 비정규직 인력이 11~20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노인평생교육기관, 문화원, 공공평생교육시설은 비정규직 인력이 0~10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운영주체별 분석에서는 학교부설 평생교육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0~10명 이하의 비정규직 인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7> 기관의 인력(자원봉사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항목	0~10명 이하	11~20명 이하	21명 이상	전체
<전체>	57(64.8)	21(23.9)	10(11.4)	88(100)
<기관성격별>				
학교평생교육시설	13(86.7)	2(13.3)		15(100)
직업훈련기관	4(80.0)		1(20.0)	5(100)
노인평생교육기관	2(66.7)		1(33.3)	3(100)
사회복지기관		4(57.1)	3(42.9)	7(100)
문화원	7(77.8)	1(11.1)	1(11.1)	9(100)
연수기관	3(100.0)			3(100)
공공평생교육시설	28(60.9)	14(30.4)	4(8.7)	46(100)
$\chi^2=24.805, P<.05$				
<설립·운영주체별>				
정부·지자체설립운영	31(62.0)	13(26.0)	6(12.0)	50(100)
정부·지자체설립/민간위탁운영	3(50.0)	3(50.0)		6(100)
종교단체설립운영	1(100.0)			1(100)
민간비영리단체설립운영	8(61.5)	1(7.7)	4(30.8)	13(100)
학교부설	13(81.3)	3(18.8)		16(100)
기타	1(50.0)	1(50.0)		2(100)
$\chi^2=12.603, P>.05$				
<운영재원별>				
보조(국고, 지자체)	43(64.2)	15(22.4)	9(13.4)	67(100)
자체기금조성(후원금)	1(33.3)	1(33.3)	1(33.3)	3(100)
교육수강료	10(76.9)	3(23.1)		13(100)
기타	3(60.0)	2(40.0)		5(100)
$\chi^2=5.070, P>.05$				

운영재원별 분석에서는 보조금, 자체기금조성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은 비정규직 인력이 0~10명 이하가 가장 많았고, 교육수강료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은 비정규직이 11~20명 이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인력 항목 중에서 자원봉사자 항목을 묻는 조사결과는 <표IV-27>와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자원봉사자가 0~10명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가 64.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성격별 분석에서는 사회복지기관을 제외하고는 자원봉사자가 0~10명 이하에 해당하는 기관의 비율이 높았다.

<표 IV-28> 재무보유 현황

(단위 : 명, %)

구분 \ 항목	1억원 미만	1억~2억원 미만	2억~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체
<전체>	57(64.8)	13(14.8)	4(4.5)	14(15.9)	88(100)
<기관성격별>					
학교평생교육시설	8(53.3)	4(26.7)	3(20.0)		15(100)
직업훈련기관	2(40.0)	1(20.0)		2(40.0)	5(100)
노인평생교육기관	2(66.7)	1(33.3)			3(100)
사회복지기관	2(28.6)	1(14.3)		4(57.1)	7(100)
문화원	8(88.9)	1(11.1)			9(100)
연수기관				3(100.0)	3(100)
공공평생교육시설	35(76.1)	5(10.9)	1(2.2)	5(10.9)	46(100)
$\chi^2=46.431, P<.05$					
<설립·운영주체별>					
정부·지자체설립운영	36(72.0)	4(8.0)	1(2.0)	9(18.0)	50(100)
정부·지자체설립/민간위탁운영	4(66.7)	1(16.7)		1(16.7)	6(100)
종교단체설립운영		1(100.0)			1(100)
민간비영리단체설립운영	8(61.5)	2(15.4)		3(23.1)	13(100)
학교부설	8(50.0)	5(31.3)	3(18.8)		16(100)
기타	1(50.0)			1(50.0)	2(100)
$\chi^2=24.945, P>.05$					
<운영재원별>					
보조(국고, 지자체)	46(68.7)	7(10.4)	1(1.5)	13(19.4)	67(100)
자체기금조성(후원금)	2(66.7)	1(33.3)			3(100)
교육수강료	7(53.8)	3(23.1)	3(23.1)		13(100)
기타	2(40.0)	2(40.0)		1(20.0)	5(100)
$\chi^2=12.865, P>.05$					

운영주체별 분석에서는 정부지자체 설립운영/민간위탁운영 기관을 제외하고는 0~10명 이하에 해당하는 기관이 가장 많았다. 정부지자체 설립운영/민간위탁운영기관은 0~10명 이하 및 11~20명 이하가 각각 50%를 차지하고 있었다.

운영재원별 분석에서는 자체기금조성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을 제외하고는 0~10명 이하에 해당하는 기관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평생교육기관의 재무보유현황 조사 결과는 <표IV-28>과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1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가 6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기관성격별 분석에서는 학교평생교육시설, 문화원, 공공평생교육시설은 1억원 미만인, 사회복지기관 및 연수기관에서는 3억원 이상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운영주체별 분석에서는 종교단체 설립운영기관을 제외하고는 1억원 미만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운영재원별 분석에서는 보조금, 자체기금조성, 교육수강료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 모두 각각 1억원 미만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평생교육기관의 월 평균 유지비 조사결과는 <표IV-29>와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월 평균 유지비 규모는 500만원 미만이 53.4%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충남지역의 평생교육기관은 규모가 큰 기관보다 작은 기관이 많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기관성격별 분석에서는 공공평생교육시설은 월 평균 유지비가 500만원 미만이 많은 반면, 직업훈련기관과 연수기관은 3500만원 이상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운영주체별 분석에서는 정부지자체 설립운영, 정부지자체 설립/민간위탁운영, 민간비영리단체 설립운영은 월 평균 유지비가 500만원 미만이 많은 반면, 학교부설 평생교육기관은 1500만원~2500만원 미만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재원별 분석에서는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은 월 평균 유지비가 500만원이 가장 많은 반면, 교육수강료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은 월 평균 유지비가 각각 500만원 미만, 1500만원~2500만원 미만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9> 월평균 유지비 현황

(단위 : 명, %)

구분 \ 항목	500만원 미만	500~1500만원 미만	1500~2500만원 미만	2500~3500만원 미만	3500만원 이상	전체
<전체>	47(53.4)	16(18.2)	10(11.4)	4(4.5)	11(12.5)	88(100)
<기관성격별>						
학교평생교육시설	3(20.0)	4(26.7)	5(33.3)	1(6.7)	2(13.3)	15(100)
직업훈련기관	1(20.0)			1(20.0)	3(60.0)	5(100)
노인평생교육기관	2(66.7)	1(33.3)				3(100)
사회복지기관	1(14.3)	2(28.6)	2(28.6)	1(14.3)	1(14.3)	7(100)
문화원	7(77.8)	1(11.1)	1(11.1)			9(100)
연수기관					3(100.0)	3(100)
공공평생교육시설	33(71.7)	8(17.4)	2(4.3)	1(2.2)	2(4.3)	46(100)
$\chi^2=63.185, P<.05$						
<설립·운영주체별>						
정부·지자체설립운영	32(64.0)	7(14.0)	3(6.0)	1(2.0)	7(14.0)	50(100)
정부·지자체설립/민간위탁운영	3(50.0)	1(16.7)	1(16.7)	1(16.7)		6(100)
종교단체설립운영		1(100.0)				1(100)
민간비영리단체설립운영	7(53.8)	2(15.4)	1(7.7)	1(7.7)	2(15.4)	13(100)
학교부설	4(25.0)	4(25.0)	5(31.3)	1(6.3)	2(12.5)	16(100)
기타	1(50.0)	1(50.0)				2(100)
$\chi^2=21.722, P>.05$						
<운영재원별>						
보조(국고, 지자체)	40(59.7)	10(14.9)	5(7.5)	3(4.5)	9(13.4)	67(100)
자체기금조성(후원금)	1(33.3)	1(33.3)			1(33.3)	3(100)
교육수강료	4(30.8)	3(23.1)	4(30.8)	1(7.7)	1(7.7)	13(100)
기타	2(40.0)	2(40.0)	1(20.0)			5(100)
$\chi^2=13.322, P>.05$						

평생교육기관의 월평균 교육인원 조사결과는 <표IV-30>과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월 평균 교육인원은 200명 이상이 39.8%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충남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 참여도가 높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기관성격별 분석에서는 학교평생교육시설과 직업훈련기관은 월평균 교육인원이 200명 이상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문화원과 공공평생교육시설은 50~100명 미만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운영주체 및 운영재원별 분석에서는 모든 기관이 운영주체별, 운영재원별로 각각 월평균 교육인원이 200명 이상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0> 월평균 교육인원 현황

(단위 : 명, %)

구분 \ 항목	50명 미만	50~100명 미만	100~150명 미만	150~200명 미만	200명 이상	전체
<전체>	13(14.8)	21(23.9)	11(12.5)	8(9.1)	35(39.8)	88(100)
<기관성격별>						
학교평생교육시설	1(6.7)	1(6.7)	1(6.7)	2(13.3)	10(66.7)	15(100)
직업훈련기관				1(20)	4(80)	5(100)
노인평생교육기관	1(33.3)		1(33.3)		1(33.3)	3(100)
사회복지기관		1(14.3)	3(42.9)	1(14.3)	2(28.6)	7(100)
문화원	2(22.2)	4(44.4)			3(33.3)	9(100)
연수기관				1(33.3)	2(66.7)	3(100)
공공평생교육시설	9(19.6)	15(32.6)	6(13)	3(6.5)	13(28.3)	46(100)
$\chi^2=32.917, P>.05$						
<설립·운영주체별>						
정부·지자체 설립운영	9(18)	16(32)	5(10)	5(10)	15(30)	50(100)
정부·지자체설립/민간위탁운영	1(16.7)		2(33.3)		3(50)	6(100)
종교단체 설립운영					1(100)	1(100)
민간비영리단체 설립운영	1(7.7)	4(30.8)	2(15.4)	1(7.7)	5(38.5)	13(100)
학교부설	1(6.3)	1(6.3)	2(12.5)	2(12.5)	10(62.5)	16(100)
기타	1(50)				1(50)	2(100)
$\chi^2=17.595, P>.05$						
<운영재원별>						
보조(국고, 지자체)	12(17.9)	20(29.9)	7(10.4)	6(9)	22(32.8)	67(100)
자체기금 조성(후원금)			1(33.3)		2(66.7)	3(100)
교육수강료	1(7.7)	1(7.7)	2(15.4)	2(15.4)	7(53.8)	13(100)
기타			1(20)		4(80)	5(100)
$\chi^2=13.322, P>.05$						

평생교육기관의 월평균 수강료 조사결과는 <표 IV-31>와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월평균 수강료는 1만원 미만이 51.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성격별 분석에서는 학교평생교육시설이 월평균 수강료 5~7만원 미만 및 7만원 이상이 각각 33%로 가장 많음을 알 수 있고, 사회복지기관은 3~5만원 미만, 노인평생교육기관, 문화원, 연수기관, 공공평생교육시설은 각각 1만원 미만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운영주체별 분석에서는 정부지자체 설립운영, 민간비영리단체 설립운영은 월평균 수강료 1만원 미만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고, 학교부설 평생교육기관은 각각 5~7만원 미만 및 7만원 이상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운영재원별 분석에서는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은 1만원 미만, 교육수강료로 운

영되고 있는 기관은 5~7만원 미만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IV-31> 월평균 수강료 현황

(단위 : 명, %)

구분 \ 항목	1만원 미만	1~3만원 미만	3~5만원 미만	5~7만원 미만	7만원 이상	전체
<전체>	45(51.1)	14(15.9)	8(9.1)	8(9.1)	13(14.8)	88(100)
<기관성격별>						
학교평생교육시설		3(20.0)	2(13.3)	5(33.3)	5(33.3)	15(100)
직업훈련기관	1(20.0)	1(20.0)	1(20.0)	1(20.0)	1(20.0)	5(100)
노인평생교육기관	3(100.0)					3(100)
사회복지기관	2(28.6)	1(14.3)	3(42.9)		1(14.3)	7(100)
문화원	5(55.6)	4(44.4)				9(100)
연수기관	3(100.0)					3(100)
공공평생교육시설	31(67.4)	5(10.9)	2(4.3)	2(4.3)	6(13.0)	46(100)
	$\chi^2=52.669, P<.05$					
<설립·운영주체별>						
정부·지자체설립운영	33(66.0)	6(12.0)	2(4.0)	2(4.0)	7(14.0)	50(100)
정부·자체설립/민간위탁운영	2(33.3)	2(33.3)	2(33.3)			6(100)
종교단체설립운영	1(100.0)					1(100)
민간비영리단체설립운영	7(53.8)	3(21.3)	1(7.7)	1(7.7)	1(7.7)	13(100)
학교부설	1(6.3)	3(18.8)	2(12.5)	5(31.3)	5(31.3)	16(100)
기타	1(50.0)		1(50.0)			2(100)
	$\chi^2=36.880, P<.05$					
<운영재원별>						
보조(국고, 지자체)	41(61.2)	10(14.9)	5(7.5)	3(4.5)	8(11.9)	67(100)
자체기금조성(후원금)	1(33.3)	1(33.3)	1(33.3)			3(100)
교육수강료		2(15.4)	2(15.4)	5(38.5)	4(30.8)	13(100)
기타	3(60.0)	1(20.0)			1(20.0)	5(100)
	$\chi^2=14.454, P<.05$					

평생교육기관의 가장 큰 지출항목 조사결과는 <표IV-32>와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큰 지출항목은 인건비가 67%로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지출항목은 월평균 유지비와 비례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관성격별 분석에서는 연수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체 분석결과와 같이 인건비가 가장 큰 지출 항목으로 나타났다.

운영주체별 분석에서는 정부·지자체 설립운영/민간위탁 운영 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체 분석결과와 같이 인건비가 가장 큰 항목으로 나타났다.

운영재원별 분석에서는 모두 전체 분석결과와 같이 인건비가 가장 큰 지출항목으로 나타났다.

<표 IV-32> 지출항목 현황

(단위 : 명, %)

구분 \ 항목	인건비	시설투자·유지비	기타	전체
<전체>	59(67.0)	23(26.1)	6(6.8)	88(100)
<기관성격별>				
학교평생교육시설	14(93.3)	1(6.7)		15(100)
직업훈련기관	4(80.0)	1(20.0)		5(100)
노인평생교육기관	2(66.7)		1(33.3)	3(100)
사회복지기관	4(57.1)	2(28.6)	1(14.3)	7(100)
문화원	6(66.7)	3(33.3)		9(100)
연수기관	1(33.3)	2(66.7)		3(100)
공공평생교육시설	28(60.9)	14(30.4)	4(8.7)	46(100)
$\chi^2=14.066$ $P>.05$				
<설립·운영주체별>				
정부·지자체설립운영	30(60.0)	17(34.0)	3(6.0)	50(100)
정부·자자체설립/민간위탁운영	2(33.3)	3(50.0)	1(16.7)	6(100)
종교단체설립운영			1(100.0)	1(100)
민간비영리단체설립운영	11(84.6)	2(15.4)		13(100)
학교부설	14(87.5)	1(6.3)	1(6.3)	16(100)
기타	2(100.0)			2(100)
$\chi^2=24.917$ $P<.05$				
<운영재원별>				
보조(국고, 지자체)	42(62.7)	21(31.3)	4(6.0)	67(100)
자체기금조성(후원금)	2(66.7)	1(33.3)		3(100)
교육수강료	12(92.3)	1(7.7)		13(100)
기타	3(60.0)		2(40.0)	5(100)
$\chi^2=14.454$ $P<.05$				

평생교육기관의 홍보방법에 관한 조사 결과는 <표IV-33>과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홍보 방법은 전단/포스터/현수막에 해당하는 경우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기관성격별 분석에서는 학교평생교육시설과 공공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전단/포스터/현수막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 사회복지기관의 경우에는 신문/정보지/잡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운영주체별 분석에서는 정부·지자체 설립운영의 경우와 학교부설의 경우 전단/포스터/현수막의 비율이 많은 반면, 정부·지자체 설립/민간위탁운영의 경우와 민간비영리단체설립운영의 경우 신문/정보지/잡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운영재원별 분석에서는 자체기금조성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의 경우 신문/정보지/잡지의 비율이 높은 반면, 보조금과 교육수강료의 경우는 전단/포스터/현수막의 비율이 높았다.

<표 IV-33> 홍보방법

(단위 : 명, %)

구분 \ 항목	신문 및 지역정보지, 잡지	전단, 포스터, 현수막	PC통신 및 인터넷	방송매체 (TV, 라디오)	별도의 홍보를 실시 안함	기타	전체
<전체>	26(29.5)	41(46.6)	5(5.7)	1(1.1)	7(8.0)	8(9.1)	88(100)
<기관성격별>							
학교평생교육시설	4(26.7)	10(66.7)				1(6.7)	15(100)
직업훈련기관	2(40.0)	1(20.0)		1(20.0)		1(20.0)	5(100)
노인평생교육기관		1(33.3)			2(66.7)		3(100)
사회복지기관	5(71.4)	1(14.3)				1(14.3)	7(100)
문화원	4(44.4)	3(33.3)	2(22.2)				9(100)
연수기관	1(33.3)		1(33.3)		1(33.3)		3(100)
공공평생교육시설	10(21.7)	25(54.3)	2(4.3)		4(8.7)	5(10.9)	46(100)
	$\chi^2=60.605, P<.05$						
<설립·운영주체별>							
정부·지자체설립운영	13(26.0)	24(48.0)	3(6.0)		5(10.0)	5(10.0)	50(100)
정부·지자체설립/민간위탁운영	3(50.0)	2(33.3)				1(16.7)	6(100)
종교단체설립운영		1(100.0)					1(100)
민간비영리단체설립운영	5(38.5)	3(23.1)	2(15.4)	1(7.7)	2(15.4)		13(100)
학교부설	4(25.0)	11(68.8)				1(6.3)	16(100)
기타	1(50.0)					1(50.0)	2(100)
	$\chi^2=25.151, P>.05$						
<운영재원별>							
보조(국고, 지자체)	19(28.4)	29(43.3)	4(6.0)	1(1.5)	7(10.4)	7(10.4)	67(100)
자체기금조성(후원금)	3(100.0)						3(100)
교육수강료	3(23.1)	8(61.5)	1(7.7)			1(7.7)	13(100)
기타	1(20.0)	4(80.0)					5(100)
	$\chi^2=12.742, P>.05$						

3)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실태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프로그램개발방법, 요구분석, 만족도 조사, 시장조사, 프로그램 의견교환, 프로그램 개선빈도, 교육방법 등에 대한 사항들을 파악하였다.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IV-34>와 같다.

<표 IV-34> 프로그램 개발방법

(단위 : 명, %)

구분 \ 항목	외부의 교육전문가에 게 의뢰	내부 직원이 공동으로 자체개발	타 기관 교육프로그램 을 도입·활용	타 기관 교육프로그램 을 수정·활용	기타	전체
<전체>	11(12.5)	49(55.7)	10(11.4)	5(5.7)	13(14.8)	88(100)
<기관성격별>						
학교평생교육시설	2(13.3)	10(66.7)	1(6.7)		2(13.3)	15(100)
직업훈련기관	2(40.0)	3(60.0)				5(100)
노인평생교육기관		3(100.0)				3(100)
사회복지기관	1(14.3)	5(71.4)	1(14.3)			7(100)
문화원	3(33.3)	4(44.4)			2(22.2)	9(100)
연수기관	1(33.3)	1(33.3)		1(33.3)		3(100)
공공평생교육시설	2(4.3)	23(50.0)	8(17.4)	4(8.7)	9(19.6)	46(100)
	$\chi^2=27.299, P>.05$					
<설립·운영주체별>						
정부·지자체설립운영	4(8.0)	23(46.0)	9(18.0)	5(10.0)	9(18.0)	50(100)
정부·지자체설립/민간위탁 운영	1(16.7)	4(66.7)			1(16.7)	6(100)
종교단체설립운영		1(100.0)				1(100)
민간비영리단체설립운영	4(30.8)	8(61.5)			1(7.7)	13(100)
학교부설	2(12.5)	11(68.8)	1(6.3)		2(12.5)	16(100)
기타		2(100.0)				2(100)
	$\chi^2=17.254, P>.05$					
<운영재원별>						
보조(국고, 지자체)	7(10.4)	36(53.7)	9(13.4)	4(6.0)	11(16.4)	67(100)
자체기금조성(후원금)	3(100.0)					3(100)
교육수강료	1(7.7)	8(61.5)	1(7.7)	1(7.7)	2(15.4)	13(100)
기타		5(100.0)				5(100)
	$\chi^2=26.207, P<.05$					

전체적인 결과는 조사대상 기관의 55.7%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내부 직원이 공동으로 자체 개발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외부의 교육전문가에게 의뢰(12.5%), 타 기관 프로그램을 도입·활용(11.4%), 타기관 프로그램을 수정·활용(5.7%)한다는 순으로 응답하였다.

기관성격별 분석에서는 학교평생교육시설과 공공평생교육시설의 경우 내부직원이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는 경우가 타 기관보다 높게 나타났다.

운영주체별 분석에서는 모두 전체분석 결과와 같이 내부직원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재원별 분석에서는 자체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은 외부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요구분석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IV-35>과 같다.

<표 IV-35> 요구분석 현황

(단위 : 명, %)

구분 \ 항목	예	아니오	전체
<전체>	62(70.5)	26(29.5)	88(100)
<기관성격별>			
학교평생교육시설	13(86.7)	2(13.3)	15(100)
직업훈련기관	4(80.0)	1(20.0)	5(100)
노인평생교육기관	1(33.3)	2(66.7)	3(100)
사회복지기관	7(100.0)		7(100)
문화원	7(77.8)	2(22.2)	9(100)
연수기관	2(66.7)	1(33.3)	3(100)
공공평생교육시설	28(60.9)	18(39.1)	46(100)
	$\chi^2=9.317, P>.05$		
<설립·운영주체별>			
정부·지자체설립운영	31(62.0)	19(38.0)	50(100)
정부·자자체설립/민간위탁운영	4(66.7)	2(33.3)	6(100)
종교단체설립운영	1(100.0)		1(100)
민간비영리단체설립운영	10(76.9)	3(23.1)	13(100)
학교부설	14(87.5)	2(12.5)	16(100)
기타	2(100.0)		2(100)
	$\chi^2=5.511, P>.05$		

(표 계속)

구분 \ 항목	예	아니오	전체
<운영재원별>			
보조(국고, 지자체)	43(64.2)	24(35.8)	67(100)
자체기금조성(후원금)	3(100.0)		3(100)
교육수강료	11(84.6)	2(15.4)	13(100)
기타	5(100.0)		5(100)
$\chi^2=5.875, P>.05$			

<표 IV-35>의 결과를 통해 볼 때 대부분의 평생교육기관에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에 학습자 요구분석을 실시(70.5%)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성격별 분석에서는 노인평생교육기관의 경우 요구분석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66.7%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운영주체와 운영재원별 분석에서는 모두 전체 분석결과와 같이 요구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학습자 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IV-36>과 같다. <표 IV-36>의 결과를 통해 볼 때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58.0%)하고 있는 기관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성격별 분석에서는 노인평생교육기관과 문화원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기관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6> 만족도 조사

(단위 : 명, %)

구분 \ 항목	예	아니오	전체
<전체>	51(58.0)	37(42.0)	88(100)
<기관성격별>			
학교평생교육시설	13(86.7)	2(13.3)	15(100)
직업훈련기관	4(80.0)	1(20.0)	5(100)
노인평생교육기관		3(100.0)	3(100)
사회복지기관	5(71.4)	2(28.6)	7(100)
문화원	3(33.3)	6(66.7)	9(100)
연수기관	2(66.7)	1(33.3)	3(100)
공공평생교육시설	24(52.2)	22(47.8)	46(100)
$\chi^2=13.692, P<.05$			

(표 계속)

구분 \ 항목	예	아니오	전체
<설립·운영주체별>			
정부·지자체설립운영	27(54.0)	23(46.0)	50(100)
정부·자체설립/민간위탁운영	3(50.0)	3(50.0)	6(100)
종교단체설립운영		1(100.0)	1(100)
민간비영리단체설립운영	6(46.2)	7(53.8)	13(100)
학교부설	14(87.5)	2(12.5)	16(100)
기타	1(50.0)	1(50.0)	2(100)
	$\chi^2=8.382, P>.05$		
<운영재원별>			
보조(국고, 지자체)	34(50.7)	33(49.3)	67(100)
자체기금조성(후원금)	3(100.0)		3(100)
교육수강료	10(76.9)	3(23.1)	13(100)
기타	4(80.0)	1(20.0)	5(100)
	$\chi^2=6.522, P>.05$		

운영주체별 분석에서는 정부·지자체 설립/민간위탁 운영의 경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과 그렇지 않는 기관이 각각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재원별 분석에서는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50.7%)과 실시하고 있지 않는 기관(49.3%)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강의평가 반영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IV-37>과 같다. <표 IV-37>의 결과를 통해 볼 때 대부분의 평생교육기관에서는 교육후 강의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프로그램에 반영(67%)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성격별, 운영주체별, 운영재원별 분석 모두 전체분석결과와 같이 강의평가를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7> 강의평가 반영

(단위 : 명, %)

구분 \ 항목	예	아니오	전체
<전체>	59(67.0)	29(33.0)	88(100)
<기관성격별>			
학교평생교육시설	12(80.0)	3(20.0)	15(100)
직업훈련기관	5(100.0)		5(100)
노인평생교육기관	3(100.0)		3(100)
사회복지기관	7(100.0)		7(100)
문화원	6(66.7)	3(33.3)	9(100)
연수기관	2(66.7)	1(33.3)	3(100)
공공평생교육시설	24(52.2)	22(47.8)	46(100)
	$\chi^2=13.118, P<.05$		
<설립·운영주체별>			
정부·지자체설립운영	29(58.0)	21(42.0)	50(100)
정부·지자체설립/민간위탁운영	5(83.3)	1(16.7)	6(100)
종교단체설립운영	1(100.0)		1(100)
민간비영리단체설립운영	11(84.6)	2(15.4)	13(100)
학교부설	13(81.3)	3(18.8)	16(100)
기타		2(100.0)	2(100)
	$\chi^2=10.410, P>.05$		
<운영재원별>			
보조(국고, 지자체)	44(65.7)	23(34.3)	67(100)
자체기금조성(후원금)	2(66.7)	1(33.3)	3(100)
교육수강료	10(76.9)	3(23.1)	13(100)
기타	3(60.0)	2(40.0)	5(100)
	$\chi^2=0.744, P>.05$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시장조사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IV-38>과 같다. <표 IV-38>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시의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기관(56.8%)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성격별 분석에서는 학교평생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문화원, 연수기관은 타 기관보다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주체별 분석에서는 정부·지자체 설립운영의 경우는 시장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재원별 분석에서는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은 시장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지자체 공공평생교육시

설은 전반적으로 시장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V-38> 시장조사

(단위 : 명, %)

구분 \ 항목	예	아니오	전체
<전체>	38(43.2)	50(56.8)	88(100)
<기관성격별>			
학교평생교육시설	10(66.7)	5(33.3)	15(100)
직업훈련기관	4(80.0)	1(20.0)	5(100)
노인평생교육기관	1(33.3)	2(66.7)	3(100)
사회복지기관	3(42.9)	4(57.1)	7(100)
문화원	6(66.7)	3(33.3)	9(100)
연수기관	3(100.0)		3(100)
공공평생교육시설	11(23.9)	35(76.1)	46(100)
$\chi^2=19.185, P<.05$			
<설립·운영주체별>			
정부·지자체설립운영	15(30.0)	35(70.0)	50(100)
정부·지자체설립/민간위탁운영	4(66.7)	2(33.3)	6(100)
종교단체설립운영		1(100.0)	1(100)
민간비영리단체설립운영	7(53.8)	6(46.2)	13(100)
학교부설	10(62.5)	6(37.5)	16(100)
기타	2(100.0)		2(100)
$\chi^2=11.318, P<.05$			
<운영재원별>			
보조(국고, 지자체)	25(37.3)	42(62.7)	67(100)
자체기금조성(후원금)	3(100.0)		3(100)
교육수강료	8(61.5)	5(38.5)	13(100)
기타	2(40.0)	3(60.0)	5(100)
$\chi^2=6.694, P>.05$			

평생교육기관에서 기관 운영자, 교·강사, 학습자 간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의견교환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IV-39>과 같다. <표 IV-39>의 결과를 통해 볼 때 대부분의 평생교육기관에서는 기관운영자, 교·강사, 학습자 간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의견을 교환(94.3%)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성격별, 운영주체별, 운영재원별 분석 모두 전체분석결과와 같이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의견교환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9> 프로그램 의견교환

(단위 : 명, %)

구분 \ 항목	예	아니오	전체
<전체>	83(94.3)	5(5.7)	88(100)
<기관성격별>			
학교평생교육시설	13(86.7)	2(13.3)	15(100)
직업훈련기관	5(100.0)		5(100)
노인평생교육기관	3(100.0)		3(100)
사회복지기관	7(100.0)		7(100)
문화원	9(100.0)		9(100)
연수기관	3(100.0)		3(100)
공공평생교육시설	43(93.5)	3(6.5)	46(100)
	$\chi^2=3.326, P>.05$		
<설립·운영주체별>			
정부·지자체설립운영	49(98.0)	1(2.0)	50(100)
정부·지자체설립/민간위탁운영	6(100.0)		6(100)
종교단체설립운영	1(100.0)		1(100)
민간비영리단체설립운영	13(100.0)		13(100)
학교부설	13(81.3)	3(18.8)	16(100)
기타	1(50.0)	1(50.0)	2(100)
	$\chi^2=14.899, P<.05$		
<운영재원별>			
보조(국고, 지자체)	65(97.0)	2(3.0)	67(100)
자체기금조성(후원금)	3(100.0)		3(100)
교육수강료	12(92.3)	1(7.7)	13(100)
기타	3(60.0)	2(40.0)	5(100)
	$\chi^2=12.176, P<.05$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빈도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IV-40>과 같다. 전체적인 조사결과로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선한다는 경우가 39.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1년 마다 개선(27.3%), 거의 개선하지 못한다(14.8%), 연2회 정도 개선한다(10.2%), 순으로 나타났다.

개선하지 못한다는 응답에 대하여 기관성격별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공공평생교육시설의 경우가 다른 기관보다 다소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운영주체별 분석에서는 정부·지자체설립운영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지자체설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은 대부분 공공평생교육시설이 많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운영재원별 분석에서는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0> 프로그램 개선 빈도 현황

(단위 : 명, %)

구분 \ 항목	거의 개선하지 못 한다	2~3년마다 개선 한다	1년마다 개선 한다	연2회 정도 개선 한다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선 한다	전체
<전체>	13(14.8)	7(8.0)	24(27.3)	9(10.2)	35(39.8)	88(100)
<기관성격별>						
학교평생교육시설			5(33.3)	4(26.7)	6(40.0)	15(100)
직업훈련기관		1(20.0)	3(60.0)		1(20.0)	5(100)
노인평생교육기관	1(33.3)	1(33.3)			1(33.3)	3(100)
사회복지기관		1(14.3)	1(14.3)		5(71.4)	7(100)
문화원		2(22.2)	4(44.4)	1(11.1)	2(22.2)	9(100)
연수기관			1(33.3)		2(66.7)	3(100)
공공평생교육시설	12(26.1)	2(4.3)	10(21.7)	4(8.7)	18(39.1)	46(100)
	$\chi^2=33.036, P>.05$					
<설립·운영주체별>						
정부·지자체설립운영	12(24.0)	3(6.0)	11(22.0)	3(6.0)	21(42.0)	50(100)
정부·자체설립/민간위탁운영		1(16.7)	2(33.3)		3(50.0)	6(100)
종교단체설립운영					1(100.0)	1(100)
민간비영리단체설립운영	1(7.7)	3(23.1)	5(38.5)	1(7.7)	3(23.1)	13(100)
학교부설			6(37.5)	4(25.0)	6(37.5)	16(100)
기타				1(50.0)	1(50.0)	2(100)
	$\chi^2=25.992, P>.05$					
<운영재원별>						
보조(국고, 지자체)	13(19.4)	7(10.4)	17(25.4)	4(6.0)	26(38.8)	67(100)
자체기금조성(후원금)			2(66.7)		1(33.3)	3(100)
교육수강료			4(30.8)	3(23.1)	6(46.2)	13(100)
기타			1(20.0)	2(40.0)	2(40.0)	5(100)
	$\chi^2=6.688, P>.05$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된 교육방법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IV-41>와 같다.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주된 교육방법은 강의법(61.4%), 실험·실습법(33%)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성격별 분석결과에서 보면, 직업훈련기관의 경우와 연수기관의 경우는 실험·실습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운영주체별 분석결과에서는 정부·지자체 설립/민간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실험·실습 위주의 교육이 비교적 많음을 알 수 있다.

운영재원별 분석결과에서는 모두 전체분석 결과와 같이 강의법 위주의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41> 교육방법

(단위 : 명, %)

구분 \ 항목	강의법	실험·실습	시청각 자료	현장견학	전체
<전체>	54(61.4)	29(33.0)	3(3.4)	2(2.3)	88(100)
<기관성격별>					
학교평생교육시설	11(73.3)	4(26.7)			15(100)
직업훈련기관	2(40.0)	3(60.0)			5(100)
노인평생교육기관	2(66.7)		1(33.3)		3(100)
사회복지기관	4(57.1)	3(42.9)			7(100)
문화원	5(55.6)	3(33.3)		1(11.1)	9(100)
연수기관	1(33.3)	2(66.7)			3(100)
공공평생교육시설	29(63.0)	14(30.4)	2(4.3)	1(2.2)	46(100)
$\chi^2=17.995, P>.05$					
<설립·운영주체별>					
정부·지자체설립운영	30(60.0)	17(34.0)	2(4.0)	1(2.0)	50(100)
정부·지자체설립/민간위탁운영	2(33.3)	4(66.7)			6(100)
종교단체설립운영			1(100.0)		1(100)
민간비영리단체설립운영	8(61.5)	4(30.8)		1(7.7)	13(100)
학교부설	12(75.0)	4(25.0)			16(100)
기타	2(100.0)				2(100)
$\chi^2=36.714, P<.05$					
<운영재원별>					
보조(국고, 지자체)	39(58.2)	24(35.8)	2(3.0)	2(3.0)	67(100)
자체기금조성(후원금)	2(66.7)	1(33.3)			3(100)
교육수강료	10(76.9)	3(23.1)			13(100)
기타	3(60.0)	1(20.0)	1(20.0)		5(100)
$\chi^2=6.688, P>.05$					

4) 평생교육관련 인적자원

평생교육기관의 인적자원 활용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직원채용방법, 실무자연수, 강사 선정기준, 강사교육실시, 강사수급방법, 강사처우, 자원봉사자활용, 자원봉사자활용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평생교육기관의 직원채용 방법을 조사한 결과는 <표IV-42>와 같다. 전체적인 결과는 기

타(40.9%)와 공모(37.5%)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타가 많은 결과는 공공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자체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무원 인사발령의 방식으로 직원의 채용과 충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관성격별 분석에 있어서 학교평생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사회복지기관, 문화원의 경우 공모를 활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운영주체별 분석에 있어서는 정부지자체 설립/민간위탁, 학교부설의 경우 공모가 가장 많았고, 정부·지자체 설립 운영의 경우에는 기타의 항목에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위의 공공평생교육시설의 결과와 같이 적용할 수 있다.

<표 IV-42> 직원채용 방법

(단위 : 명, %)

구분 \ 항목	공모	아는 사람 소개	타 기관에 의뢰	기타	전체
<전체>	33(37.5)	14(15.9)	5(5.7)	36(40.9)	88(100)
<기관성격별>					
학교평생교육시설	8(53.3)		1(6.7)	6(40.0)	15(100)
직업훈련기관	5(100.0)				5(100)
노인평생교육기관		1(33.3)		2(66.7)	3(100)
사회복지기관	5(71.4)	1(14.3)		1(14.3)	7(100)
문화원	8(88.9)		1(11.1)		9(100)
연수기관	1(33.3)	1(33.3)		1(33.3)	3(100)
공공평생교육시설	6(13.0)	11(23.9)	3(6.5)	26(56.5)	46(100)
$\chi^2=42.581, P<.05$					
<설립·운영주체별>					
정부·지자체설립운영	11(22.0)	11(22.0)	3(6.0)	25(50.0)	50(100)
정부·지자체설립/민간위탁운영	5(83.3)	1(16.7)			6(100)
종교단체설립운영				1(100.0)	1(100)
민간비영리단체설립운영	9(69.2)	2(15.4)	1(7.7)	1(7.7)	13(100)
학교부설	8(50.0)		1(6.3)	7(43.8)	16(100)
기타				2(100.0)	2(100)
$\chi^2=26.224, P<.05$					
<운영재원별>					
보조(국고, 지자체)	22(32.8)	14(20.9)	4(6.0)	27(40.3)	67(100)
자체기금조성(후원금)	3(100.0)				3(100)
교육수강료	7(53.8)		1(7.7)	5(38.5)	13(100)
기타	1(20.0)			4(80.0)	5(100)
$\chi^2=12.913, P>.05$					

운영재원별 분석에서는 자체기금조성과 교육수강료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은 주로 공모방
법을 채택하고 있었다.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실무자를 위한 연수를 어느 정도 실시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IV-43>와 같다. 전체적인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관의 48.9%에 해당하는 기
관이 거의실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성격별 분석에서는 학교평생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의 경우 연1,2회 정도 실시하고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43> 실무자 연수 현황

(단위 : 명, %)

구분 \ 항목	거의 실시하지 않는다	연 1, 2회 정도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전체
<전체>	43(48.9)	23(26.1)	16(18.2)	6(6.8)	88(100)
<기관성격별>					
학교평생교육시설	1(6.7)	8(53.3)	3(20.0)	3(20.0)	15(100)
직업훈련기관		3(60.0)	2(40.0)		5(100)
노인평생교육기관	1(33.3)	2(66.7)			3(100)
사회복지기관	4(57.1)	1(14.3)	2(28.6)		7(100)
문화원	5(55.6)	1(11.1)	2(22.2)	1(11.1)	9(100)
연수기관	2(66.7)	1(33.3)			3(100)
공공평생교육시설	30(65.2)	7(15.2)	7(15.2)	2(4.3)	46(100)
$\chi^2=31.437, P<.05$					
<설립·운영주체별>					
정부·지자체설립운영	32(64.0)	7(14.0)	10(20.0)	1(2.0)	50(100)
정부·자자체설립/민간위탁운영	3(50.0)	3(50.0)			6(100)
종교단체설립운영		1(100.0)			1(100)
민간비영리단체설립운영	6(46.2)	3(23.1)	3(23.1)	1(7.7)	13(100)
학교부설	1(6.3)	9(56.3)	3(18.8)	3(18.8)	16(100)
기타	1(50.0)			1(50.0)	2(100)
$\chi^2=34.040, P<.05$					
<운영재원별>					
보조(국고, 지자체)	41(61.2)	11(16.4)	13(19.4)	2(3.0)	67(100)
자체기금조성(후원금)		3(100.0)			3(100)
교육수강료	1(7.7)	7(53.8)	2(15.4)	3(23.1)	13(100)
기타	1(20.0)	2(40.0)	1(20.0)	1(20.0)	5(100)
$\chi^2=30.411, P<.05$					

운영주체별 분석에서는 정부·지자체 설립운영의 경우 거의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재원별 분석에서는 자체기금조성과 교육수강료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의 경우 연1,2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 보다 자체기금조성과 교육수강료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 보다 실무자 연수를 충실히 하고 있다는 결과를 반영한다.

평생교육기관에서 강사의 선정기준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IV-44>와 같다. 전체적인 결과는 대부분 담당교과의 전문성 항목이 81.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IV-44> 강사선정 기준

(단위 : 명, %)

구분 \ 항목	담당 교과의 전문성	관련 학위 등의 학력	현재 직장 및 직위	사회적 지명도	수강생의 반응	기타	전체
<전체>	71(80.7)	3(3.4)	1(1.1)	3(3.4)	8(9.1)	2(2.3)	88(100)
<기관성격별>							
학교평생교육시설	13(86.7)				2(13.3)		15(100)
직업훈련기관	5(100.0)						5(100)
노인평생교육기관	2(66.7)				1(33.3)		3(100)
사회복지기관	5(71.4)	1(14.3)					7(100)
문화원	7(100.0)						9(100)
연수기관	3(100.0)						3(100)
공공평생교육시설	33(71.7)	2(4.3)	1(2.2)	3(6.5)	5(10.9)	2(4.3)	46(100)
	$\chi^2=14.231, P>.05$						
<설립·운영주체별>							
정부·지자체설립운영	37(74.0)	2(4.0)	1(2.0)	3(6.0)	5(10.0)	2(4.0)	50(100)
정부·지자체설립/민간위탁운영	6(100.0)						6(100)
종교단체설립운영	1(100.0)						1(100)
민간비영리단체설립운영	11(84.6)	1(7.7)			1(7.7)		13(100)
학교부설	14(87.5)				2(12.5)		16(100)
기타	2(100.0)						2(100)
	$\chi^2=8.069, P>.05$						
<운영재원별>							
보조(국고, 지자체)	52(77.6)	3(4.5)	1(1.5)	3(4.5)	6(9.0)	2(3.0)	67(100)
자체기금조성(후원금)	3(100.0)						3(100)
교육수강료	11(84.6)				2(15.4)		13(100)
기타	5(100.0)						5(100)
	$\chi^2=4.589, P>.05$						

기관성격별, 운영주체별, 운영재원별 분석의 경우 모두 전체분석 결과와 같이 담당교과의 전문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평생교육기관에서 강사교육을 어느 정도 실시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IV-45>와 같다. 전체적인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관의 54.5%에 해당하는 기관이 거의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성격별 분석에서는 학교평생교육시설, 사회복지기관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반면에 공공평생교육시설의 경우는 거의 실시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IV-45> 강사교육실시 현황

(단위 : 명, %)

구분 \ 항목	거의 실시하지 않는다	연 1, 2회 정도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전체
<전체>	48(54.5)	9(10.2)	26(29.5)	5(5.7)	88(100)
<기관성격별>					
학교평생교육시설	4(26.7)	2(13.3)	7(46.7)	2(13.3)	15(100)
직업훈련기관		4(80.0)	1(20.0)		5(100)
노인평생교육기관	2(66.7)	1(33.3)			3(100)
사회복지기관	2(28.6)		4(57.1)	1(14.3)	7(100)
문화원	4(44.4)		5(55.6)		9(100)
연수기관	1(33.3)	1(33.3)		1(33.3)	3(100)
공공평생교육시설	35(76.1)	1(2.2)	9(19.6)	1(2.2)	46(100)
$\chi^2=59.056, P<.05$					
<설립·운영주체별>					
정부·지자체설립운영	32(64.0)	2(4.0)	14(28.0)	2(4.0)	50(100)
정부·지자체설립/민간위탁운영	2(33.3)	2(33.3)	1(16.7)	1(16.7)	6(100)
종교단체설립운영		1(100.0)			1(100)
민간비영리단체설립운영	7(53.8)	2(15.4)	4(30.8)		13(100)
학교부설	5(31.3)	2(12.5)	7(43.8)	2(12.5)	16(100)
기타	2(100.0)				2(100)
$\chi^2=23.846, P>.05$					
<운영재원별>					
보조(국고, 지자체)	41(61.2)	6(9.0)	18(26.9)	2(3.0)	67(100)
자체기금조성(후원금)			2(66.7)	1(33.3)	3(100)
교육수강료	4(30.8)	2(15.4)	5(38.5)	2(15.4)	13(100)
기타	3(60.0)	1(20.0)	1(20.0)		5(100)
$\chi^2=14.171, P>.05$					

운영주체별 분석에서는 학교부설기관의 경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한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운영재원별 분석에서는 교육수강료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의 경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한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평생교육기관에서 강사를 수급하는 방법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IV-46>와 같다. 전체적인 결과는 아는 사람의 소개(37.5%)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공모(22.7%) 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성격별 분석에서는 학교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타 기관에 의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사회복지관의 경우는 공모를 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운영주체별 분석에서는 정부·지자체설립운영, 민간비영리단체설립운영의 경우 아는 사람의 소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운영재원별 분석에서는 교육수강료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의 경우 타 기관에 의뢰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46> 강사수급방법

(단위 : 명, %)

구분 \ 항목	평생교육정보센터의 강사풀·은행제	공모	아는 사람 소개	타 기관에 의뢰	기타	전체
<전체>	9(10.2)	20(22.7)	33(37.5)	12(13.6)	14(15.9)	88(100)
<기관성격별>						
학교평생교육시설		2(13.3)	3(20.0)	6(40.0)	4(26.7)	15(100)
직업훈련기관	1(20.0)	2(40.0)	1(20.0)	1(20.0)		5(100)
노인평생교육기관			2(66.7)	1(33.3)		3(100)
사회복지기관		5(71.4)	1(14.3)		1(14.3)	7(100)
문화원	3(33.3)	1(11.1)	4(44.4)	1(11.1)		9(100)
연수기관	1(33.3)		1(33.3)		1(33.3)	3(100)
공공평생교육시설	4(8.7)	10(21.7)	21(45.7)	3(6.5)	8(17.4)	46(100)
	$\chi^2=40.324, P<.05$					

(표 계속)

<설립·운영주체별>						
정부·지자체설립운영	5(10.0)	11(22.0)	23(46.0)	3(6.0)	8(16.0)	50(100)
정부·지자체설립/민간위탁운영	1(16.7)	3(50.0)	1(16.7)		1(16.7)	6(100)
종교단체설립운영					1(100.0)	1(100)
민간비영리단체설립운영	1(7.7)	4(30.8)	5(38.5)	3(23.1)		13(100)
학교부설	1(6.3)	2(12.5)	3(18.8)	6(37.5)	4(25.0)	16(100)
기타	1(50.0)				1(50.0)	2(100)
$\chi^2=27.906, P>.05$						
<운영재원별>						
보조(국고, 지자체)	6(9.0)	16(23.9)	29(43.3)	6(9.0)	10(14.9)	67(100)
자체기금조성(후원금)	1(33.3)	1(33.3)			1(33.3)	3(100)
교육수강료		3(23.1)	2(15.4)	6(46.2)	2(15.4)	13(100)
기타	2(40.0)		2(40.0)		1(20.0)	5(100)
$\chi^2=25.003, P<.05$						

평생교육기관에서 시간당 평균 강사료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한 결과는 <표 IV-47>와 같다.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시간당 평균 강사료는 2-3만원 미만(35.2%)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3-4만원 미만(22.7%), 1-2만원 미만(21.6%)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기관성격별 분석에서는 학교평생교육시설과 직업훈련기관의 경우 2-3만원이 가장 많았고, 공공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1-2만원 미만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표 IV-47> 강사처우

(단위 : 명, %)

구분 \ 항목	1만원 미만	1~2만원 미만	2~3만원 미만	3~4만원 미만	4~5만원 미만	5만원 이상	전체
<전체>	3(3.4)	19(21.6)	31(35.2)	20(22.7)	8(9.1)	7(8.0)	88(100)
<기관성격별>							
학교평생교육시설		1(6.7)	7(46.7)	6(40.0)	1(6.7)		15(100)
직업훈련기관			4(80.0)		1(20.0)		5(100)
노인평생교육기관	1(33.3)			1(33.3)			3(100)
사회복지기관		1(14.3)	2(28.6)	3(42.9)	1(14.3)		7(100)
문화원		1(11.1)	2(22.2)	3(33.3)	3(33.3)		9(100)
연수기관			1(33.3)			2(6.7)	3(100)
공공평생교육시설	2(4.3)	16(34.8)	15(32.6)	7(15.2)	2(4.3)	4(8.7)	46(100)
$\chi^2=56.218, P<.05$							

(표 계속)

<설립·운영주체별>							
정부·지자체설립운영	2(4.0)	16(32.0)	15(30.0)	8(16.0)	3(6.0)	6(12.0)	50(100)
정부·지자체설립/민간위탁운영			6(100.0)				6(100)
종교단체설립운영						1(100.0)	1(100)
민간비영리단체설립운영	1(7.7)	2(15.4)	2(15.4)	4(30.8)	4(30.8)		13(100)
학교부설		1(7.7)	7(43.8)	7(43.8)	1(7.7)		16(100)
기타			1(50.0)	1(50.0)			2(100)
$\chi^2=47.375, P<.05$							
<운영재원별>							
보조(국고, 지자체)	3(4.5)	18(26.9)	21(31.3)	13(19.4)	6(9.0)	6(9.0)	67(100)
자체기금조성(후원금)			1(33.3)	1(33.3)	1(33.3)		3(100)
교육수강료		1(7.7)	7(53.8)	4(30.8)	1(7.7)		13(100)
기타			2(40.0)	2(40.0)		1(20.0)	5(100)
$\chi^2=12.489, P>.05$							

운영주체별 분석에서는 민간비영리단체설립운영기관이 정부·지자체 설립운영기관보다 시간당 평균 강사료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재원별 분석에서는 보조금과 교육수강료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의 경우 2-3만원 미만 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기관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IV-48>과 같다. 전체적인 결과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는 기관(46.6%)보다 활용하고 있지 않은 기관 (53.4%)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성격별 분석에서는 학교평생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문화원 경우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

운영주체별 분석에서는 정부·지자체 설립운영의 경우 자원봉사자 활용기관(52%)과 자 원봉사자를 활용하지 않는 기관(48%)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운영재원별 분석에서는 교육수강료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의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지 않는 기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8> 자원봉사자 활용 현황

(단위 : 명, %)

구분\항목	예	아니오	전체
<전체>	41(46.6)	47(53.4)	88(100)
<기관성격별>			
학교평생교육시설	3(20.0)	12(80.0)	15(100)
직업훈련기관	1(20.0)	4(80.0)	5(100)
노인평생교육기관	2(66.7)	1(33.3)	3(100)
사회복지기관	7(100.0)		7(100)
문화원	3(33.3)	6(66.7)	9(100)
연수기관	1(33.3)	2(66.7)	3(100)
공공평생교육시설	24(52.2)	22(47.8)	46(100)
	$\chi^2=15.617, P<.05$		
<설립·운영주체별>			
정부·지자체설립운영	26(52.0)	24(48.0)	50(100)
정부·지자체설립/민간위탁운영	4(66.7)	2(33.3)	6(100)
종교단체설립운영	1(100.0)		1(100)
민간비영리단체설립운영	6(46.2)	7(53.8)	13(100)
학교부설	3(18.8)	13(81.3)	16(100)
기타	1(50.0)	1(50.0)	2(100)
	$\chi^2=7.700, P>.05$		
<운영재원별>			
보조(국고, 지자체)	34(50.7)	33(49.3)	67(100)
자체기금조성(후원금)	2(66.7)	1(33.3)	3(100)
교육수강료	4(30.8)	9(69.2)	13(100)
기타	1(20.0)	4(80.0)	5(100)
	$\chi^2=3.679, P>.05$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에서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IV-49>과 같다. 전체적인 결과를 볼 때 교육프로그램 진행보조(39%)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단순한 사무보조(29.3%), 교육프로그램 기획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17.1%)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성격별 분석에서는 학교평생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공공평생교육시설의 경우 단순한 사무보조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평생교육기관, 사회복지관의 경우 단순한 업무보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주체별 분석에서는 정부·지자체 설립운영의 경우 단순한 사무보조와 교육프로그램 진행보조 비율이 같은 반면, 민간비영리단체설립운영의 경우 교육프로그램 진행보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재원별 분석에서는 교육수강료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은 단순한 사무보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9> 자원봉사자 활용 방법

(단위 : 명, %)

구분 \ 항목	단순한 사무보조	교육프로그램 진행보조	교육프로그램 기획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	학습자 상담 및 관리업무	기타	전체
<전체>	12(29.3)	16(39.0)	7(17.1)	1(2.4)	5(12.2)	41(100)
<기관성격별>						
학교평생교육시설	2(100.0)					2(100)
직업훈련기관	1(100.0)					1(100)
노인평생교육기관		2(100.0)				2(100)
사회복지기관		5(71.4)	1(14.3)		1(14.3)	7(100)
문화원		2(66.7)	1(33.3)			3(100)
연수기관				1(100.0)		1(100)
공공평생교육시설	9(36.0)	7(28.0)	5(20.0)		4(16.0)	25(100)
	$\chi^2=59.102, P<.05$					
<설립·운영주체별>						
정부·지자체설립운영	8(29.6)	8(29.6)	5(18.5)	1(3.7)	5(18.5)	27(100)
정부·지자체설립/민간위탁운영	1(25.0)	2(50.0)	1(25.0)			4(100)
종교단체설립운영		1(100.0)				1(100)
민간비영리단체설립운영		5(83.3)	1(16.7)			6(100)
학교부설	3(100.0)					3(100)
	$\chi^2=17.054, P>.05$					
<운영재원별>						
보조(국고, 지자체)	8(23.5)	13(38.2)	7(20.6)	1(2.9)	5(14.7)	34(100)
자체기금조성(후원금)		2(100.0)				2(100)
교육수강료	3(100.0)					3(100)
기타	1(50.0)	1(50.0)				2(100)
	$\chi^2=12.210, P>.05$					

5) 교육시설 및 장비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시설 및 장비를 조사하기 위하여 교육시설형태, 교육시설 및 장비유무(강당, 실습실, 자료실, 상담실, 인터넷 전용선, 휴게실), 교육용 기자재 유무(대형TV, 빔프로젝트, VTR, OHP, 교육용PC)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

었다.

평생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육시설의 형태를 조사한 결과는 <표 IV-50>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조사대상의 77.3%에 해당하는 기관이 교육시설을 자체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임대시설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9.1%로 나타났다. 기타항목으로는 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기관성격별, 운영주체별, 운영재원별 분석에서 모두 전체분석결과와 같이 교육시설을 자체소유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0> 교육시설 형태

(단위 : 수, %)

구분 \ 항목	자체소유	임대시설	자체+임대	기타	전체
<전체>	68(77.3)	8(9.1)	3(3.4)	9(10.2)	88(100)
<기관성격별>					
학교평생교육시설	13(86.7)			2(13.3)	15(100)
직업훈련기관	3(60.0)	2(40.0)			5(100)
노인평생교육기관	2(66.7)	1(33.3)			3(100)
사회복지기관	6(85.7)		1(14.3)		7(100)
문화원	4(44.4)	3(33.3)	1(11.1)	1(11.1)	9(100)
연수기관	3(100.0)				3(100)
공공평생교육시설	37(80.4)	2(4.3)	1(2.2)	6(13.0)	46(100)
$\chi^2=25.844, P>.05$					
<설립·운영주체별>					
정부·지자체설립운영	41(82.0)	2(4.0)	1(2.0)	6(12.0)	50(100)
정부·자자체설립/민간위탁운영	4(66.7)	1(16.7)		1(16.7)	6(100)
종교단체설립운영	1(100.0)				1(100)
민간비영리단체설립운영	6(46.2)	5(38.5)	2(15.4)		13(100)
학교부설	14(87.5)			2(12.5)	16(100)
기타	2(100.0)				2(100)
$\chi^2=26.872, P<.05$					
<운영재원별>					
보조(국고, 지자체)	50(74.6)	8(11.9)	2(3.0)	7(10.4)	67(100)
자체기금조성(후원금)	2(66.7)		1(33.3)		3(100)
교육수강료	11(84.6)			2(15.4)	13(100)
기타	5(100.0)				5(100)
$\chi^2=12.725, P>.05$					

평생교육기관의 각종 내부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 해 보았는데 먼저 강당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표 IV-51>와 같다.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강당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64.8%)이 그렇지 않은 기관(35.2%)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성격별 분석에서는 공공평생교육시설의 경우 강당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이 각각 50%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운영주체별, 운영재원별 분석에서는 모두 전체결과와 같이 강당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이 그렇지 않은 기관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1> 강당 유무 현황

(단위 : 수, %)

구분 \ 항목	예	아니오	전체
<전체>	57(64.8)	31(35.2)	88(100)
<기관성격별>			
학교평생교육시설	12(80.0)	3(20.0)	15(100)
직업훈련기관	4(80.0)	1(20.0)	5(100)
노인평생교육기관	3(100.0)		3(100)
사회복지기관	6(85.7)	1(14.3)	7(100)
문화원	7(77.8)	2(22.2)	9(100)
연수기관	2(66.7)	1(33.3)	3(100)
공공평생교육시설	23(50.0)	23(50.0)	46(100)
$\chi^2=10.081, P>.05$			
<설립·운영주체별>			
정부·지자체설립운영	27(54.0)	23(46.0)	50(100)
정부·지자체설립/민간위탁운영	5(83.3)	1(16.7)	6(100)
종교단체설립운영	1(100.0)		1(100)
민간비영리단체설립운영	10(76.9)	3(23.1)	13(100)
학교부설	13(81.3)	3(81.3)	16(100)
기타	1(50.0)	1(50.0)	2(100)
$\chi^2=6.929, P>.05$			
<운영재원별>			
보조(국고, 지자체)	41(61.2)	26(38.8)	67(100)
자체기금조성(후원금)	2(66.7)	1(33.3)	3(100)
교육수강료	10(76.9)	3(23.1)	13(100)
기타	4(80.0)	1(20.0)	5(100)
$\chi^2=1.730, P>.05$			

평생교육기관의 각종 내부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 해 보았는데 실습실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표 IV-52>와 같다.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실습실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58%)이 그렇지 않은 기관(42%)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성격별 분석에서는 노인평생교육기관과 공공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실습실이 설치 되어 있는 기관보다 그렇지 않은 기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주민자치센터가 많은 결과인데 대부분 장소가 협소한 결과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운영주체별, 운영재원별 분석에서는 모두 전체결과와 같이 실습실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이 그렇지 않은 기관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2> 실습실 유무 현황

(단위 : 명, %)

구분 \ 항목	예	아니오	전체
<전체>	51(58.0)	37(42.0)	88(100)
<기관성격별>			
학교평생교육시설	12(80.0)	3(20.0)	15(100)
직업훈련기관	5(100.0)		5(100)
노인평생교육기관	1(33.3)	2(66.7)	3(100)
사회복지기관	4(57.1)	3(42.9)	7(100)
문화원	7(77.8)	2(22.2)	9(100)
연수기관	3(100.0)		3(100)
공공평생교육시설	19(41.3)	27(58.7)	46(100)
	$\chi^2=16.229, P<.05$		
<설립·운영주체별>			
정부·지자체설립운영	26(52.0)	24(48.0)	50(100)
정부·자자체설립/민간위탁운영	4(66.7)	2(33.3)	6(100)
종교단체설립운영	1(100.0)		1(100)
민간비영리단체설립운영	7(53.8)	6(46.2)	13(100)
학교부설	12(75.0)	4(25.0)	16(100)
기타	2(100.0)		2(100)
	$\chi^2=3.690, P>.05$		
<운영재원별>			
보조(국고, 지자체)	35(52.2)	32(47.8)	67(100)
자체기금조성(후원금)	2(66.7)	1(33.3)	3(100)
교육수강료	10(76.9)	3(23.1)	13(100)
기타	4(80.0)	1(20.0)	5(100)
	$\chi^2=3.909, P>.05$		

평생교육기관의 각종 내부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 해 보았는데 자료실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표 IV-53>와 같다.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자료실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50%)과 그렇지 않은 기관(50%)이 같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기관성격별 분석에서는 노인평생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공공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자료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간적인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결과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운영주체별 분석에서는 종교단체 설립운영, 민간비영리단체설립운영, 학교부설인 경우는 대부분 자료실이 설치되어 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53> 자료실 유무 현황

(단위 : 명, %)

구분 \ 항목	예	아니오	전체
<전체>	44(50.0)	44(50.0)	88(100)
<기관성격별>			
학교평생교육시설	11(73.3)	4(26.7)	15(100)
직업훈련기관	4(80.0)	1(20.0)	5(100)
노인평생교육기관	1(33.3)	2(66.7)	3(100)
사회복지기관	2(28.6)	5(71.4)	7(100)
문화원	8(88.9)	1(11.1)	9(100)
연수기관	2(66.7)	1(33.3)	3(100)
공공평생교육시설	16(34.8)	30(65.2)	46(100)
	$\chi^2=16.724, P<.05$		
<설립·운영주체별>			
정부·지자체설립운영	19(38.0)	31(62.0)	50(100)
정부·자자체설립/민간위탁운영	2(33.3)	4(66.7)	6(100)
종교단체설립운영	1(100.0)		1(100)
민간비영리단체설립운영	8(61.5)	5(38.5)	13(100)
학교부설	12(75.0)	4(25.0)	16(100)
기타	2(100.0)		2(100)
	$\chi^2=11.239, P<.05$		
<운영재원별>			
보조(국고, 지자체)	29(43.3)	38(56.7)	67(100)
자체기금조성(후원금)	1(33.3)	2(66.7)	3(100)
교육수강료	10(76.9)	3(23.1)	13(100)
기타	4(80.0)	1(20.0)	5(100)
	$\chi^2=7.112, P>.05$		

운영재원별 분석에서는 교육수강료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의 경우 자료실이 설치되어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평생교육기관의 각종 내부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 해 보았는데 상담실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표 IV-54>와 같다.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상담실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53.4%)이 그렇지 않은 기관(46.6%)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성격별 분석에서는 노인평생교육기관, 문화원, 연수기관, 공공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상담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주체별 분석에서는 정부·지자체 설립운영의 경우 상담실이 없는 기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 정부·정부 지자체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경우 공공평생교육기관이 많은 결과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운영재원별 분석에서는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의 경우 상담실이 없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54> 상담실 유무 현황

(단위 : 명, %)

구분 \ 항목	예	아니오	전체
<전체>	47(53.4)	41(46.6)	88(100)
<기관성격별>			
학교평생교육시설	14(93.3)	1(6.7)	15(100)
직업훈련기관	5(100.0)		5(100)
노인평생교육기관		3(100.0)	3(100)
사회복지기관	6(85.7)	1(14.3)	7(100)
문화원	4(44.4)	5(55.6)	9(100)
연수기관	1(33.3)	2(66.7)	3(100)
공공평생교육시설	17(37.0)	29(63.0)	46(100)
	$\chi^2=26.125, P<.05$		
<설립·운영주체별>			
정부·지자체설립운영	19(38.0)	31(62.0)	50(100)
정부·지자체설립/민간위탁운영	4(66.7)	2(33.3)	6(100)
종교단체설립운영		1(100.0)	1(100)
민간비영리단체설립운영	9(69.2)	4(30.8)	13(100)
학교부설	14(87.5)	2(12.5)	16(100)
기타	1(50.0)	1(50.0)	2(100)
	$\chi^2=15.131, P<.05$		

(표 계속)

<운영재원별>			
보조(국고, 지자체)	31(46.3)	36(53.7)	67(100)
자체기금조성(후원금)	3(100.0)		3(100)
교육수강료	11(84.6)	2(15.4)	13(100)
기타	2(40.0)	3(60.0)	5(100)
	$\chi^2=9.439, P<.05$		

평생교육기관의 각종 내부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 해 보았는데 인터넷 전용선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표 IV-55>와 같다.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인터넷 전용선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81.8%)이 그렇지 않은 기관(18.2%)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대적인 흐름이 잘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기관성격별 분석에서는 노인평생교육기관의 경우 인터넷 전용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이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5> 인터넷 전용선 설치 현황

(단위 : 명, %)

구분 \ 항목	예	아니오	전체
<전체>	72(81.8)	16(18.2)	88(100)
<기관성격별>			
학교평생교육시설	15(100.0)		15(100)
직업훈련기관	5(100.0)		5(100)
노인평생교육기관	1(33.3)	2(66.7)	3(100)
사회복지기관	7(100.0)		7(100)
문화원	8(88.9)	1(11.1)	9(100)
연수기관	3(100.0)		3(100)
공공평생교육시설	33(71.7)	13(28.3)	46(100)
	$\chi^2=14.851, P<.05$		
<설립·운영주체별>			
정부·지자체설립운영	38(76.0)	12(24.0)	50(100)
정부·지자체설립/민간위탁운영	4(66.7)	2(33.3)	6(100)
종교단체설립운영	1(100.0)		1(100)
민간비영리단체설립운영	11(84.6)	2(15.4)	13(100)
학교부설	16(100.0)		16(100)
기타	2(100.0)		2(100)
	$\chi^2=6.354, P>.05$		

(표 계속)

<운영재원별>			
보조(국고, 지자체)	52(77.6)	15(22.4)	67(100)
자체기금조성(후원금)	3(100.0)		3(100)
교육수강료	12(92.3)	1(7.7)	13(100)
기타	5(100.0)		5(100)
	$\chi^2=3.536, P>.05$		

운영주체별, 운영재원별 분석에서는 모두 전체결과와 같이 인터넷 전용선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이 그렇지 않은 기관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기관의 각종 내부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 해 보았는데 휴게실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표 IV-56>와 같다.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59.1%)이 그렇지 않은 기관(40.9%)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성격별 분석에서는 노인평생교육기관과 공공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휴게실이 설치 되어 있는 기관보다 그렇지 않은 기관이 조금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운영주체별 분석에서는 휴게실이 설치 되어있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이 각각 50%로 같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운영재원별 분석에서는 자체기금조성으로 운영되고 있는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적인 열악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V-56> 휴게실 유무 현황

(단위 : 명, %)

구분 \ 항목	예	아니오	전체
<전체>	52(59.1)	36(40.9)	88(100)
<기관성격별>			
학교평생교육시설	13(86.7)	2(13.3)	15(100)
직업훈련기관	5(100.0)		5(100)
노인평생교육기관	1(33.3)	2(66.7)	3(100)
사회복지기관	4(57.1)	3(42.9)	7(100)
문화원	5(55.6)	4(44.4)	9(100)
연수기관	3(100.0)		3(100)
공공평생교육시설	21(45.7)	25(54.3)	46(100)
	$\chi^2=14.575, P<.05$		

(표 계속)

<설립·운영주체별>			
정부·지자체설립운영	25(50.0)	25(50.0)	50(100)
정부·지자체설립/민간위탁운영	3(50.0)	3(50.0)	6(100)
종교단체설립운영	1(100.0)		1(100)
민간비영리단체설립운영	7(53.8)	6(46.2)	13(100)
학교부설	14(87.5)	2(12.5)	16(100)
기타	2(100.0)		2(100)
$\chi^2=9.481, P>.05$			
<운영재원별>			
보조(국고, 지자체)	36(53.7)	31(46.3)	67(100)
자체기금조성(후원금)		3(100.0)	3(100)
교육수강료	12(92.3)	1(7.7)	13(100)
기타	4(80.0)	1(20.0)	5(100)
$\chi^2=11.967, P<.05$			

평생교육기관의 각종 교육용 기자재 현황을 조사 해 보았는데 대형TV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표 IV-57>와 같다.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대형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37.5%) 보다 보유하고 있는 기관(62.5%)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성격별, 운영주체별, 운영재원별 분석에서는 모두 전체결과와 같이 대형 TV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그렇지 않은 기관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7> 보유 기자재(대형 TV) 현황

(단위 : 수, %)

구분 \ 항목	없음	1대 이상	전체
<전체>	33(37.5)	55(62.5)	88(100)
<기관성격별>			
학교평생교육시설	6(40.0)	9(60.0)	15(100)
직업훈련기관		5(100.0)	5(100)
노인평생교육기관	1(33.3)	2(66.7)	3(100)
사회복지기관	1(14.3)	6(85.7)	7(100)
문화원	3(33.3)	6(66.7)	9(100)
연수기관		3(100.0)	3(100)
공공평생교육시설	22(47.8)	24(52.2)	46(100)
$\chi^2=8.631, P>.05$			

(표 계속)

<설립·운영주체별>			
정부·지자체설립운영	21(42.0)	29(58.0)	50(100)
정부·지자체설립/민간위탁운영		6(100.0)	6(100)
종교단체설립운영		1(100.0)	1(100)
민간비영리단체설립운영	4(30.8)	9(69.2)	13(100)
학교부설	6(37.5)	10(62.5)	16(100)
기타	2(100.0)		2(100)
	$\chi^2=8.217, P>.05$		
<운영재원별>			
보조(국고, 지자체)	25(37.3)	42(62.7)	67(100)
자체기금조성(후원금)	1(33.3)	2(66.7)	3(100)
교육수강료	5(38.5)	8(61.5)	13(100)
기타	2(40.0)	3(60.0)	5(100)
	$\chi^2=0.042, P>.05$		

평생교육기관의 각종 교육용 기자재 현황을 조사 해 보았는데 빔프로젝트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표 IV-58>와 같다.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빔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40.9%) 보다 보유하고 있는 기관(59.1%)이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성격별 분석에서는 노인평생교육기관과 공공평생교육시설의 경우 빔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8> 보유 기자재(빔 프로젝트) 현황

(단위 : 수, %)

구분 \ 항목	없음	1대 이상	전체
<전체>	36(40.9)	52(59.1)	88(100)
<기관성격별>			
학교평생교육시설	3(20.0)	12(80.0)	15(100)
직업훈련기관	1(20.0)	4(80.0)	5(100)
노인평생교육기관	2(66.7)	1(33.3)	3(100)
사회복지기관	1(14.3)	6(85.7)	7(100)
문화원	3(33.3)	6(66.7)	9(100)
연수기관		3(100.0)	3(100)
공공평생교육시설	26(56.5)	20(43.5)	46(100)
	$\chi^2=13.422, P<.05$		

(표 계속)

<설립·운영주체별>			
정부·지자체설립운영	26(52.0)	24(48.0)	50(100)
정부·지자체설립/민간위탁운영	1(16.7)	5(83.3)	6(100)
종교단체설립운영		1(100.0)	1(100)
민간비영리단체설립운영	6(46.2)	7(53.8)	13(100)
학교부설	3(18.8)	13(81.3)	16(100)
기타		2(100.0)	2(100)
$\chi^2=9.478, P>.05$			
<운영재원별>			
보조(국고, 지자체)	32(47.8)	35(52.2)	67(100)
자체기금조성(후원금)		3(100.0)	3(100)
교육수강료	3(23.1)	10(76.9)	13(100)
기타	1(20.0)	4(80.0)	5(100)
$\chi^2=5.993, P>.05$			

운영주체별 분석에서는 정부·지자체 설립운영의 경우 빔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 정부·지자체 설립운영의 경우 공공평생교육시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운영재원별 분석에서는 모두 전체결과와 같이 빔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그렇지 않은 기관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기관의 각종 교육용 기자재 현황을 조사 해 보았는데 비디오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표 IV-59>와 같다.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비디오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27.3%) 보다 보유하고 있는 기관(72.7%)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성격별, 운영주체별, 운영재원별 분석에서는 모두 전체결과와 같이 비디오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보다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9> 보유 기자재(비디오) 현황

(단위 : 명, %)

구분 \ 항목	없음	1대 이상	전체
<전체>	24(27.3)	64(72.7)	88(100)
<기관성격별>			
학교평생교육시설	2(13.3)	13(86.7)	15(100)
직업훈련기관		5(100.0)	5(100)
노인평생교육기관	1(33.3)	2(66.7)	3(100)
사회복지기관		7(100.0)	7(100)
문화원	2(22.2)	7(77.8)	9(100)
연수기관	1(33.3)	2(66.7)	3(100)
공공평생교육시설	18(39.1)	28(60.9)	46(100)
	$\chi^2=9.457, P>.05$		
<설립·운영주체별>			
정부·지자체설립운영	19(38.0)	31(62.0)	50(100)
정부·지자체설립/민간위탁운영		6(100.0)	6(100)
종교단체설립운영		1(100.0)	1(100)
민간비영리단체설립운영	3(23.1)	10(76.9)	13(100)
학교부설	2(12.5)	14(87.5)	16(100)
기타		2(100.0)	2(100)
	$\chi^2=8.152, P>.05$		
<운영재원별>			
보조(국고, 지자체)	21(31.3)	46(68.7)	67(100)
자체기금조성(후원금)		3(100.0)	3(100)
교육수강료	3(23.1)	10(76.9)	13(100)
기타		5(100.0)	5(100)
	$\chi^2=3.675, P>.05$		

평생교육기관의 각종 교육용 기자재 현황을 조사 해 보았는데 OHP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표 IV-60>와 같다.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OHP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25%) 보다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75%)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성격별 분석에서는 공공평생교육시설의 경우 OHP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97.8%)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주체별 분석에서는 정부·지자체 설립/민간위탁운영, 학교부설의 경우 OHP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재원별 분석에서는 교육수강료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의 경우 OHP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0> 보유 기자재(OHP) 현황

(단위 : 명, %)

구분 \ 항목	없음	1대 이상	전체
<전체>	66(75.0)	22(25.0)	88(100)
<기관성격별>			
학교평생교육시설	5(33.3)	10(66.7)	15(100)
직업훈련기관		5(100.0)	5(100)
노인평생교육기관	2(66.7)	1(33.3)	3(100)
사회복지기관	5(71.4)	2(28.6)	7(100)
문화원	8(88.9)	1(11.1)	9(100)
연수기관	1(33.3)	2(66.7)	3(100)
공공평생교육시설	45(97.8)	1(2.2)	46(100)
$\chi^2=45.534, P<.05$			
<설립·운영주체별>			
정부·지자체설립운영	45(90.0)	5(10.0)	50(100)
정부·지자체설립/민간위탁운영	2(33.3)	4(66.7)	6(100)
종교단체설립운영		1(100.0)	1(100)
민간비영리단체설립운영	11(84.6)	2(15.4)	13(100)
학교부설	6(37.5)	10(62.5)	16(100)
기타	2(100.0)		2(100)
$\chi^2=27.863, P<.05$			
<운영재원별>			
보조(국고, 지자체)	57(85.1)	10(14.9)	67(100)
자체기금조성(후원금)	2(66.7)	1(33.3)	3(100)
교육수강료	5(38.5)	8(61.5)	13(100)
기타	2(40.0)	3(60.0)	5(100)
$\chi^2=16.261, P<.05$			

평생교육기관의 각종 교육용 기자재 현황을 조사 해 보았는데 교육용 PC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표 IV-61>와 같다.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용 PC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43.2%) 보다 보유하고 있는 기관(56.8%)이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성격별 분석에서는 공공평생교육시설의 경우 교육용 PC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이 각각 50%의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운영주체별 분석에서는 정부·지자체 설립운영의 경우 교육용 PC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이 각각 50%의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운영재원별 분석에서는 모두 전체결과와 같이 교육용 PC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그렇지 않은 기관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1> 보유 기자재(교육용 PC) 현황

(단위 : 수, %)

구분 \ 항목	없음	1대 이상	전체
<전체>	38(43.2)	50(56.8)	88(100)
<기관성격별>			
학교평생교육시설	5(33.3)	10(66.7)	15(100)
직업훈련기관	1(20.0)	4(80.0)	5(100)
노인평생교육기관	1(33.3)	2(66.7)	3(100)
사회복지기관	2(28.6)	5(71.4)	7(100)
문화원	5(55.6)	4(44.4)	9(100)
연수기관	1(33.3)	2(66.7)	3(100)
공공평생교육시설	23(50.0)	23(50.0)	46(100)
$\chi^2=3.968, P>.05$			
<설립·운영주체별>			
정부·지자체설립운영	25(50.0)	25(50.0)	50(100)
정부·지자체설립/민간위탁운영	2(33.3)	4(66.7)	6(100)
종교단체설립운영		1(100.0)	1(100)
민간비영리단체설립운영	6(46.2)	7(53.8)	13(100)
학교부설	5(31.3)	11(68.8)	16(100)
기타		2(100.0)	2(100)
$\chi^2=4.440, P>.05$			
<운영재원별>			
보조(국고, 지자체)	32(47.8)	35(52.2)	67(100)
자체기금조성(후원금)		3(100.0)	3(100)
교육수강료	5(38.5)	8(61.5)	13(100)
기타	1(20.0)	4(80.0)	5(100)
$\chi^2=4.066, P>.05$			

6) 운영상 애로사항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상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예산·재정, 시설·장비, 인력관리, 기관 홍보, 지역사회내 타 기관간 협력 및 연계, 정책 결정자의 이해 및 관심,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8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전체적인 조사결과는 <표 IV-62>과 같다. 전체 항목들 중에서 ‘매우 어렵다’에 해당하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시설·장비(19.3%),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15.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책 결정자의 이해 및 관심이나 타기관 협력 및 연계 항목에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음’과 ‘별로 어렵지 않음’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평생교육기관에서 운

영상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시설·장비와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62> 운영상 애로사항

(단위 : 수, %)

구분	항목	빈도(기관수)	비율(%)
예산·재정	전혀 어려움이 없음	3	3.4
	별로 어렵지 않음	8	9.1
	보통이다	28	31.8
	대체로 어려운 편임	37	42.0
	매우어렵다	12	13.6
	계	88	100.0
시설·장비	전혀 어려움이 없음	8	9.1
	별로 어렵지 않음	8	9.1
	보통이다	37	42.0
	대체로 어려운 편임	18	20.5
	매우어렵다	17	19.3
	계	88	100.0
인력관리	전혀 어려움이 없음	4	4.5
	별로 어렵지 않음	11	12.5
	보통이다	44	50.0
	대체로 어려운 편임	16	18.2
	매우어렵다	13	14.8
	계	88	100.0
기관홍보	전혀 어려움이 없음	4	4.5
	별로 어렵지 않음	15	17.0
	보통이다	47	53.4
	대체로 어려운 편임	18	20.5
	매우어렵다	4	4.5
	계	88	100.0
타기관간 협력 및 연계	전혀 어려움이 없음	7	8.0
	별로 어렵지 않음	23	26.1
	보통이다	40	45.5
	대체로 어려운 편임	13	14.8
	매우어렵다	5	5.7
	계	88	100.0
정책 결정자의 이해 및 관심	전혀 어려움이 없음	13	14.8
	별로 어렵지 않음	37	42.0
	보통이다	31	35.2
	대체로 어려운 편임	6	6.8
	매우어렵다	1	1.1
	계	88	100.0

(표 계속)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전혀 어려움이 없음	4	4.5
	별로 어렵지 않음	14	15.9
	보통이다	37	42.0
	대체로 어려운 편임	19	21.6
	매우어렵다	14	15.9
	계	88	100.0
교육프로그램 개발	전혀 어려움이 없음	3	3.4
	별로 어렵지 않음	18	20.5
	보통이다	36	40.9
	대체로 어려운 편임	19	21.6
	매우어렵다	12	13.6
	계	88	100.0

7) 정책상 요구사항

평생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요구하고 싶은 사항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정부나 지원기관의 지원요구사항, 행정적인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였다.

정부나 지원기관에서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은 <표 IV-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볼 때, 재정적인 지원이 40.9%를 차지하고 있었다.

기관성격별 분석에서는 문화원과 공공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재정적인 지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운영주체별 분석에서는 정부·지자체설립운영, 민간비영리단체설립운영의 경우 재정적인 지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운영재원별 분석에서는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재정적인 지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IV-63> 지원요구사항

(단위 : 명, %)

구분	항목	평생교육 기관의 연계체제 추진	평생교육 관련 정보 제공	평생교육 에 대한 시민의 인식 증진	재정적인 지원	프로그램 의 공동기획 및 개최	기타	전체
<전체>		14(15.9)	12(13.6)	10(11.4)	36(40.9)	13(14.8)	3(3.4)	88(100)
<기관성격별>								
	학교평생교육시설	3(20.0)	2(13.3)	4(26.7)	3(20.0)	2(13.3)	1(6.7)	15(100)
	직업훈련기관	1(20.0)	1(20.0)	1(20.0)		2(40.0)		5(100)
	노인평생교육기관				3(100.0)			3(100)
	사회복지기관	3(42.9)	1(14.3)		3(42.9)			7(100)
	문화원		2(22.2)	1(11.1)	5(55.6)	1(11.1)		9(100)
	연수기관	1(33.3)	1(33.3)			1(33.3)		3(100)
	공공평생교육시설	6(13.0)	5(10.9)	4(8.7)	22(47.8)	7(15.2)	2(4.3)	46(100)
		$\chi^2=27.868, P<.05$						
<설립·운영주체별>								
	정부·지자체설립운영	7(14.0)	8(16.0)	2(4.0)	22(44.0)	9(18.0)	2(4.0)	50(100)
	정부·지자체설립/민간위탁운영	1(16.7)		1(16.7)	3(50.0)	1(16.7)		6(100)
	종교단체설립운영				1(100.0)			1(100)
	민간비영리단체설립운영	2(15.4)	2(15.4)	1(7.7)	7(43.8)	1(7.7)		13(100)
	학교부설	4(25.0)	2(12.5)	4(25.0)	3(18.8)	2(12.5)	1(6.3)	16(100)
	기타			2(100.0)				2(100)
		$\chi^2=29.001, P>.05$						
<운영자원별>								
	보조(국고, 지자체)	9(13.4)	10(14.9)	5(7.5)	31(46.3)	10(14.9)	2(3.0)	67(100)
	자체기금조성(후원금)	1(33.3)		1(33.3)	1(33.3)			3(100)
	교육수강료	2(15.4)	2(15.4)	3(23.1)	3(23.1)	3(23.1)		13(100)
	기타	2(40.0)		1(20.0)	1(20.0)		1(20.0)	5(100)
		$\chi^2=16.393, P>.05$						

평생교육체제가 지역수준에서 구축되기 위해 어느 기관이 행정적인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IV-64>와 같다.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 볼 때, 평생교육 전담기관이 행정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51.1%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기관성격별 분석에서는 연수기관의 경우, 도청, 시·군청, 평생교육 전담기관이 행정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각각 33.3%로 나타났다.

운영주체별 분석에서는 정부·지자체 설립/민간위탁운영의 경우 도교육청, 시·군청, 평

생교육 전담기관이 행정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각각 33.3%로 나타났다.

운영재원별 분석에서는 자체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의 경우 시·군청이 행정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표 IV-64> 행정주체

(단위 : 명, %)

구분 \ 항목	도 교육청	도청	시·군청	평생교육 전담기관	기타	전체
<전체>	7(8.0)	3(3.4)	26(29.5)	45(51.1)	7(7.9)	88(100)
<기관성격별>						
학교평생교육시설			5(33.3)	7(46.7)	3(20.0)	15(100)
직업훈련기관	1(20.0)	1(20.0)		3(60.0)		5(100)
노인평생교육기관			1(33.3)	2(66.7)		3(100)
사회복지기관	2(28.6)		1(14.3)	4(57.1)		7(100)
문화원			3(33.3)	6(66.7)		9(100)
연수기관		1(33.3)	1(33.3)	1(33.3)		3(100)
공공평생교육시설	4(8.7)	1(2.2)	15(32.6)	22(47.8)	4(8.7)	46(100)
	$\chi^2=30.291, P>.05$					
<설립·운영주체별>						
정부·지자체설립운영	3(6.0)	3(6.0)	16(32.0)	24(48.0)	4(8.0)	50(100)
정부·자자체설립/민간위탁운영	2(33.3)		2(33.3)	2(33.3)		6(100)
종교단체설립운영				1(100.0)		1(100)
민간비영리단체설립운영	1(7.7)		2(15.4)	10(76.9)		13(100)
학교부설			5(31.3)	8(50.0)	3(18.8)	16(100)
기타	1(50.0)		1(50.0)			2(100)
	$\chi^2=24.087, P>.05$					
<운영재원별>						
보조(국고, 지자체)	7(10.4)	3(4.5)	19(28.4)	34(50.7)	4(6.0)	67(100)
자체기금조성(후원금)			2(66.7)	1(33.3)		3(100)
교육수강료			3(23.1)	8(61.5)	2(15.4)	13(100)
기타			2(40.0)	2(40.0)	1(20.0)	5(100)
	$\chi^2=9.249, P>.05$					

3.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 본 평생학습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월평균 교육인원에 비해 재무보유 측면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점이다.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충남도민의 월평균 교육인원은 기관성격별, 설립·운영주체별, 운영재원별로 살

펴보았을 때 39.8%가 200명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평생교육기관이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제공하기 위함이 목적이라면 평생교육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정적인 지원이 요청된다.

둘째, 시의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기관은 56.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수요조사에 있어서 정부·자자체 설립운영의 경우가 수요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 평생교육기관의 경우 거의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 평생교육기관의 경우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요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요청된다.

셋째, 실무자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무자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기관이 48.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보다 자체적으로 기금조성과 교육수강료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 보다 실무자 연수를 충실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의 실무자들이 연수를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요청이 요구된다.

넷째, 평생교육기관의 운영과 평생교육기반 구축의 바탕이 되는 교육시설 및 기자재가 열악하다는 점이다. 교육시설 및 기자재 보유현황 면에서 강당, 실습실, 자료실, 상담실, 휴게실, 교육용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과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평생교육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할 때 대부분의 평생교육기관에서는 학습자 요구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선하고는 있지만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시설 및 기자재 측면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시설 및 기자재 확보 방안이 요구된다.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본 연구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요건중의 하나인 평생학습 인프라 즉, 평생학습기반기관 및 시설, 평생학습프로그램, 평생학습기관 종사자, 평생학습 추진체제 등에 대한 현황 및 실태 분석을 통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 정책에 보다 효율적으로 준비 및 대응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청남도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배포는 확률표집방법 중 군집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충남 16개 시군 평생교육 시설 15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에 응답한 90여개의 기관중 불성실한 기관을 제외한 88개 기관의 설문지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기관 성격

평생교육기관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평생교육기관의 교육내용 중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기초·교양교육(34.1%), 취미·여가교육(33.0%), 직업교육(11.4%), 건강·스포츠교육(10.2%), 기타(9.1%), 순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기관의 교육대상에 있어서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주부·여성(58.0%), 기타(20.5%), 학생(10.2%), 노인(8%)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항목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중복 응답으로 인한 것이다.

2) 평생교육기관 운영현황

평생교육기관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관의 인력, 재무보유, 월평균 유지비, 월평균 교육인원, 월평균 수강료, 지출항목, 홍보방법 등을 통해 파악하였다.

평생교육기관의 인력 채용 결과는 정규직인 경우 11~20명 이하(63.6%), 21명 이상(27.3%), 10명 이하(9.1%)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비정규직인 경우 11~20명 이하(46.6%), 10명 이하(45.5%)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평생교육기관의 자원봉사자 인력채용 결과는 평생교육기관의 64.8%에 해당되는 기관이 10명 미만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으나 11~20명 이하는 23.9%, 21명 이상은 11.4%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평생교육기관의 재무보유 현황 결과는 평생교육기관의 64.8%는 1억원 미만, 3억원 이상(15.9%), 1~2억원 미만(14.8%), 2~3억원 미만(4.5%)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기관의 월평균 유지비 결과는 500만원 미만(53.4%), 500~1500만원 미만(18.2%), 3500만원 이상(12.5%), 1500~2500만원 미만(11.4%)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기관의 월 교육인원 중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200명 이상(39.8%), 50~100명 미만(23.9%), 50명 미만(14.8%), 100~150명 미만(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기관의 월평균 수강료 중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1만원 미만(51.1%), 1~3만원 미만(15.9%), 7만원 이상(14.8%) 순으로 응답하였다.

평생교육기관의 가장 큰 지출항목은 인건비가 67%, 시설투자·유지비 26.1%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평생교육기관의 홍보방법은 전단/포스터/현수막이 46.6%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고, 신문 및 지역정보지 29.5%, 별도의 홍보를 실시 안함 8% 순으로 응답하였다.

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실태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프로그램개발 방법, 학습자 요구분석, 만족도 조사, 강의 평가반영, 시장조사, 프로그램 의견교환, 프로그램 개선빈도, 교육방법 등을 조사하였다.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개발 방법은 내부직원이 공동으로 자체 개발한다가 55.7%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고 다음으로는 기타(14.8%) 외부의 교육전문가 의뢰(12.5%), 타 기관 교육프로그램 도입·활용(11.4%), 타 기관 교육프로그램 수정·활용(5.7%)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기타항목은 중복응답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요구분석에 대한 조사결과는 대부분의 평생교육기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에 학습자 요구분석(70.5%)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학습자 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는 58.0%의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기관의 강의평가 반영 실시여부는 67%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기관의 시장조사 실시여부는 시장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은 56.8%의 기관이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평생교육기관에서 기관 운영자, 교·강사, 학습자 간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의견교환은 대부분의 기관(94.3%)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기관의 교육방법으로는 강의법이 61.4%, 실험·실습(33.3%), 시청각 자료(3.4%), 현장견학(2.3%) 순으로 드러났다.

4) 평생교육관련 인적자원

평생교육관련 인적자원을 파악하기 위해 직원채용방법, 실무자연수, 강사선정기준, 강사교육실시, 강사수급방법, 강사처우, 자원봉사자 활용, 자원봉사자 활용방법 등을 조사하였다.

평생교육기관의 직원채용방법은 기타(40.9%), 공모(37.5%), 아는 사람의 소개(15.9%), 타기관에 의뢰(5.7%)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가 많은 이유는 대부분의 평생교육기관은 직원채용에 있어서 한 가지 방법 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직원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생교육기관에서 실무자 연수 실시여부는 거의 실시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48.9%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연 1,2회 정도 실시(26.1%), 필요에 따라 실시(18.2%), 정기적 실시(6.8%)순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기관의 강사선정 기준은 담당교과의 전문성이 80.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는 수강생의 반응(9.1%), 관련학위 등의 학력, 사회적 지명도(3.4%), 기타(2.3%), 현재 직장 및 직위(1.1%) 순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기관의 강사교육실시 여부는 54.5%가 거의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29.5%), 연1,2회 정도 실시한다(10.2%), 정기적으로 실시한다(5.7%)순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기관의 강사수급방법은 37.5%가 아는 사람의 소개, 공모가 22.7%, 타기관 의뢰 13.6%, 평생교육정보센터의 강사풀·은행제 10.2% 순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기관의 시간당 강사료는 2~3만원 35.2%, 3~4만원 22.7%, 1~2만원 21.6%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기관의 자원봉사자 활용은 자원봉사자활용을 하고 있는 기관보다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이 53.4%로 더 높게 나타났다.

평생교육기관의 자원봉사자 활용방법은 교육프로그램 진행보조 39%, 단순한 사무보조 29.3%, 기획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17.1%), 학습자 관리 및 상담업무(2.4%)순으로 나타났다.

5) 교육시설 및 장비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시설 및 장비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시설형태, 각종 내부시설 설치현황, 교육용 기자재 등을 조사하였다.

평생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육시설의 형태는 조사 대상의 77.3%에 해당하는 기관이 교육시설을 자체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임대시설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9.1%로 나타났다. 기타의 항목으로는 위탁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평생교육기관의 각종 내부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평생교육기관이 강당(64.8%), 실습실(58%), 상담실(53.4%), 휴게실(59.1%)을 구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인터넷 전용선이 설치된 기관은 81.8%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료실은 50%가 구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3)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용 기자재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대형TV(62.5%), 빔프로젝트(59.1%), 비디오(72.7%), 교육용 PC(56.8%)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OHP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25%로 나타나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6) 평생교육기관 운영시 애로사항

평생교육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겪는 애로사항을 예산·재정, 시설·장비, 인력관리, 기관홍보, 타기관간 협력 및 연계, 정책결정자의 이해 및 관심,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전체 항목들 중에서 '매우 어렵다'에 해당하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시설·장비(19.3%),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15.9%), 인력관리, 타기관간 협력 및 연계(14.8%), 예산·재정, 교육프로그램 개발(13.6%), 기관홍보(4.5%), 정책결정자의 이해 및 관심(1.1%)의 순으로 나타났다.

7) 정책적 요구사항

평생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요구하고 싶은 사항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정부나 지원기관의 요구사항, 행정적인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였다.

정부나 지원기관의 지원요구사항 중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재정적인 지원(40.9%), 평생교육기관의 연계체제 추진(15.9%), 프로그램의 공동기획 및 개최(14.8%), 평생교육관련 정보 제공(13.6%), 평생교육에 대한 시민의 인식증진(11.4%)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체제가 지역수준에서 구축되기 위해서 어느 기관이 행정적인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는 평생교육전담기관(51.1%), 시·군청(29.5%), 도 교육청(8.0%), 기타(7.9%), 도청(3.4%)의 순으로 나타났다.

2. 결론

1) 평생교육기관 교육내용 및 대상의 확장

평생교육기관은 교육내용에 있어서 지역사회주민들의 기초 및 교양교육, 취미 및 여가교육 뿐 아니라, 직업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습득 등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하고, 교육대상 또한 여성에서 탈피하여 청소년, 노인계층도 적극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다.

2) 자원봉사자 활용체계 구축 및 다양한 홍보방법 도입

평생교육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자원봉사자 활용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기관홍보를 위해서는 기관자체 홍보와 아울러 보다 많은 예비학습자들이 방문하는 행정기관 및 인터넷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3) 지역특성조사·전문가 참여에 기초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은 지역특성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주민들에 대한 요구조사를 통해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뿐 아니라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생교육기관 교수자들간의 효율적 프로그램 운영경험과 다양한 교육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정기적인 워크숍, 세미나와 교수들의 능력계발을 위한 연수 등이 필요하다.

4) 외부인력의 적극적 활용방안 모색

평생교육기관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열악하여 상임교수자들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대학 교수, NGO관계자, 행정공무원 등 외부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정적인 외부전문가 활용을 위한 인력풀 제도를 행정기관, 대학, 충남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지역평생학습관과 연계하여 구축할 필요가 있다.

5) 평생학습추진기구 설치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평생교육기관의 애로사항으로 시설과 장비부족, 행정적 지원 등을 들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생학습추진 전담부서, 평생학습 추진위원회 등 추진기구를 설치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소득계층이나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직업기술교육이나 생활안정교육 및 문해교육 등을 제공하는 평생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운영 경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6) 주민자치센터의 활용

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가 있다. 즉,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사회센터로서 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평생학습의 이념 실현을 위해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평생학습도시의 중심역할을 담당케 할 필요가 있다.

3. 정책제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학습인프라 조사결과를 통해 평생학습도시를 신청하기 위한 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평생학습기관 인프라 진단 및 주민의 공감대 형성 후 평생학습도시 추진

평생학습도시를 신청하기 위한 자치단체는 지역내에 산재한 평생학습기관에 대한 충분한 실태분석을 통해 평생학습기관의 요구사항과 문제점, 발전방안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후 평생학습도시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내의 평생학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평생학습기관 인프라구축 수준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평생학습도시는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 지역사회주민 등 주체들간의 공감대위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즉,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될 경우 기대되는 긍정적 사회적·경제적 효과와 지역혁신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충분히 분석한 토대 위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부여군은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위해 “굿뜨레 평생학습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수립을 위해 지역주민과 평생교육담당자(평생교육담당 공무원, 담당교사, 시민단체 평생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요구분석을 실시하였다.

주민요구분석 내용은 평생학습활동 실태, 평생학습활동을 지지하는 조건, 평생학습도시의 향후방향 등 세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반면, 평생교육담당자 요구조사 내용은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대한 인식, 평생교육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평생학습도시사업 운영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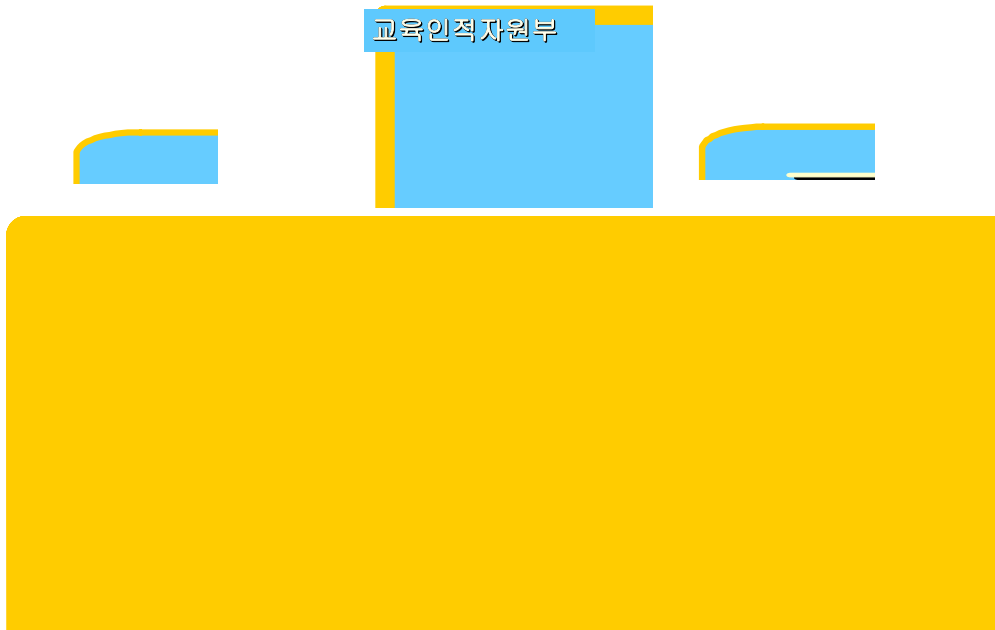
구 분	영 역	조 사 내 용
주 민	평생학습활동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의 필요성 및 그 이유 • 평생교육 참여경험 및 참여이유 • 참여했던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계획
	평생학습활동 을 지지하는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호하는 기관 • 평생교육기관 선택시 고려요인 • 적당한 교육시간 • 선호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내용
	평생학습도시 향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인식 • 군 행정에 대한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정책 대상 - 평생교육센터의 필요성 및 역할 - 평생교육전문인력의 필요성 - 주민의 평생학습 지원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 •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주민자치센터
담당자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인식 • 중점사업에 대한 의견 및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 • 평생교육정책 대상 및 교육영역 • 주민의 평생학습지원시 우선사항 • 사업추진 시 애로사항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연계·협력이 현재 잘 이루어지는 영역과 가장 필요한 영역 • 네트워크 구축의 애로사항 및 지원기관의 역할
	평생학습도시 사업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수준의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행정적 주체 • 평생학습센터의 필요성 및 역할 • 전문인력 배치의 필요성 • 사업 진행에서 요구사항 및 정책제언

자료 : 부여군, 고훈레 평생학습도시 종합계획, 2005.

2) 지역내 관련기관과 평생교육기관의 유기적 협력 통한 평생학습도시 추진

평생학습도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시책이지만, 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관련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지역내 대학 등 학교의 역할

이 강조되어야 하며, 지역내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기관들과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금산군의 평생학습도시 추진체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 금산군·금산교육청, 2005년도 평생학습도시 추진전략, 2005

3) 기지정 평생학습도시의 성공 및 실패요인 분석을 위한 적극적 벤치마킹 추진

평생학습도시로 기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이후 활발한 사업추진으로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지정 이후 관리 부실 상태인 자치단체로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4)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배치 및 활용

평생학습도시를 신청하기 위한 자치단체는 평생교육관련 부서를 설치하고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자체적으로 취득케 하거나,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홍보, 교육, 평생교육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배치를 통한 노하우의 축적이 필수적이고 이를 통해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한 보다 양호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 광명시 평생학습센터(2001). 광명시 평생학습 도시건설5개년 계획.
- 광명시(1998. 12. 22). 광명시 평생학습센터설치및운영조례(광명시조례 제1101호)
- 군포시(1997. 10. 11)군포시 시민평생학습추진위원회조례(군포시조례 제491호)
- 김동성 외(200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연구. 경기도.
- 김득영(1998). “군포시 평생학습 추진체제의 구축과정.” 한국사회교육학회. 글로벌시대의 한국사회교육학의 대응. 1998년 학술세미나 자료집.
- _____(2001). “일본의 학습도시.”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소식? 2001. 가을호 .
- 문화관광부(2002). www.mct.go.kr
- 부천시,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2001). 부천시평생학습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공청회 자료집.
- 신경희(2001). “서울시 평생교육 발전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_____(2002). “평생학습을 통한 서울시 사회적 자본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신원득 외(2000). “평생교육활성화 방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경기개발연구원.
- 양병찬(1999). “평생학습도시에서 지역사회교육기관과 학교의 역할.” 광명시 평생학습센터. 광명시 평생학습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미나(자료집).
- _____(2000). “지역평생교육 공동체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전략.” 한국교육개발원 중앙평생교육센터. 지역사회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방안(제1차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관계자 워크숍 자료집).
- _____(2002). 지역을 살리기 위한 평생학습마을/도시만들기.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 양병찬 외(2004). 충남지역 평생교육 기초조사 연구. 대전 : 충청남도교육청.
- 양병찬 • 이희수 • 김득영(2001). 군포시 평생학습도시 건설 계획. 군포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용역 보고서.
- 열린사회시민연합(2000).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이용주민 • 주민자치위원 • 담당공무원 의견조사.
- 진안평생학습고을추진위원회(2002). 진안평생학습고를 조성 실적 보고 자료집.
- 창원시(1995. 1. 13). 창원시평생교육원설치운영조례(창원시 조례 제 17 호)
- 충남도청 자치행정과(2004). 주민자치센터 설치현황

충청남도교육청(2003). 충남교육통계연보

행정자치부(2003). www.mogaha.go.kr

福留强 지음, 金得永 옮김, 평생학습마을만들기론, 대전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2003.

佐藤一子(1998). 生涯學習と社會參加. 東京 : 東京大學出版會.

湯上二浪 編(1994). 社會教育計劃の理論. 東京 : 日常出版.

尼崎市生涯學習基本計劃策定委員會,生涯學習の視點から行政を推進するために, 1990.

Longworth, N.(1999). *Making Lifelong Learning Work: Learning Cities for a Learning Century*. London : Kogan Page.

Longworth, N.(2001). *Creating Lifelong Learning Cities, Towns and Regions - The Local and Regional Dimension of Lifelong Education*. A European Policy Paper from The TELS Project.

Yarnit, M.(2000). *Towns, Cities and Regions in the Learning Age; A Survey of Learning Communities*. London: LGA Publications for the DfEE, NCA.

<http://tels.euproject.org/>

<http://www.ala.asn.au/learningcities/>

<http://www.ed.gov/21stcclc>.

<http://www.lifelonglearning.co.uk/learningcities/front.htm>.

<http://www.southampton.gov.uk/education/>

【 부 록 】 설 문 지

충청남도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법의 제정으로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에서 충남발전재단에서는 도민들에게 평생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내의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지는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실태파악을 위한 기본조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기관의 운영자께서는 본 설문지가 충남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을 숙지하시어 바쁘시더라도 모든 질문에 성실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으로만 활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작성하신 설문지는 동봉된 회송용 봉투에 넣어 7월 10일 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아래의 주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와 각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 6

충남발전재단연구원장 김 용 웅

☞ 설문지를 작성하시는 중에 의문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305-3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동 138-42번지 충남발전재단연구원

전화 : 042-820-1150 / 팩스 : 042-820-1129 / E-mail : dbsong@cdi.re.kr

(연구책임자: 송두범)

I. 다음은 기관의 성격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 표를 하거나 괄호 안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1. 귀 기관의 소재지는?

- ① 천안시 ② 공주시 ③ 보령시 ④ 아산시 ⑤ 서산시 ⑥ 논산시
 ⑦ 계룡시 ⑧ 금산군 ⑨ 연기군 ⑩ 부여군 ⑪ 서천군 ⑫ 청양군
 ⑬ 홍성군 ⑭ 예산군 ⑮ 태안군 ⑯ 당진군

2. 귀 기관의 설립연도는?

- ① 1980년도 이전 ② 1981~1985년도 ③ 1986~1990년도
 ④ 1991~1995년도 ⑤ 1996~2000년도 ⑥ 2001~현재

3. 귀 기관의 일반적인 성격은?

- ① 학교평생교육시설(초·중등·대학부설, 학력인정, 학력미인정 시설 등)
 ② 직업훈련기관
 ③ 청소년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④ 여성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⑤ 노인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⑥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⑦ 문화시설 중심 평생교육기관(박물관, 문화원 등)
 ⑧ 일반평생교육시설(시민사회단체, 언론사, 사업장 부설)
 ⑨ 연수기관(공무원 연수기관, 일반연수기관 등)
 ⑩ 공공평생교육시설(평생학습관, 주민자치센터)
 ⑪ 기타()

4. 귀 기관의 설립·운영주체는?

- ① 정부·지자체 설립운영
 ② 정부지자체 설립 및 민간(종교단체 포함)위탁 운영
 ③ 종교단체 설립운영
 ④ 민간비영리단체 설립운영

- ⑤ 학교(대학포함)부설기관
- ⑥ 기업체 부설기관
- ⑦ 민간영리단체(사설학원, 문화센터 등)
- ⑧ 기타()

5. 귀 기관에서 제공하는 주된 교육내용은?(복수응답 불가능)

- ① 직업기술전문교육(자격증 취득 포함)
- ② 기초·교양·문화소양 교육
- ③ 취미·오락·여가교육
- ④ 외국어 관련 교육
- ⑤ 건강·보건·스포츠 관련 교육
- ⑥ 시민의식·환경·경제생활관련 교육
- ⑦ 직무개선 연수
- ⑧ 기타()

6. 귀 기관의 주된 교육대상은?(복수응답 불가능)

- ① 학생(초·중·고, 대학생)
- ② 주부, 여성
- ③ 노인
- ④ 장애인
- ⑤ 직장인
- ⑥ 공무원
- ⑦ 구직자
- ⑧ 기타()

II. 다음은 기관의 운영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를 하거나 괄호 안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7. 귀 기관의 인력은 몇 명입니까?

구 분	인 원 수
정 규 직	()명
비정규직	()명
자원봉사자(지원인력 포함)	()명
합 계	()명

8. 귀 기관의 주된 운영재원은?

- ① 보조(국고, 지방자치단체)
- ② 자체기금조성(후원금 포함)
- ③ 수익사업
- ④ 교육수강료
- ⑤ 기타()

9. 귀 기관의 현재 재무 보유액은?

- ① 1억원 미만
- ②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 ③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 ④ 3억원 이상

10. 귀 기관의 월평균 유지비는?

- ① 500만원 미만
- ② 5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
- ③ 1500만원 이상~2500만원 미만
- ④ 2500만원 이상~3500만원 미만
- ⑤ 3500만원 이상

11. 귀 기관의 월평균 교육인원은?

- ① 50명 미만
- ② 50명 이상~100명 미만
- ③ 100명 이상~150명 미만
- ④ 150명 이상~200명 미만
- ⑤ 200명 이상

12. 귀 기관의 월평균 수강료는?

- ① 1만원 미만
- ② 1만원 이상~3만원 미만
- ③ 3만원 이상~5만원 미만
- ④ 5만원 이상~7만원 미만
- ⑤ 7만원 이상

13. 귀 기관의 운영유지비 중 지출항목이 가장 큰 항목은?

- ① 인건비
- ② 시설투자·유지비
- ③ 광고·홍보비
- ④ 연구개발비
- ⑤ 기타()

14. 귀 기관에서는 홍보를 위하여 주로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 ① 신문 및 지역정보지, 잡지 등
- ② 전단, 포스터, 현수막 등

- ③ PC통신 및 인터넷 등
- ④ 방송매체(TV, 라디오 등)
- ⑤ 별도의 홍보를 실시하지 않음
- ⑥ 기타()

Ⅲ. 다음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를 하거나 괄호 안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15. 귀 기관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고 계십니까?

- ① 외부의 교육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개발
- ② 내부 직원이 공동으로 자체 개발
- ③ 타 기관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활용
- ④ 타 기관 교육프로그램을 수정·활용
- ⑤ 기타

※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예' 또는 '아니오'에 √표 하여 주십시오

구 분	예	아니오
16.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앞서 학습자에 대한 요구분석을 실시한다		
17.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주기적으로 학습자 요구 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18. 교육후 학습자에 의한 강의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한다.		
19. 시의성 있는 프로그램개발을 위해 시장조사를 실시한다.		
20. 기관 운영자, 교·강사, 학습자 간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21. 귀 기관에서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빈도는?

- ① 거의 개선하지 못한다
- ② 2~3년마다 개선한다
- ③ 1년마다 개선한다
- ④ 연2회 정도 개선한다
- ⑤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선한다

22.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주된** 교육방법은?(복수응답 불가능)

- ① 강의법 ② 토의법 ③ 실험·실습
- ④ 시청각 자료 ⑤ 인터넷 및 통신교육 ⑥ 현장 견학

IV. 다음은 평생교육관련 인적자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를 하거나 괄호 안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23. 귀 기관에서는 직원채용에 있어서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 ① 공모(인터넷, 신문광고 및 지역생활정보지 등)
- ② 아는 사람의 소개
- ③ 타 기관에 의뢰
- ④ 기타()

24. 귀 기관에서는 평생교육 실무자를 위한 연수를 어느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 ① 거의 실시하지 않는다 ② 연1, 2회 정도 실시한다
- ③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④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5. 귀 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의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 ① 담당 교과목의 전문성 ② 관련 학위 등의 학력
- ③ 현재 직장 및 직위 ④ 사회적 지명도
- ⑤ 수강생의 반응 ⑥ 기타()

26. 귀 기관에서는 강사교육을 어느 정도 실하고 있습니까?

- ① 거의 실시하지 않는다 ② 연1, 2회 정도 실시한다
- ③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④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7. 귀 기관에서는 강사를 어떻게 수급하고 계십니까?

- ① 평생교육정보센터의 강사풀·은행제

※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예' 또는 '아니오'에 √표 하여 주십시오

구 분	예	아니오
32. 귀 기관에서는 강당 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33. 귀 기관에서는 실습실 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34. 귀 기관에서는 자료실 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35. 귀 기관에서는 상담실 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36. 귀 기관에서는 인터넷 전용선 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37. 귀 기관에서는 휴게실 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38. 귀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교육용 기자재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종 류	보유(갯수)
1) 대형 TV	총 ()대
2) 빔(액정) 프로젝트	총 ()대
3) VTR	총 ()대
4) OHP	총 ()대
5) 교육용 PC	총 ()대
6) 기타	총 ()대

VI. 다음은 운영상 애로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내 용	전혀 어려움이 없다	별로 어렵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어려운 편이다	매우 어렵다
39. 예산·재정					
40. 시설·장비					
41. 인력관리					
42. 기관홍보					
43. 지역사회내 타 기관간 협력 및 연계					
44. 정책 결정자의 이해 및 관심					
45. 정부의 행·재정적지원					
46. 교육프로그램 개발					

VII. 다음은 정책상 요구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 표
를 하거나 괄호 안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47. 평생교육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나 지원기관(교육청, 시·도청, 평생교육센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에서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 ① 평생교육기관의 연계체제 추진
- ② 평생교육관련 정보 제공
- ③ 평생교육에 대한 시민의 인식 증진
- ④ 재정적인 지원
- ⑤ 프로그램의 공동기획 및 개최
- ⑥ 기타()

48. 평생교육체제가 지역수준에서 구축되려면 어느 기관이 행정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도 교육청 ② 도청 ③ 시·군청
④ 평생교육 전담기관 ⑤ 기타()

총발연 05-05 · 평생학습도시조성을 위한 학습인프라 실태분석

글쓴이·송두범 외 / 발행자·김용웅 / 발행처·충남발전연구원

인쇄·2005년 10월 31일 / 발행·2005년 10월 31일

주소·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동 138-42 (305-313)

전화·042-824-7918(기획팀) 042-820-1114(대표) / 팩스·042-820-11297

SIBN·89-89552-43-5 93320

<http://www.cdi.re.kr>

©2005.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